

전발연 2008-R-12

전라북도 여성창업실태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2008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조 경 옥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조 막 래 · 전북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연구자문 엄 영 숙 · 전북대학교 교수/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

정 의 봉 · 호원대학교 교수/한국창업보육협회 이사

김 태 호 · 희망창업소상공인지원센터장

박 영 자 ·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임 경 진 ·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이 영 조 · 전라북도의원 교육복지위원

김 귀 곤 ·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이 기 배 · 전라북도 일자리창출과 취업지원담당

이 영 란 ·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여성일자리담당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들어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여성의 창업활동 및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은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정책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경향이 있었음
- 여성창업은 잠재적인 노동력으로서 여성인력의 활용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여성 창업의 결과인 여성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어 진입장벽이 두터운 지역 노동시장이 갖는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는데 대안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역노동시장의 한계를 논할 때, 전북지역은 중소기업 중심의 영세한 경제구조와 여성친화적인 기업의 부족, 경력단절 여성 및 기혼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어려운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할 때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여성창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성 창업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은 여성창업인의 대다수가 진입장벽이 낮은 숙박 및 음식점, 도소매업 등에서의 소규모 생계형 창업에 집중되어 있거나 자금 및 창업정보에 대한 접근성으로부터의 배제, 열악한 창업지원정책 등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창업을 통한 경제적 기여 및 지위향상에 온전히 기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여성기업 활동의 어려움에 대한 실태는 여성과 여성 기업이라는 일반적이고 공통된 요인 이외에도 지역적 특성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는 점과 여성 창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기관이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각 기관에 흩어져 있어 사업과 수혜의 중복 등 지원체계에 따른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개별 여성 창업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이외에 여성창업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와 정책, 사업에 있어서의 지원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여성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 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업정책 가운데에서도 여성 대상의 창업정책에 대한 기존성과 및 효과를 검토하고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효과적인 창업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기존문헌 및 통계 자료에 나타난 전라북도 여성창업의 실태 및 현황, 문제점 등을 분석함. 또한 타 지역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전라북도의 여성창업에 대한 각각의 변화추이를 전망하고 전북 여성창업 활동 참여 특징과 변화를 정리 함
-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창업정책의 자료 분석을 통하여 사업실적 및 성과를 분석하여 창업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함. 창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를 최종목표로 보고 고용창출 효과, 매출액 증가, 창업에서의 성공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여성창업이 전북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살펴 봄
- 창업을 통하여 기업을 이룬 여성을 대상으로 창업관련 및 기업현황, 창업활동 조사, 창업지원제도 수혜여부와 욕구, 창업정책의 효과성 및 문제점, 창업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함
-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전북지역 여성창업 활동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발전적 방안을 모색 함. 특히 여성창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자체와 기관, 여성 개인 등 각 주체의 역할과 향후 방향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 및 자료의 수집·분석
- 심층면접조사 : 심층면접조사는 크게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진행 됨. 첫째는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여성기업인과 또 하나의 집단은 여성경제인협회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취업관련 기관에 입주 한 여성기업인 임. 이러한 분류

는 창업관련 인프라, 창업 기업자체의 영세성 등에 있어 두 집단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전문가와 자문진 등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연구방향과 내용 및 기업대상의 심층면접 내용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개선안을 도출 함

3) 연구 제한점 및 기대효과

- 본 연구 대상인 여성창업 지원정책과 관련된 사업은 해당기관에서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대부분 위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창업정책 효과를 평가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제도화가 미비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특히 창업지원에 있어서는 그 수혜여부를 기업대상으로 파악하고 남여기업인에 대한 성별분리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여성창업에 대한 데이터를 얻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음
- 또한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사업평가와 같은 규정이 없이 단순히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 사업도 다수이어서 각 사업에 대한 성과치로서 고용인원, 매출액 등을 파악하는데 제한적이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성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있어 효과적 방안을 제안하고 나아가 여성창업의 성공적 모델 및 요인분석을 통하여 창업을 준비하거나 향후 희망의사를 갖는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창업지원 방안 및 정책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있는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음

제 2 장 여성창업 특성 및 정책적 지원효과

1. 여성창업의 특성

1) 여성창업활동의 일반적 특성

- 여성창업의 일반적인 특성은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여성기업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일반화 할 수 있음. 여성기업인의 몇 가지 일반적

인 특성을 살펴보면

- 여성창업인은 대부분 기혼상태이며 창업을 하는 주된 연령은 30~45세로 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창업을 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교육수준에 있어서 남성기업인과 차이가 없지만 전공에 있어서는 여성기업인은 경영, 기계공학, 또는 기술 분야 보다는 주로 인문학을 전공함.
- 직업경험에 있어서도 남성기업인은 경영진, 과학자 및 기술직에서 직업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여성은 교사직, 판매직, 사무직에서 경험이 많고 경력 단절이 빈번하며 이전 직장경험과의 연계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기업인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본인이 직접 창업한 경우가 8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에 반해 기존기업 인수는 16.5%, 가업승계(남편이나 부친의 사업 승계)는 3.3%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기업인인의 창업이전 경력으로는 가정주부가 4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판매영업직 14.5%, 도소매 자영사업주 11.7%, 사무직 종사자 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현재 창업 이전 경력과 현재 창업업종과 연관이 있는 경우는 35.3%에 불과함
- 여성기업인은 남성기업인과 다른 경영방식을 가지고 있는 데 이러한 요인이 여성기업인의 성공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여성기업인은 섬세하고 치밀한 사업 감각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생산시대에 적합한 경영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음

2) 여성창업의 장애요인

- 여성의 창업과 관련하여 장애요인으로는 창업 준비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초기사업 운영 시의 애로사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2007년 조사 이전의 시기까지는 창업 준비 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이 압도적이었으나 2007년 조사 결과에서는 입지선정 및 확보(29.0%)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거론됨. 다음으로는 자금조달(28.1%), 판로개척(18.1%), 업종선정(11.9%) 등으로 조사 됨
- 자금조달의 경우 제조업 (35.7%), 건설업 (29.7%), 음식숙박업 (31.9%) 등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입지선정 및 확보에 있어서는 음식숙박업 (29.5%), 도소매업 (27.8%)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각 지역에 따라 창업 준비 시 애로사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 광주/전북/전남의 경우 자금조달에 대한 애로사항은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나 입지선정 및 확보, 업종선종, 사업 타당성 분석은 강원과 제주를 제외하고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한편, 창업초기에 사업 운영 시 여성기업인의 애로사항으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매출부진(50.6%)이었으며 그 외 시장 환경 분석 등 정보수집능력 미흡(18.3%), 자금조달(16.1%) 등의 순임. 특히 지역별 사업 운영 시 애로 사항으로는 정보수집능력 미흡이 전남과 전북지역에서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여성 기업은 효과적인 창업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창업자금 지원(45.3%)을 우선적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시장정보 제공(24.2%), 세금지원 확대(15.7%) 등의 순으로 꼽고 있음. 이를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각 지역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창업절차 개선에 있어서는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남과 전북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2. 여성창업의 정책지원 내용 및 효과

-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지원은 2000년 이후 여성가족부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여성가장 및 여성기술인 등에 대한 창업지원 사업이 시행 됨(2000년 이후 각 부처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창업자금지원에 대한 예산내역은 본문 <표2-8>, <표2-9>에 정리하였음)
-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성창업지원 정책이 갖는 문제점이나 한계를 정리하면 첫째,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여전히 자금과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남. 현행 창업자금 지원방식은 대상자의 접근성이 제한적이고 지원규모에 있어 창업자금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많으며 이자율이 실제 상황에서는 부담이 높음
-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지원 대상자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기관에 위탁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문적인 사전사후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지 못함
- 셋째, 창업관련 여성우대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관한 개인정보는 등록되어 있으나 정책수혜자에 대한 남녀분리 통계는 별도로 생산하고 있지 않음. 이외에 여성창업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성대상 창업지원정책이 생계형 창업을 중심으로 주로 취약계층 여성

을 지원하는 사업에 머물러있어 현행 창업지원정책들이 경제정책의 성격보다는 사회 정책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임.

- 이외에 여성창업지원정책의 소득증대 효과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가 있으나 이는 소액창업 지원사업이 복지수급자가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비율의 증가를 가져올 뿐 창업을 통해 실질적인 자활에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임

제 3 장 전북여성창업 현황 및 주요 사업성과 분석

1. 여성기업의 현황 및 전복지역의 창업환경

- 전국의 기업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현재 전체기업 수는 3,226,569 개소이며 이 가운데 여성기업체 수는 1,170,042개소로 전체기업 가운데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6.3% 임
- 한편 2006년 현재 전북의 전체기업 수는 118,818개소로 전국 기업체 수의 3.68%에 해당하고 여성기업체 수는 44,699개로 전국 여성기업체 수의 3.82%에 해당 함
- 여성사업체는 해마다 소폭씩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기준 전년도 대비 1.70% 증가율 보이고 있고 전북의 여성기업체 수 증감률을 살펴보면 2006년 현재 전년도 대비 0.30%로 매우 적은 증가율을 보임
- 여성기업은 소상공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에서 여성사업체 수가 비교적 많이 분포하고 있음. 전북은 전국평균 과 비교하여 소상공인의 비율은 약간 높고 중기업은 0.3%p 낮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에 있어서는 여성 기업이 345개이나 전북은 단지 11개에 그치고 있어 여성대기업이 전국의 1/300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현실 임
- 전체 신설법인 중 2/3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 2005년 전체 신설법인 수는 52,587개소이고 2006년에는 50,512개로 다소 감소한 추세이나 2007년에는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고 있음. 한편, 2008년 전월대비 증감률에 있어서는 감소 함
- 전북의 신설법인 수 동향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에 있어서는 약간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200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월대비 증감률에 있어서는 감소하는 추세임
- 순창업활동 정도를 나타내는 창업배율을 살펴보면 전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북의 경우는 전국에 비해 창업배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전북의 순 창업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2. 여성창업관련 주요사업 성과분석

- 여성창업효과를 자금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직접지원과 교육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간접지원으로 크게 이분하여 그 성과를 파악하면 직접지원에서는 중앙단위의 여성창업은 주로 저소득생계형 위주의 보호정책 결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고용이나 매출액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지는 못함.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창업보육센터는 매년 소폭으로 고용창출을 하고 있으나 창업갯수 대비 고용으로 보면 소상공인 규모 정도의 창업이 대부분이어서 직접적인 고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됨(본문 p71의 표3-40 참고)
- 반면에 전라북도 자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창업지원은 주로 기존의 업체 지원에 관한 경쟁력 강화 부분이 많아 직접적인 고용효과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여성 기업인이나 창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음
- 한편, 창업에 대한 교육지원은 매년 참가자 수와 창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참가자 수 대비 창업자 수의 비율을 보면 참가에 비하여 낮은 창업율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창업업종도 기존 여성 집중적인 음식점점 및 숙박, 도소매 등의 업종이 많고 기술창업 패키지와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창업교육은 참여자의 수도 극히 미미할 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창업으로의 연결도 극히 제한적임(본문 p72의 표3-41 참고)
- 결론적으로 여성창업의 직간접 지원의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긍정적인 시사점은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희망창업’ 지원에서의 여성참여가 많고 창업업종도 다변화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임. 따라서 향후에는 창업대상과 업종선정에서 여성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에서의 여성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전략적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제 4 장 여성창업인 사례분석 결과

1. 창업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미비

- 창업보육에 대한 인식부재 및 정책 활용 접근성 부족
- 비통합적인 지원시스템 : 제한적인 창업정보 지원서비스 체계
- 여성창업인 인력관리 및 정책방향 부재

2. 창업지원시스템 내의 문제

- 교육지원정책의 비효율성
- 자금지원과 판로지원의 한계
- 전문컨설팅 및 멘토링 체계 부재
- 창업지원정책의 제한적인 제도접근성 · 사적네트워크 중심의 정보접근
-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문제

3. 경제활동 환경의 문제

- 남성친화적인 시장의 구조적인 차별
-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
- 여성창업에 제한적인 전라북도의 환경

제 5 장 정책제언 : 지원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여성창업정책지원 효과 및 평가

- 1) 여성창업지원방식은 주로 직접지원에 의존, 창업효과 낮음: 직간접지원의 혼합 정책으로 유도 필요
 - 본 연구에서 창업의 성과를 지원자금의 확대, 고용창출 효과, 매출액 증가, 창업에서의 성공률의 추이라는 관점에서 보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우선 정부지원의 여성창업정책은 효과성이 아주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창업자금지원은 연도별로 소폭씩 증가하였으나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알 수 없고 지원금의 대부분이 창업교육 지원으로 그치고 있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지원위주의 대상자들이 뚜렷한 창업 동기나 의지 등이 부족하고 업종분석이나 기술교육 등에 있어 전문성의 부재로 창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도 결과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시장분석이나 직종분석, 창업에 따른 각종 법률 등 창업에 관한 전반적인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창업이 많음. 따라서 창업준비 단계에서부터 창업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상담, 컨설팅, 교육, 자금지원 등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업지원 정책이 일단 효과적일 수 있음. 특히 5단계 패키지와 같은 직간접 지원정책은 창업이후의 사후관리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성공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되고 있음

2) 여성창업의 생존율과 업종선정은 상관관계 높음

- 기존의 여성창업 업종은 주로 음식과 도소매 등의 부가가치가 낮은 소규모 영세성의 서비스 업종이 많았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여성경제인협회의 창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서비스업종에서 IT나 방송, 디자인, 지역연고산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의 업종지원정책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면서 폐업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음
- 여성창업의 경우에는 업종선정이 기업의 생존율은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계형 창업지원과는 다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즉, 여성 친화적인 업종과 현재 시장동향 등을 파악하고 예측하여 창업에 적절한 업종 및 아이템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어 짐

3) 여성창업보육센터의 기능취약: 여성BI보다 대학BI지원의 창업효과가 지속적·안정적

- 심층면접조사결과에 의하면, 대학의 BI센터가 여성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올리고 있다고 보여 짐. 우선 대학의 BI는 산학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접근성이 유리하고 매칭기술개발 효과도 큰 반면 여성관련 기관(예를 들면 여성경제인협회)이 지원하는 여성BI는 기술개발이나 경영관련 정보 및 기술을 습득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전문화된 자문도 받기가 어려운 형편임
- 여성창업지원센터는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초기의 점포임대에 따른 정책수혜를 받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경영과 기술개발 등에 의한 수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현재의 여성창업보육센터가 작업공간의 제공과 초보적인

수준의 교육훈련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다는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여성창업자를 중심으로 해당 분야의 대학 전문인들과의 상호협력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필요함

4) 여성창업정책은 보호위주의 소극적 지원 수준: 생존력 및 경쟁력 강화위주의 정책지향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창업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 여성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원업종도 미용사, 조리사 등 과거 여성전통적인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성창업보육센터의 경우도 사무실 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정도의 지원에 그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여성창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보호정책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여성창업기업의 생존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임
- 따라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지원정책들은 기존의 생계형 중심의 창업지원 정책에서 현재 여성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창업업종 지원에 있어서는 미래형 선도기술 분야에서의 창업지원과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의 창업지원보다는 여성 전문인력 집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 있음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준비단계에서의 문제점

- 교육 및 상담문제
 - 교육과 창업의 연계성 부족 : 전문화된 단계별 심화교육의 부재
 - 사전준비단계 절차인지 및 정보부족: 업종선정, 입지선정, 직업의식 등의 미흡
- 창업정보의 제한 및 접근성의 문제
 - 창업관련정보 및 기관에 대한 정보부재 / 여성창업지원 통합 정보시스템 부재
- 창업지원서비스 통합
 - 창업아이템, 시장분석, 정책적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필요
 - 창업준비→취업연계→창업후의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의 부재

- 예비창업자를 위한 사전교육 미비
 - 외부 창업에 대한 두려움 등
 - 직업의식 향상 및 성별감수성 교육필요

2) 창업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

- 경영지원 부재
 - 동종업자 창업자와의 멘토링, 네트워크 부재, 정보부재 등
 - 경영자 훈련, 업종별 기술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부재
- 자금조달 및 지원
 - 자금지원절차의 복잡 및 기준엄격(무보증, 무담보 대출의 민간사회연대은행 방식의 수용필요)

3) 창업이후의 문제점

- 창업이후의 관리소홀
 - 창업정착이후 보수교육 및 상담, 경영관리 부재
 - 독립업체의 데이터베이스 부재
- 평가시스템의 부재
 - 창업지원성과에 대한 평가기준 모호, 부재로 효율적인 창업지원 어려움
 - 사업점검에 대한 피드백 부재로 내실 있는 운영부족

4) 준비단계에서의 개선점

- 교육프로그램 개선 및 상담기능 확대
 - 창업보육매니저 양성 및 배치 : 기존 각 센터의 창업지원 실무자 대상의 양성 교육
→ 창업보육매니저의 정기적 회의, 간담회 의무화
 - 상담 및 사업 분석 기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창업정보의 홍보기관의 확대 및 홍보방법의 다각화
 - 여성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통한 홍보(아동기관 및 학교, 은행, 슈퍼 등 기존 여성들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통한 상시 홍보)
- 여성창업전문기구 육성
 - 주체 : 여성교육문화센터 내 취업정보센터(창업매뉴얼 개발 및 제공)

- 여성창업자를 위한 교육 및 역량강화
 - 여성경제인으로서의 자립기능강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전교육필요

5) 창업진행과정에서의 개선점

- 판매활성화
 - 사업유형별 공동브랜드 개발
 - 독립업체들간의 상호네트워크(여성창업자들간/보육업체간 여성중소기업에 수의계약 물량비율 할당조정(여성기업제품구매지원))
- 특례 제정 및 기구의 단일화
 - 여성창업인지원을 위한 무담보대출 등 우선지원 조례제정
 - 점포임대 지원과 창업자금 지원의 민간협력모델 시범운영

6) 창업이후의 개선점

- 창업이후 사후관리문제
 - 전문가에 의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 독립업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업체의 현황 등 기본적인 정보수록)
 - Post-BI설립추진(성장지향형 창업보육센터)
- 평가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3. 창업정책 방향 및 각 기관 협력방안

1) 창업정책방향

- 기존 여성창업인 경쟁력 강화방안: 지역 역점사업 연계한 서비스의 고도화
 - 여성기업과 창업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여성 기업을 형성하는 여성사업체의 주요업종은 대부분이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여성창업(개업)은 일정 수준의 자금능력이 확보 가능할 경우에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며 이들 업종 및 사업전환은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 여성의 창업활동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업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

장이 일견 설득력을 얻을 수 있으나 업종전환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에도 맞지 않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전환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측면이 상존하므로 기존 업종을 특화하는 방안으로 창업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음식점업과 숙박업에 속한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으로는 전라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 분야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음
- 지식집약형 산업중심의 여성창업자 육성 및 지원확대
 - 정부의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지원에서 여성창업자의 비율이 3.1%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여성창업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제조업과 기술형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창업지원은 여성에게 비교우위가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서의 여성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함.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의 창업 마인드가 향상되고 여성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 것임. 더 나아가 창업을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창업 전문상담인과 멘토와의 교류를 장려하는 등 창업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함
- 청년창업지원 정책 확대 : 전문계고 및 여대생커리어센터 연계
 - 그동안의 창업지원은 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 창업(개업)지원이 주를 이루었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은 극히 미미하였음
 - 따라서 청년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일찍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개입이 필요함. 예를 들어 전문계고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이 창업으로 연계되어 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창업에 대한 내용과 진로지도에 창업부문을 포함 시킨다거나 각 대학소재의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를 활용하여 여대생 대상의 창업교육과 체계화 된 창업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함
- 여성창업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여성창업 DB구축 및 네트워크 접근성 증대
 - 많은 여성 창업자들이 유사 업종이나 타 업종의 여성기업인들과 시장 및 상품이나 인력확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과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창업보육센터나 지원을 거쳐 간 모든 업체의 정보수록을 DB화하여 이들

에 대한 사후관리를 유지하도록 함

- 또한 시장 및 기술관련 정보를 얻고 기업경영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후견인(Mentoring)체도를 만들어 네트워크 접근성을 증대하도록 함. 각 분야별(법률, 노무, 세무, 회계, 특허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여성기업 경영자문단을 구성하여 초기 창업인과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는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창업교육의 개선방안 : 5단계 패키지 창업지원프로그램의 확대
 -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창업인을 대상으로 창업이전의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정책 수혜자를 위한 단계별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으로 실시되는 '5단계 패키지 창업지원프로그램'은 One stop지원으로 수혜자들의 호응도와 효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사업임
 - 특히 경영분야에서의 여성기업인들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공경영을 위해 사후에도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통하여 창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도하는 것은 여성창업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이라 할 수 있음
- 여성취업박람회 여성창업부스 유치
 - 취업 박람회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혼여성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응이 좋음. 따라서 이런 취업박람회를 통하여 많은 여성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알리고 창업분야의 다양성, 자신에게 적합한 직종, 멘토와의 만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여성들의 의식 저변확대와 창업으로의 꿈을 키울 수 있으리라 기대 됨

2) 각 기관 협력방안

- 현재, 여성창업을 지원하는 부처와 이를 시행하고 있는 각 기관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업무의 중복과 분산으로 인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체계의 구축이 부재한 상태임. 또한 여성창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관과 이를 시행하는 위탁기관이 이분화 되어 있고 위탁기관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하여 창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여성창업 지원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해서는 각 관련 집단 간의 협력 망 구축과 운영을 통하여 창업정책의 성공과 확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각 기관의 협력방안으로는

- 여성희망일터지원단: 여성창업 기관간의 협력망은 관련 부처 또는 개별기관 등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여성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한 여성희망일터 지원단은 총괄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추진하도록 함
- 여성교육문화센터: 창업여성을 위한 맞춤형 상담으로 창업여성의 직업의식과 창업 준비정도와 같은 개인적인 상담부터 시장분석, 직종선정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까지 여성창업인의 전문적인 상담을 도와주고 창업에 관련된 법률, 경영 등 전문화 된 창업교육을 담당함. 또한 여성창업인에 대한 DB의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여 여성창업인의 네트워크와 협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여성경제인협회: 자금지원과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담당하도록 함. 정부정책에서 제공되고 있는 점포임대 지원방식과 민간기관에서 지원되고 있는 자금지원 방식을 연계하여 민관협력 방법을 운영하도록 함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창업에 관련된 기술교육은 그동안 실무차원에서의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함. 특히 기존의 실무교육이 일회적 성격이 강하여 심화된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였던 점을 반영하여 단계별 수준교육과 전문화 된 강사와의 연결을 통하여 창업에 필요한 기술이 전수될 수 있도록 전문화 된 교육을 담당하도록 함
- 여대생커리어센터: 여성창업인이 취약한 부분이 마케팅 부분을 담당하여 상품화 과정과 효과적인 홍보 등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지식의 활용 등을 담당하도록 함.
- 여성정책연구소: 연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정책연구소에서는 창업과 관련된 직종분석, 시장수요분석 등을 통하여 창업으로서 유망한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여성기업인의 문제와 정책적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담당하도록 함. 또한 정책과 각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사업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점검하고 창업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이와 같이 여성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각 기관들이 기관 고유의 특성을 토대로 파트너십과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개별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협력하여 여성창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도록 함

목 차

제 1 장 서 론	3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 2 절 연구방법	8
제 3 절 연구 제한점 및 기대효과	9
제 2 장 여성창업 특성 및 정책지원 효과	13
제 1 절 여성창업의 특성	13
1. 여성창업활동의 일반적 특성	13
2. 여성창업의 장애요인	19
제 2 절 여성창업의 정책지원 내용 및 효과	23
1. 창업지원정책의 내용	23
2. 창업지원 정책의 효과 및 문제점	29
제 3 장 전북여성창업 현황 및 주요 사업성과 분석	37
제 1 절 여성기업 현황 및 특성	37
제 2 절 전북지역 창업현황	42
제 3 절 여성창업관련 주요사업 성과분석	44
제 4 절 소결	69
제 4 장 여성창업인 사례분석 결과	75
제 1 절 조사개요 및 심층면접자의 특성	75
제 2 절 사례조사 결과	77

제 5 장 정책제언: 지원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5
제 1 절 여성창업정책지원 효과 및 평가	105
제 2 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8
제 3 절 창업정책 방향 및 각 기관 협력방안	111
 참고문헌	 119

표 목 차

<표 2-1> 기업인의 성별 경영특성	18
<표 2-2> 창업준비 시 애로사항(업종별/종업원규모별/지역별)	20
<표 2-3> 창업 시 필요한 자금조달 경로	21
<표 2-4> 창업 시 정부지원 필요분야	22
<표 2-5> 지원체계별 자금지원사업 현황	24
<표 2-6> 여성창업 간접지원정책 현황	26
<표 2-7> 창업관련 교육 및 상담지원 현황	27
<표 2-8> 여성창업지원정책별 지원예산	29
<표 2-9> 여성창업지원정책별 지원인원	30
<표 2-10> 여성부의 창업자금 지원 대상 기업 업종별 현황	31
<표 2-11> 여성창업보육사업 평가결과	32
<표 3-1> 각 연도별 여성사업체 추이	37
<표 3-2> 여성사업체 비중 증감 추이	38
<표 3-3> 전북지역 기업유형별 여성기업인 현황	39
<표 3-4> 전북지역 사업유형별 종사자 수 현황	41
<표 3-5> 전국 및 전라북도 신설·부도법인 수 증감추이	42
<표 3-6> 전국 및 전라북도 창업배율 추이	43
<표 3-7> 전라북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내용	45
<표 3-8> 전라북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현황_사업체수	45
<표 3-9> 전라북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현황_지원액	46
<표 3-10>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증감	46
<표 3-11>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업종변화추이 단위	47
<표 3-12>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과분석	48
<표 3-13> 중소기업청 여성창업보육 사업의 주요성과 지표	49
<표 3-14> 전라북도 희망창업자금 지원내용	49
<표 3-15> 희망창업자금 지원성과(2007년도)	50

<표 3-16> 희망창업 지원자 성별 창업업종(2007년 추진성과)	50
<표 3-17> 여성창업지원정책별 지원예산	51
<표 3-18> 여성창업지원정책별 지원인원	52
<표 3-19> 여성가장 창업지원자금 연도별 수혜현황	52
<표 3-20>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대상 기업 업종별 현황(2004)	53
<표 3-21>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내용	54
<표 3-22> 지역별 창업보육센터 현황	55
<표 3-23>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현황	55
<표 3-24> 지역별 여성창업지원센터 현황	56
<표 3-25> 전라북도 창업보육센터 현황	56
<표 3-26>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성과추이	57
<표 3-27> 여성창업교육 및 상담지원내용	59
<표 3-28> 여성경제인협회 여성전문창업강좌 개설현황	60
<표 3-29> 여성교육문화센터 창업교육현황(2005~2007)	61
<표 3-30> 여성인력개발센터 창업교육과정 현황(2008년 현재)	62
<표 3-31> 희망창업지원 창업교육 성과(2007)	63
<표 3-32> 5단계 패키지 창업지원프로그램 내용	63
<표 3-33> 5단계 패키지 창업교육 운영성과(전라북도)	64
<표 3-34> 기술창업패키지 사업내용	65
<표 3-35> 기술창업경영아카데미과정 추진성과	66
<표 3-36> 수료생 자금지원 성과	66
<표 3-37> 고령자 뉴스타트프로그램 성과 및 현황	67
<표 3-38> 고령자 뉴스타트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67
<표 3-39> 고령자 뉴스타트프로그램 참여업체 현황	68
<표 3-40> 직접지원: 자금지원 내용 및 성과	71
<표 3-41> 간접지원: 교육지원내용 및 성과	72
<표 4-1>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6
<표 5-1> 창업지원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9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수행계획	7
<그림 2-1> 여성기업인의 창업동기	17
<그림 2-2> 창업이전 경력과의 연관성	18
<그림 2-3> 창업 준비 시 애로사항	19
<그림 2-4> 창업초기에 어려웠던 점	21
<그림 5-1> 각 기관의 역할 및 협력방안	117

제 1 장

JDI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 2 절 연구방법
-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및 기대효과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의 평등성을 제고 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인적능력을 개발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자는 직장 내 직무차별 철폐, 적극적 개선 조치 등이고 후자는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여성의 창업활동 및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은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정책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창업은 잠재적인 노동력으로서 여성인력의 활용측면¹⁾에서뿐만 아니라 여성창업의 결과인 여성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²⁾를 낳고 있어 진입장벽이 두터운 지역 노동시장이 갖는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데 대안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노동시장의 한계를 논할 때, 전북지역은 중소기업 중심의 영세한 경제구조와 여성친화적인 기업의 부족, 경력단절 여성 및 기혼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어려운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할 때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1) 창업을 통해서 여성 자신의 고용을 창출하는 동시에 다른 여성들이 고용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즉, 여성 기업가는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남성기업가에 비해 여성에 대한 편견이 적으므로 여성인력 고용이 보다 활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2005 여성 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종업원을 구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 종업원 중 여성이 69.1%, 남성이 30.9%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근로자가 남성의 2배가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남

2) 창업활동과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를 분석한 결과 창업활동은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여성창업 실태를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여성창업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우리나라 여성사업체 수는 2000년 기준 전체 사업체 301만 여개 중 33.9%(102만개)에서 2006년 36.3%(117만개)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97년(924천개)을 기준으로 보면 26.6%나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성기업의 양적 확대에 비추어 여성창업인의 대다수가 진입장벽이 낮은 숙박 및 음식점, 도소매업 등에서의 소규모 생계형 창업에 집중되어 있거나 자금 및 창업정보에 대한 접근성으로부터의 배제, 열악한 창업지원정책 등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창업을 통한 경제적 기여 및 지위향상에 온전히 기여하지 못하는 측면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여성창업 및 기업경영에 관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여성기업인의 사회심리특성의 차이를 규명하는 개인적 측면³⁾과 가사노동/사업병행으로 인한 이중노동 등 여성의 다중적 역할로 인한 어려움 등 가부장적 기업문화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한국여성개발원, 2004)에 제한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이외에 여성기업인이 창업 및 경영활동에서의 특성과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등 기업 활동의 실태파악 측면에서의 연구(손봉숙, 1996; 정희선, 1997; 김영옥 1998;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1; 부산발전연구원 2006)와 창업지원센터의 문제와 활성화 방안(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1; 부산발전연구원 2006) 등 여성창업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성창업이나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에 대한 연구와 기업 활동 측면이외에도 또 다른 요인으로 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 활동의 어려움에 대한 실태는 여성과 여성 기업이라는 일반적이고 공통된 요인 이외에도 지역적 특성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는 점⁴⁾과 여성 창업인

3)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여성창업 활동이 여성생애주기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즉, 결혼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을 시도하는 일환으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 학력수준이 낮고 비교적 창업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창업이 용이한 낮은 부가가치채를 다루는 분야를 여성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결국 이러한 개인적 특성은 창업을 통한 독립적 경영이 여성들의 노동시장 지위 향상으로 귀결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모색되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4) 중소기업조사에 의한 지역별여성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 경기지역은 '판매선 확보 등 마케팅 관리', '자금조달' 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광주 및 전북, 전남은 이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의 체감이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창업 준비 시 애로사항에 있어서는 사업업종의 선정이나 사업타당성분석 등에 있어서 각 지역

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기관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각 기관에 흩어져 있어 사업과 수혜의 중복 등 지원체계에 따른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라북도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최대 정책현안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 가운데 하나로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도내의 청년 실업율의 증가와 취업 장애로 인한 경제 활동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부터 『희망을 빌려드립니다』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창업은 지역 내 노동시장의 경직에 따른 여성취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일자리로 인한 지역민의 도외 유출을 막기 위한 간접적 일자리 창출지원 효과가 기대되어 지는 측면이 있어 지역적인 차원에서 취업활성화 정책으로 적극 대응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여성 창업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이외에 여성창업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와 정책, 사업에 있어서의 지원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여성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에 따른 특성이 서로 달라 지역 간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업정책 가운데에서도 여성대상의 창업정책에 대한 기존성과 및 효과를 검토하고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효과적인 창업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특히 효과적인 창업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북지역 노동시장의 환경과 조건, 특수성에 대한 측면과 정책적 지원체계에서 문제와 한계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창업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 개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성공적인 모델 등에 관한 사례연구 등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창업지원 기관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여성창업 활동의 극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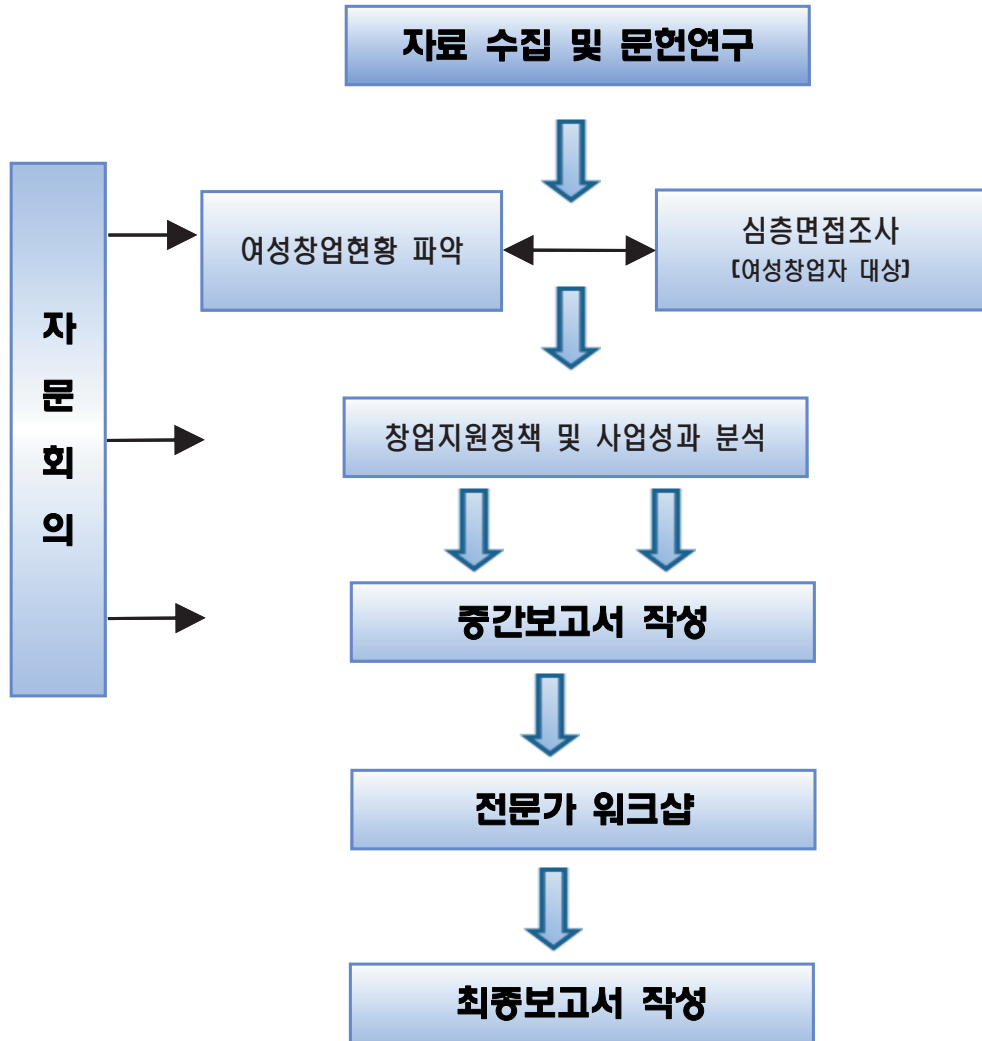
1) 기존문헌 및 통계 자료에 나타난 전라북도 여성창업의 실태 및 현황, 문제점 등을 분석한다. 타 지역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전라북도의 여성창업에 대한 각각의 변화추이를 전망하고 전북 여성창업 활동 참여 특징과 변화를 정리한다.

2)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창업정책의 자료 분석을 통하여 사업실적 및 성과를 분석하여 창업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창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를 최종목표로 보고 고용창출 효과, 매출액 증가, 창업에서의 성공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여성창업이 전북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본다.

3) 창업을 통하여 기업을 이룬 여성을 대상으로 창업관련 및 기업현황, 창업활동조사, 창업지원제도 수혜여부와 욕구, 창업정책의 효과성 및 문제점, 창업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4)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전북지역 여성창업 활동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발전적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여성창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자체와 기관, 여성 개인 등 각 주체의 역할과 향후 방향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3. 연구수행 절차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제 2 절 연구방법

1.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기존문헌 및 통계 자료에 나타난 전라북도 여성창업 참여현황 및 특성, 변화 및 추이, 신설 및 부도법인 추이, 경영상 어려움 등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창업의 위치와 각각의 변화추이 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창업정책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시기 및 지원내용, 사업수혜자 및 시행결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창업정책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였다.

2. 심층면접 조사

심층면접 대상자는 크게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여성 기업들로 이들은 비교적 대학과의 연계를 갖으면서 창업활동이 활발한 집단이다. 또 하나의 집단은 여성경제인협회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과 같은 여성취업관련 기관에 입주 있는 여성 기업들로 이들은 대부분 영세성과 취약한 인프라를 배경으로 창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은 크게 1)사회인구학적 변수 : 연령, 학력, 혼인상태, 수입 등 2)창업관련 및 기업현황 : 업종 및 주요품목, 창립년도, 창업 전 취업경력 및 경력연수, 창업 전 근무회사의 형태 및 업종, 창업당시 및 현재의 종업원 수, 매출액 및 순이익 3)창업활동 조사 : 창업 준비기간 및 준비내용, 창업동기 및 창업유형, 창업자의 경영능력, 초기자본금 규모 및 자금 확보 시 애로사항, 창업당시와 현재의 경영문제점, 컨설팅 지원요구분야, 창업성공요인 및 성공적인 창업모델 4)창업지원 실태 및 욕구 : 창업지원프로그램 인지도, 경로 및 만족도, 창업지원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컨설팅지원 요구분야, 창업 준비에 필요한 각종 지원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정책적 지원 사항, 창업활성화 방안 등(제품생산 개선사항, 사업장 운영개선사항, 판매 및 유통개선사항 등) 을 중점적으로 인터뷰 하였다.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및 기대효과

1. 연구의 제한점

여성창업 지원정책과 관련된 사업은 해당기관에서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대부분 위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창업정책 효과를 평가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제도화가 미비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창업지원에 있어서는 그 수혜여부를 기업대상으로 파악하고 남여기업인에 대한 성별분리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여성창업에 대한 데이터를 얻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또한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사업평가와 같은 규정이 없이 단순히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 사업도 다수이어서 각 사업에 대한 성과치로서 고용인원, 매출액 등을 파악하는데 제한적이었다. 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고용창출 성과 평가(2008. 2.15. 공표)를 위한 지표화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객관화 된 사업성과에 관한 자료를 얻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는 기존의 여성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및 창업 장려를 위한 효과적 방안을 제안하고 나아가 여성창업의 성공적 모델 및 요인분석을 통하여 창업을 준비하거나 향후 희망의사를 갖는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창업지원 방안 및 정책 개선 사항을 제안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노동시장의 여성 진입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 극복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통하여 여성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경제활동 주류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제 2 장

JDI

여성창업특성 및 정책지원 효과

제 1 절 여성창업의 특성

제 2 절 여성창업의 정책지원 내용 및 효과

제 2 장 여성창업의 특성 및 정책지원 효과

제 1 절 여성창업의 특성

1. 여성창업활동의 일반적 특성

창업가의 특성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창업에 있어서의 남성과 여성의 性差에 대한 설명은 주로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개인수준의 설명으로 개인의 창업동기 즉, 개인 특성상 성별차이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심리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데 대부분의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창업 과정에서 심리적인 특성들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 구조적, 조직적 변수들로 설명하는 입장이다. 이는 주로 창업과정과 창업 이후의 남성과 여성 기업가간의 성과 변수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특히 조직 문화와 경영 문화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여성의 창업활동을 설명하는 심리적 특성으로는 pull(끌어들이는 요인)요인과 push(밀어내는 요인) 등이 있다. 여성들이 창업하게 되는 pull요인과 관련된 동기들로는 독립성, 자아실현(성취욕구), 기업가적 충동(리더쉽, 내적통제), 사회적 사명감, 사회적 지위와 권력 등에 의해 적극적으로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기존 연구는 이러한 pull요인들 중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남녀의 차이는 개별연구마다 다르게 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여성의 경우는 독립성, 자아실현, 소득, 사회적 사명, 사회적 지위와 권력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Birley, 1989 ; Cromie, 1987).

여성이 창업하려는 동기차원에서 설명하는 push요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전방지, 1997).

첫째, 직장생활에서의 한계이다. 차별, 승진·경력개발의 어려움, 적성과 맞지 않는 업무 등으로 인해 직장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창업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여성

을 최고위직으로 배제하는 소위 ‘유리천정(glass ceiling)’은 대기업의 여성들이 자주 언급하는 push 요인이다.

둘째, 여성의 경우에는 취직하기가 남성에 비하여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졸업생이나 다시 일을 하고자 하는 아이를 가진 기혼 여성에게는 자영업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특히 경기가 나빠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창업이 결정적인 동기가 된다.

셋째, 육아와 가사의 병행을 어렵게 하는 직장 생활로부터 탈출하고자하는 동기에서 창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직내에서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것보다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는 근로시간면에서 유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창업의 동기는 수입과 가사의 병행 가능성을 결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이 창업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push 요인으로는 이전 직장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push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은 여성정책 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glass ceiling은 미국 같은 선진국 여성에게 중요한 동기를 제공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대기업에 여성 관리자가 극소수인 사회에서는 이보다 오히려 경제적 요인,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창업을 시작하는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Cromie가 지적하듯이 ‘여성은 경력에 남성보다 더 불만이 크고 기업가적인 활동을 일과 육아 역할을 동시에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한다(Stanley Cromie, 1987).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 기업가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창업에 대한 pull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 여성기업가의 경우 push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pull요인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중소기업청·한국여성정치연구소, 1996). 동 연구에 의하면 창업욕구의 pull요인 가운데 자아실현에 해당하는 요인으로서 성취욕구를 위해서 창업한 경우가 46.4%로 가장 많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위해서라는 능력발휘의 적극적인 동기가 19.6%, 경제적 금전적인 동기로 창업한 경우는 15.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pull요인과 창업동기를 중심으로 한 push요인 등은 창업 동기를 결정짓는 요인들이 대부분 심리적이며 주관적이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엄밀하게 구분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창업동기에 대한 원인 이외에 여성창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여성의 창업은 창업을 하는 본인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성들의 고용창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창업이 여성에게 효과적인 경제활동 유형인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 등이 대립되어 있다.

우선 창업이 여성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견해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 소규모 창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여성 사업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사업가의 25~33%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여성창업은 빈곤여성 복지증진의 대안이 되고 있다.

이는 창업이 빈곤 퇴치 역할을 하고 있고 특별히 Grameen Bank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저개발국가의 빈곤여성에게 대한 소액자금 대출이나 공동 창업지원을 통해 여성 빈곤퇴치 기능이 하고 있어 빈곤여성의 복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여성들은 가사일과 병행할 수 있는 보충적 업무, 시간제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가계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고, 수공업이나 음식업과 같이 여성 특유의 기술로 인식되어 왔던 여성의 전통적인 기술에 기반을 두는 자영 창업을 통한 소득창출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황정임 외, 2006)

셋째, 창업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권한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창업지원 기구들은 창업이 여성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증가시키며 이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더욱 발달시키고 여성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Kantor, 2001; 황정임 외, 2006에서 재인용).

이상, 창업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빈곤여성 복지증진방안, 여성의 사회경제적 권한 확대라고 하는 장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성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주장하는 연구에서는 여성창업의 한계 및 애로라는 더 많은 난제들이 여성창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능가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여성 창업인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본금 부족을 들 수 있다. 자금조달과정에서 여성은 사업·취업 경력이 부족하여 자본금을 축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초기 창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담보물이 없어 자금 대출이 어렵다는 점이

다.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창업을 시작하기 어렵거나 창업한다 해도 사업업종이 자본집약적이지 않은 노동집약적인 소규모 업종에 제한되고 수익을 충분히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여성들은 사업관련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네트워크 만드는 방식에는 젠더적 차이가 존재하고 이 차이는 이후 사업경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네트워크 수준이 낮는데 이로 인한 사업 경영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고, 재정조달이나 재정적 후원자들과 인맥형성 등 사회적 자본의 낮은 수준은 여성의 창업에 불리할 수 있다.

세 번째,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 등 여성에게 부과된 성별역할 분담으로 인하여 여성이 사업에 투여하는 시간이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고 이는 자연스럽게 사업수익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일-가족 등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해야 하는 여성들은 전일제 노동보다는 시간제 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선택하는 업종 자체를 여성창업의 한계로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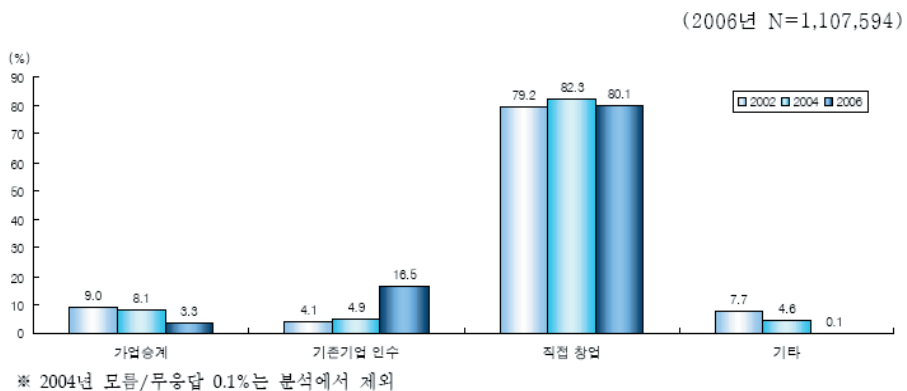
여성들은 소규모 노동집약적 저수익 업종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여성들이 주로 집에서 운영할 수 있고 기존의 성역할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의 일명 'pink-collar'의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업종들은 주로 가사노동이나 돌봄 노동의 연장선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로써 보육, 출장요리, 청소, 애완견서비스, 봉제, 플로리스트, 미용 등이 해당된다. 이는 여성들이 노동시장 경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의 선택보다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관심을 두기 때문에 (Ehlers & Main, 1998 ; 황정임 외, 2006에서 재인용) 이러한 분야에서의 여성창업이 수월함을 주장한다.

여성창업에 있어 여성들이 경험하는 제약을 인용하여 Kantor(2002)은 자본규모, 신용대출, 시장정보, 가족 혹은 고용노동력, 인적자본에 관련된 요인을 여성 심화적 제약조건으로 이동성, 가족책임 정도, 취급생산품목 등은 여성 특수적 제약조건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성 창업은 남성의 창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갖는 제약적 상황이 뒤따르기 때문에 여성 창업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창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어지며 제약조건을 제거 혹은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및 서비스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창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사실들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화하여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실시한 『2007 여성기업실태조사』의 결과에 의거, 여성기업인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창업인은 대부분 기혼 상태이며 창업을 하는 주된 연령은 30~45세로 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창업을 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에 있어서 남성기업인과 차이가 없지만 전공에 있어서는 여성기업인은 경영, 기계공학, 또는 기술 분야 보다는 주로 인문학을 전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경험에 있어서도 남성기업인은 경영진, 과학자 및 기술직에서 직업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여성은 교사직, 판매직, 사무직에서 경험이 많고 경력단절이 빈번하며 이전 직장경험과의 연계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기업인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본인이 직접 창업한 경우가 8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에 반해 기존기업 인수는 16.5%, 가업승계(남편이나 부친의 사업 승계)는 3.3%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과 2004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주된 변화는 기존기업 인수의 방법으로 창업한 경우가 10%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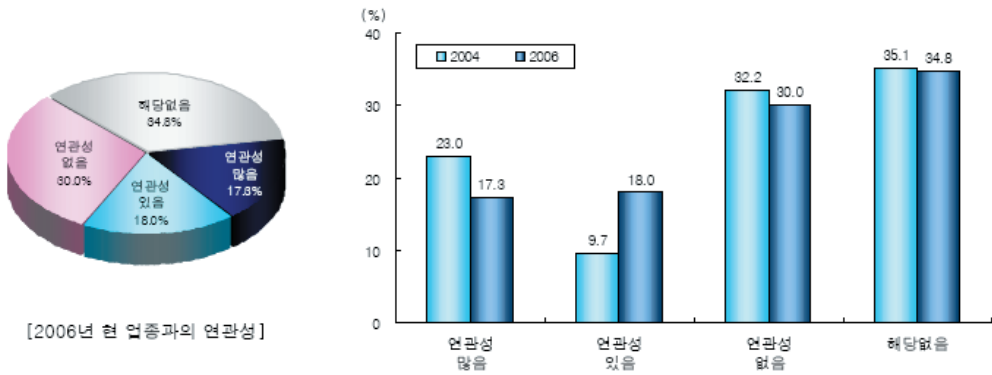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7 여성기업인실태조사』

<그림 2-1> 여성기업인의 창업동기

여성기업인인의 창업이전 경력으로는 가정주부가 4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판매영업직 14.5%, 도소매 자영사업주 11.7%, 사무직 종사자 5.6%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한편 현재 창업 이전 경력과 현재 창업업종과 연관이 있는 경우는 35.3%에 불과하였다.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7 여성기업인실태조사』

<그림 2-2> 창업이전 경력과의 연관성

여성기업인은 남성기업인과 다른 경영방식을 가지고 있는 데 이러한 요인이 여성기업인의 성공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성기업인은 섬세하고 치밀한 사업 감각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생산시대에 적합한 경영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표 2-1> 기업인의 성별 경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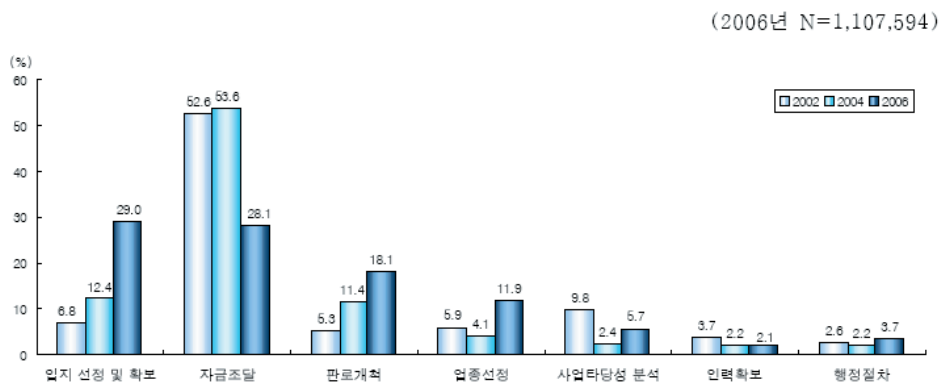
구분	여성기업인	남성기업인
의사결정	창의성, 감수성, 가치지향적인 직관적 사고방식	분석적이고 개방을 중시하는 논리적 사고방식
조직관련	가족적인 관계를 중시	위계적인 관계를 중시, 규칙과 절차확립에 역점
성취욕구	고객만족과 근로자와의 인간관계형성 중시	자신이 설정한 목표달성 중시
기타사항	질적 성장, 근로자와의 기술향상과 후생복지 강조	사업의 외형적 성장에 치중하는 편임

2. 여성창업의 장애요인

여성창업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밝힌 창업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크게 자금 조달과 가사와 기업경영의 균형유지라는 두 가지 문제점으로 밝히고 있다(최영숙,2000; 문숙재 외, 2001;전방지 2002). 이는 사업아이디어 발굴, 직원고용 문제, 사업부지 선정 문제, 시장 발견 등의 실질적 기업경영 요인들보다 더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나타나 여성들의 창업활동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과 여성기업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은 여성의 기업경영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4).

여성의 창업과 관련하여 장애요인으로는 창업 준비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초기 사업 운영 시의 애로사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2007 여성기업실태조사』에 의하면, 2007년 조사 이전의 시기까지는 창업 준비 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이 압도적이었으나 금년도 조사 결과 입지선정 및 확보 29.0%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거론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자금조달 28.1%, 판로개척 18.1%, 업종선정 11.9% 등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의 <그림 2-3>은 창업 준비 시 애로사항으로 2년마다 조사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최근 2006년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자금조달 애로사항은 줄어 든 반면 입지선정 및 확보에 대한 애로사항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 2006년 응답기준으로 상위 7개까지의 결과 제시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7 여성기업인실태조사』

<그림 2-3> 창업 준비 시 애로사항

다음의 <표 2-2>를 참고하면 업종별로 볼 때 자금조달의 경우 제조업 35.7%, 건설업 29.7%, 음식숙박업 31.9%로 나타나고 있고, 입지선정 및 확보에 있어서는 음식숙박업 29.5%, 도소매업 27.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각 지역에 따라 창업 준비 시 애로사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주/전북/전남의 경우 자금조달에 대한 애로사항은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나 입지선정 및 확보, 업종선종, 사업 타당성 분석은 강원과 제주를 제외하고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창업 준비 시 애로사항(업종별/종업원 규모별/지역별)

(단위:%)

	사례 수	입지선정 및 확보	자금 조 달	판로 개 척	업종 선 정	사업타당 성분석	행정 절 차	기타
전체	1,107,594	29.0	28.1	18.1	11.9	5.7	3.7	3.5
업종별								
제조업	55,117	15.6	35.7	30.0	5.8	5.5	3.3	4.1
건설업	7,742	10.5	29.7	32.1	8.8	4.6	6.0	8.5
도소매업	326,479	27.8	20.6	25.6	16.3	4.2	4.2	1.3
음식숙박	416,620	29.5	31.9	14.0	12.7	6.6	1.5	3.7
기타	301,636	32.4	29.6	13.1	7.3	6.1	6.1	5.3
종업원규모별								
5인 이상	1,026,155	29.5	27.5	18.4	12.6	5.4	3.4	3.1
5-19인	76,886	23.2	35.8	14.1	3.1	9.6	6.9	7.2
20인 이상	4,553	11.8	36.3	20.9	3.8	6.7	8.0	12.4
지역별								
서울/경기/인천	430,213	34.4	25.1	11.9	16.4	5.2	3.5	3.6
부산/울산/경남	215,194	28.1	40.9	11.0	7.8	2.1	3.9	6.1
대구/경북	184,870	21.6	29.9	37.2	4.2	4.3	1.0	1.8
광주/전북/전남	163,277	25.8	20.7	17.0	15.9	13.3	4.2	3.1
대전/충북/충남	112,804	26.7	23.0	25.8	9.9	5.4	8.0	1.3
강원	774	0.0	30.3	12.2	0.0	57.5	0.0	0.0
제주	462	0.0	46.0	23.1	5.4	25.5	0.0	0.0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7 여성기업실태 조사』

<표 2-3> 창업 시 필요한 자금조달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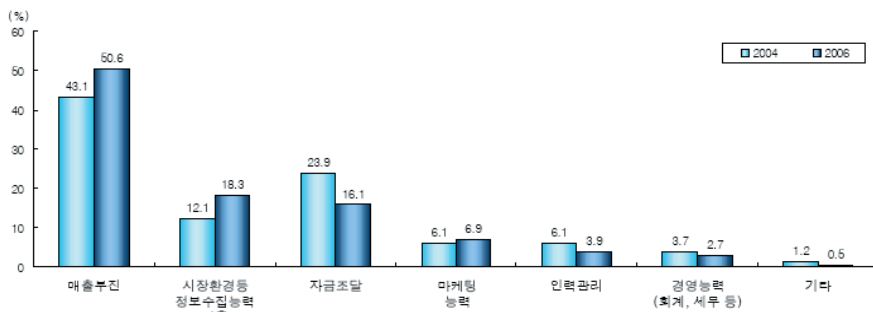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본인 및 공동 경영인의출자		정부정책자금		금융기관 대출		창업투자회 사및벤처캐 피탈투자		사채		기타	
		2006	2004	2006	2004	2006	2004	2006	2004	2006	2004	2006	2004
전체	1,107,594	71.0	85.1	0.8	0.8	17.8	10.0	0.3	0.1	7.5	3.2	2.6	0.7
제조업	55,117	71.2	80.2	1.1	1.9	15.2	11.0	0.4	0.5	9.4	5.1	2.6	1.3
건설업	7,742	81.2	78.4	0.7	2.1	12.3	14.7	-	0.4	5.2	3.2	0.2	1.2
도소매 업	326,479	73.2	87.7	0.5	0.6	15.1	9.4	0.5	0.1	7.4	1.8	3.2	0.5
음식숙 박업	416,620	67.1	84.5	0.9	0.6	21.0	9.3	-	0.1	8.7	4.6	2.4	0.8
기타	301,636	74.3	84.1	1.0	1.3	16.7	11.1	0.3	0.1	5.4	2.6	2.4	0.8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7 여성기업실태조사』

한편, 창업초기에 사업 운영 시 여성기업인의 애로사항으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매출 부진 50.6%이었으며 그 외 시장 환경 분석 등 정보수집능력 미흡 18.3%, 자금조달 16.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사업 운영 시 애로 사항으로는 정보수집 능력 미흡이 전남과 전북지역에서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6년 N=1,107,594)



* 해당없음/모름(2004년 3.9%, 2006년 0.9%) 분석에서 제외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7 여성기업실태조사』

<그림 2-4> 창업초기에 어려웠던 점

여성 기업은 효과적인 창업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창업자금 지원 45.3%을 우선적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시장정보 제공 24.2%, 세금지원 확대 15.7% 등의 순으로 꼽고 있다. 이를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각 지역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창업절차 개선에 있어서는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남과 전북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창업 시 정부지원 필요 분야

(단위:%)

	사례 수	창업자금 지원(보증)	시장정보 제공	세금지원 확대	컨설팅 지원	창업절차 개선	기타
전체	1,107,594	45.3	24.2	15.7	7.5	7.0	0.3
업종별							
제조업	55,117	50.6	19.2	15.9	6.3	6.8	0.5
건설업	7,742	42.8	12.9	26.9	8.2	9.1	0.0
도소매업	326,479	46.4	24.3	13.5	10.3	5.3	0.0
음식숙박	416,620	38.3	28.7	19.4	5.7	7.6	0.2
기타	301,636	52.8	19.1	12.6	7.3	8.0	0.2
종업원규모별							
5인 이상	1,026,155	45.4	24.9	15.3	7.2	6.9	0.2
5-19인	76,886	43.0	15.2	20.9	11.3	9.0	0.5
20인 이상	4,553	49.1	11.3	23.7	8.3	6.8	0.4
지역별							
서울/경기/인천	430,213	44.4	22.4	14.3	11.5	7.2	0.0
부산/울산/경남	215,194	44.9	20.7	23.1	4.6	5.6	0.8
대구/경북	184,870	62.6	18.2	9.4	5.0	4.8	0.0
광주/전북/전남	163,277	32.8	28.1	18.7	7.3	13.1	0.0
대전/충북/충남	112,804	38.9	42.2	12.8	2.4	3.7	0.0
강원	774	62.3	18.3	10.5	0.0	0.0	8.9
제주	462	33.9	2.4	37.9	5.4	20.3	0.0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7 여성기업실태 조사』

제 2 절 여성창업의 정책지원 내용 및 효과

1. 여성창업의 정책지원 내용

우리나라 창업지원정책은 1998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장기실업자 및 실직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점포임대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후에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금 융자서비스와 전문적인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빈곤정책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창업지원 정책으로는 현재 시·도 및 시·군 구청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생업자금융자사업, 모부자복지자금사업 등이 시행되어 왔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통해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업자금 융자 및 점포임대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다음에서 여성창업지원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여성창업지원정책의 법적 근거

여성창업에 대한 우대 혹은 지원의 법률적 근거는 1999년 제정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의 목적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기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 여성창업지원 관련 정책과 사업들은 이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김창연·고선주, 2006). 예를 들어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제 8조), 여성기업생산물품의 우선구매(제9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제13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제15조) 등이 그것이다.

(2) 직접지원정책 : 자금지원정책

한국사회의 창업지원정책은 1998년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장기 실업자 및 실직여

성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점포임대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후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금 융자서비스와 전문적인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창업자금 지원정책은 여성창업자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여성창업지원정책과 일반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나 창업자금 지원시 여성을 우대하는 간접적인 여성창업지원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지원은 2000년 이후 여성가족부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여성가장 및 여성기술인 등에 대한 창업지원 사업이 시행되었다(황정임 외, 2006).

<표 2-5> 지원체계별 자금지원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	주요대상	지원내용	지원금리	자금용도	상환방법
여성(가족)부	모부자가족 복지자금대여사업(20억, 2006)	· 배우자없는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의 자녀가정 · 모부자복지법 지원대상가정(최저생계비 130% 내외)	· 1인당 2천만원 내외	연 3%	융자	5년거치 5년 분할상환(거치기간 중 이자와 상환기간중 원리금은 매월, 연2회, 또는 연 4회중 대출신청자 선택)
여성(가족)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30억, 2006)	창업희망 차상위계층여성 (소득기준:월175만원 이하, 재산기준:1억원 이하)	· 1인당 5천만원 내외	연 3%	전·월세 점포임대	· 2년동안 지원/최장 2년까지 연장(원금 일시상환, 이자 분기별상환)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100억)	여성전문기술인력	· 한도액 1억원	연4.5%	융자	
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저소득층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지원 (20억)	창업희망 저소득층 대상(소득기준 월 117만원 이하, 재산기준:5천만원이하)	· 1인당 3천만원 내외	연3%	전·월세 점포임대	· 2년동안 지원/최장 2년까지 연장(원금 일시상환, 이자 분기별상환)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 (2,700억)	3년 미만의 중소기업(남녀공통, 여성가산점)	· 한도액 10억원	연 5.9%내외	융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2,500억)	소상공인창업자 (남녀공통, 여성가산점)	· 한도액 5천만원	연 5.9%내외	융자	

자료 : 황정임, 류연규, 류만희(2006),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을 통한 자활지원방안연구, p57-59 재정리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또는 배우자의 사망 및 이혼 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창업자금 지원정책이 취약계층의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라면,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은 국가 기술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해당분야에서 기능이나 기술을 가진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부의 여성가장창업자금의 경우 당초 예산이 2004년을 기준으로 20억 원이 배정되어 있었으나 2006년 30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은 1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하고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 지원은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저리융자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여성창업자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비하여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창업자금의 예산규모가 2,700억 원이고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자금의 예산규모가 2,500억임을 고려하면 여성창업을 지원하는 자금의 지원액은 그 규모가 매우 작아 1/20에도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여성전문 인력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자금 중 중요한 의미를 지닌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 중 여성에게 지원되는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지원 금액의 절대규모의 증액이 시급한 실정이다(한국여성개발원, 2004).

(3) 간접지원정책 : 창업교육 및 훈련, 상담 및 공간지원 사업

가. 공간지원 사업 : 창업보육센터

여성창업을 지원하기위한 정책으로는 여성창업인에게 창업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 지원과 창업보육센터와 같은 공간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각각의 지원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업보육지원센터(BI:Business Incubator)는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약한 예비창업자나 신규창업자들을 입주시켜 작업 공간 제공, 기술지도 및 사업계획 구상, 자금지원 등 창업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기관(이상석·최종호, 2001)을 지칭한다.

2008년 중소기업청의 “08년 창업보육센터 운영계획”자료에 따르면, ‘98년에 도입된 창업보육센터가 지난 10년간 운영되면서 총 1만여 개 기업이 BI를 활용하였고, 이곳에서 배출된 벤처기업 수만 해도 1,145개에 이르는 한편, BI 졸업 후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만 해도 4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8년 현재 대학, 연구소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보육지원센터는 총 269개이며, 입주기업 4,333개, 매출액 2.3조원, 고용인원 23천명, 벤처기업 수 1,145, 코스닥 등록기업 40개이다.

<표 2-6> 여성창업 간접지원정책 현황(창업교육, 상담 및 공간지원 사업)

구분	공간지원 시행부처	주요대상	지원내용
공간지원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비즈니스센터)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 2년 이내 신규창업자	· 입주공간제공, 관리·운영비 일부지원, 창업정보 제공 및 창업상담 지원 (임대료 무료) · 2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여성부(여성인력개발센터)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 60평내 공간 분할사용 · 기간 6개월 · 무상임대 · 사업계획서작성지도, 컨설팅지원, 벤치마킹, 마케팅지원
	대학 창업보육센터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2년 이내의 기업	· 입주공간제공, 저렴한 임대료, 개조가 용이한 공간제공, 공동이용시설 및 사무지원, 경영 및 기술상의 전문지식제공
교육 및 상담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 창업에 필요한 정보제공, 아이템 및 상권분석 상담, 창업적성검사
	중소기업청	여성예비창업자와 신규창업자, 전업희망자	· 일반창업강좌, 전문창업강좌, 컴퓨터강좌를 통해 창업세미나, 창업요령, 마케팅 자금조달방법 강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패키지5단계 사업)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예정자중 지역 신보보증우대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상업종 :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3개 업종 교육단계 : 기본교육->심화교육 및 현장실습 ->workshop형 컨설팅->자금지원->사후관리

한편 여성들을 위한 여성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청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위탁해서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해주고, 공공으로 사무기기를 구입하고 운영하는데 드는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창업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아울러 정보화 자료실 및 세미나실, 회의실을 운영하고, 초고속 국가 망을 통해 IP 부여 및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을 통한 상담체제를 운영하여 여성 창업자들의 창업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나. 창업교육 및 상담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정책은 크게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여성가장훈련과 중소기업청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창업 강좌가 있다(양인숙 외, 2004).

<표 2-7> 창업관련 교육 및 상담 지원 현황

담당부처	교육 및 훈련 사업명	훈련대상자	훈련내용	비고
노동부	여성가장훈련	여성가장	조리, 미용, 꽃집창업, 베이비시터, 텔레마케터 등	훈련기관 :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설학원, 공공훈련기관 등
중소기업청 (여성경제인협회)	여성창업강좌	여성예비창업자와 신규창업자, 전업 희망자	일반창업강좌, 전문창업 강좌, 컴퓨터강좌를 통해 창업세미나, 창업요령, 마 케팅 자금조달방법 강의	훈련수당 전액 국고지 원 : 5~40만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	창업패키지 5단계사업	예비창업자 및 업 종전환 예정자중 지역 신보보증우대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대상업종 : 음식점,도소 매업, 서비스업 3개업종 교육단계 : 기본교육->심 화교육 및 현장실습 ->workshop형 컨설팅-> 자금지원->사후관리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준비에서 창업 후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 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 짐

다. 기타 연수지원을 통한 창업지원: 고령자 뉴 스타트 프로그램

고령자 뉴 스타트 프로그램이란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중소기업에서 현장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직, 창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고령인력 활용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7년 노동부에서 도입되어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크게 참여자와 참여업체로 구분되어진다. 먼저, 참여자는 50세 이상 실업자로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를 의미하고, 참여업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 된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내용은 현장연구패키지 프로그램과 비용지원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첫째, 현장연수패키지프로그램 지원은 중소기업에서 50세 이상 고령구직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현장연수와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 및 창업능력 배양이 목적이다. 현장연수는 ① 제품 조립·생산, 연구개발·신제품 개발·디자인 개선 등 단기 프로젝트 직접 참여, 행사 기획 및 진행 보조, 창업성공업체 현장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② 연수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1일 4시간~8시간(주20시간), 2개월 이내로 실시(최대 3개월)된다. 한편,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은 직장생활에 쉽게 적응하게 하고 진로선택과 취업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종분야 취업정보 및 트렌드(Trend)제공, 조직의 비전, 가치관, 문화, 조직생활의 노하우 등을 전수한다.

둘째, 비용지원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와 참여업체에 지원된다. 먼저 참여자에게 연수수당 월 20만원이 제공되고, 참여업체에 고령구직자 1인당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비용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연수기업에서 2개월의 연수기간 종료 후 고용지원센터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이 지난 고령자를 정식으로 채용하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1인당 1년간 총 270만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540만원)이 지급된다.

2. 창업지원정책의 효과 및 문제점

여성에 대한 창업자금지원은 2000년 들어서부터 확대되어 여성가족부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여성가장 및 여성기술인 등에 대한 창업지원이 시행되었다.

다음의 <표2-8>는 2000년 이후 각 부처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창업자금지원에 대한 예산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표 2-8> 여성창업지원정책별 지원예산

(단위 : 천원)

기관	사업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근로복지공단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	26,051,500	16,877,800	11,899,770	9,963,010	10,631,700	8,813,700	5,849,040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	-	-	-	-	-	1,574,000	473,000
	저소득층생업자 금융자사업	16,522,000	12,924,000	862,000	1,138,6000	8,787,000	9,457,000	4,190,000
여성가족부	모부자복지자금 대여사업	2,656,000	1,734,000	1,204,000	1,987,000	1,807,000	2,000,000	-
여성가족부	여성가장창업 지원사업	-	-	-	9,999,000	13,000,000	7,839,000	3,179,000
사회연대은행	저소득여성창업 지원사업	-	-	-	230,000	1,891,000	2,506,000	1,309,000
신나는조합	빈곤가정마이크로레딧 지원사업	89,677	31,229	39,484	104,778	119,096	705,223	849,766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6),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을 통한 자활지원방안 연구』 재정리

한편 여성창업에 있어서 연도별 지원인원수 및 업체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연도별 지원인원이 업체 수를 의미한다. 2005년까지를 보면 근로복지공단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을 제외하고는 정부정책자금의 지원인원은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고, 민간지원기관의 지원인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점포임대 요건을 맞춰야하는 정부의 정책자금보다는 사회연대은행과 신나는 조합 등의 민간기관이 무보증소액대출을 표방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책자금보다 대출요건이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2-9> 여성창업지원정책별 지원 인원

(단위: 명)

기관	사업명	지원대상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근로복지공단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	여성	567	407	246	213	197	167	118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	여성	-	-	-	-	-	104	26
		남성	-	-	-	-	-	85	26
	저소득층생업자 금융자사업	여성	1,497	1,222	811	1,015	741	783	303
여성가족부	모부자복지자금 대여사업		237	155	107	166	144	143	-
여성가족부	여성가장창업 지원사업	여성 대상	-	-	-	295	392	257	96
사회연대은행	저소득여성창업 지원사업	여성	-	-	-	30	106	149	79
		남성	-	-	-	3	32	96	34
신나는조합	빈곤가정마이크로 크레딧지원사업	여성	8	13	20	19	14	34	14
		남성	7	13	1	19	12	61	13

여성의 창업은 부가가치가 낮은 대부분 영세업종을 이루고 있다. 이는 여성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지원 대상의 업종별 현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이 미장원, 음식점, 소규모의 영세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전문여성 인력의 지식이나 이전의 조직 내 경험을 활용하여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인 정보통신부문은 전체 창업자금 지원대상의 10.6%, 디자인, 인테리어는 8.6%, 출판, 인쇄, 광고는 7.2%로 비중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일반적인 여성의 창업과는 달리 전문 인력의 창업은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으로 변화해 가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춘 아이디어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해야 하고 이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10> 여성부의 창업자금 지원 대상 기업 업종별 현황

(단위: 개, %)

업종별	자금추천	%	자금대출	%
어린이놀이방	34	6.8	22	7.5
미장원	134	26.9	71	24.1
음식업	57	11.4	26	8.8
IT(정보통신)	53	10.6	25	8.5
공인중개업	32	6.4	26	8.8
학원업(보습)	10	2.0	9	3.1
디자인,인테리어 등	43	8.6	22	7.5
예술학원	35	7.0	15	5.1
출판, 인쇄, 광고 등	36	7.2	21	7.1
전문직(약사 등)	11	2.2	4	1.4
기타	54	10.8	54	18.3
계	499	100	295	100

한편, 여성창업 정책 지원효과에 대한 연구나 평가가 단독으로 이루어진 바는 없다. 다만 창업지원에 대한 정책과 사업이 중앙의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면서 지난 2003년에 산업연구원이 7개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9개 창업보육 사업을 평가하였다(산업연구원, 2003). 이 연구에서는 창업정책이 정책목적에 부응하여 제대로 성과를 발휘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틀로 정책형성과 정책집행, 정책성과라는 정책프로세스 측면에서의 평가를 수행하였다. 각각의 평가기준에 준하여 평가지표 산출모형을 제시한 다음 여성창업정책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의 <표2-10>과 같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의 적합성 측면에서는 여성의 증가 추세와 잠재된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의 일치성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창업보육센터가 대학과 연계되어 잠재적 보육능력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여성창업보육센터 설립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한정하고 있어 보육능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으로 인하여 사업목표와 지원대상의 일치성, 지원수단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책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소액의 지원예산으로 인하여 투입요소 및 집행의 효율

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협소한 보육 공간, 보육매니저의 전문성 미흡, 보육자원의 조달능력 부족 등은 정책의 효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책의 효과성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용창출 및 수출효과가 낮고 특히 벤처기업 발굴 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책의 효과성이 낮은 이유로는 여성 창업인들은 육아 등으로 중도 탈락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점과 여성창업의 사업대상이 상대적으로 소규모라는 특성 등 여성기업 특유의 특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2-11> 여성창업보육사업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정책 형성	적합성	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표와 사업내용의 일치성	●
		사업목표와 지원대상의 일치성	○
		지원수요와의 부합성	●
		지원수단의 적정성	○
정책 집행	투입요소의 적정성	투입인력	●
		지원예산 규모	○
	집행효율성		○
	시책관리의 효율성	수요변화 반영 정도	○
		실적 D/B화 정도	○
		보육센터 입실률	●
정책 성과	효과성	고용창출 효과	○
		산출효과	○
		수출효과	○
		특허출원 효과	○
		연계기술개발효과	●
		벤처기업발굴효과	○
		졸업기업생존율	○
		수요자 만족도	○

주: ● : 매우 우수 ○ : 우수 ● : 보통 ○ : 미흡 ○ : 매우미흡

이상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성창업지원 정책이 갖는 문제점이나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여전히 자금과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창업자금 지원은 은행 등 금융권을 통해 지원하도록 되어있어 대

상자의 접근성이 낮아 실제 창업지원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지원 규모가 상향조정되고 있기는 하나 창업자금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많으며 이자율이 일반 금융권에 비해서는 낮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전문적인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지원 대상자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기관에 위탁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문적인 사전사후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셋째, 창업관련 여성우대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분리통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사업체 관한 개인정보는 등록되어 있으나 정책수혜자에 대한 남녀분리 통계는 별도로 생산하고 있지 않다. 한편, 여성창업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현행 창업지원정책들이 경제정책의 성격보다는 사회 정책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대상 창업지원정책이 생계형 창업을 중심으로 주로 취약계층 여성을 지원하는 사업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여성창업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정책의 성과라는 측면에서는 여성창업을 평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평가기준으로는 주로 소득증대의 효과와 고용창출의 효과, 사회통합이라는 효과 측면에서 여성창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여성창업지원정책의 소득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소득증대의 효과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득증대 효과는 있으나 그 효과가 미약하므로 비효율적 정책이라는 상호 대립적 연구결과들이 공존한다.

창업에 대한 소득증대 효과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리의 근거로는 소액창업 지원 사업이 복지수급자가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비율의 증가를 가져올 뿐 창업을 통해 실질적인 자활에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주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이 비교적 설득을 얻기 때문이다.

소득증대 효과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소득증대 효과 논의의 쟁점은 '있다' 혹은 '없다'의 판단의 문제이기 보다는 소득증대 효과의 '정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제 3 장

JDI

전북 여성창업 현황 및 주요사업 성과분석

- 제 1 절 여성기업 현황 및 특성
- 제 2 절 전북의 창업환경
- 제 3 절 여성창업관련 주요사업 성과분석
- 제 4 절 소 결

제 3 장 전북 여성창업 현황 및 주요사업 성과분석

제 1 절 여성기업 현황 및 특성

1. 여성사업체 추이

본 절에서는 전북의 여성기업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및 업종별 사업체 수를 분석하고 여성사업체수의 증감에 대한 변화추이를 통하여 전북 여성창업이 궁극적으로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바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2006년 현재 전체기업 수는 3,226,569 개소이며 이 가운데 여성기업체 수는 1,170,042개소로 전체기업 가운데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6.3%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06년 현재 전북의 전체기업 수는 118,818개소로 전국 기업체 수의 3.68%에 해당하고 여성기업체 수는 44,699개로 전국 여성기업체 수의 3.82%에 해당 한다.

여성사업체는 해마다 소폭씩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기준 전년도 대비 1.70%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북의 여성기업체 수 증감률을 살펴보면 2006년 현재 전년도 대비 0.30%로 매우 적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3-1> 각 연도별 여성사업체 추이

(단위 : 개,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국	전체기업체수	3,013,417	3,046,554	3,131,963	3,187,916	3,189,890	3,204,809	3,226,569
	여성기업체수	1,021,515	1,066,019	1,117,664	1,146,440	1,147,471	1,150,940	1,170,042
	여성기업비율	33.9	35	35.7	36.0	36.0	35.9	36.3
	증감율	-	4.4	4.9	2.6	0.1	0.3	1.7
전북	전체기업체수	121,548	118,259	119,443	119,717	120,165	118,809	118,818
	여성기업체수	42,107	43,051	44,322	44,799	44,976	44,566	44,699
	여성기업비율	34.6	36.4	37.1	37.4	37.4	37.5	37.6
	증감율	-	2.2	3.0	1.1	0.4	-1.0	0.3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 연도

여성기업체수 증감율 : (전년도 여성기업체수-금년도 여성기업체수)/전년도여성기업체수*100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 연도

다음의 <표 3-2>는 전라북도의 여성기업체 수 분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원도별 증감추이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사업체 수 대비 여성사업체수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는 울산광역시>제주도>강원도 순으로 분석되었고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은 하위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최근 2년간의 지역별 여성사업체 수 증감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평균적으로 경기도 3.2%, 충남 2.2%, 경상남도 1.6%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전라북도는 중위권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년도별 증감추이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 역시 년도에 따른 소폭의 증가를 보인다.

<표 3-2> 여성사업체 비중 증감 추이

(단위 : 개,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개	증감율	개	증감율	개	증감율	개	증감율	개	증감율	개	증감율
서울특별시	214586	29.7	223969	30.5	230256	30.7	228531	30.9	229872	31.0	230,414	31.4
부산광역시	98260	37.4	102395	38.1	103937	38.7	104003	38.9	102028	38.7	102,707	39.1
대구광역시	60911	34.1	63434	34.7	64423	35.2	64378	35.3	63182	35.1	63,867	35.5
인천광역시	51740	35.2	54426	35.4	55404	35.5	55768	35.5	54655	35.3	55,317	35.6
광주광역시	33729	37.7	34973	37.5	35910	38.0	36601	38.1	36223	38.0	36,802	38.5
대전광역시	33107	36.6	34043	37.1	34517	37.7	33827	37.4	33547	37.1	33,763	37.6
울산광역시	26019	43.5	27840	44.1	28413	44.2	28500	41.0	28470	43.6	28,896	43.9
경기도	173038	34.0	186784	34.5	196305	34.6	200105	34.6	205214	34.4	215,347	34.8
강원도	45466	40.7	47325	41.8	48364	41.9	48218	41.4	47933	41.3	48,272	41.5
충청북도	35709	37.3	36640	37.9	37022	38.0	36513	37.7	36313	37.4	37,314	37.6
충청남도	41315	35.0	43010	35.9	44431	36.3	44600	36.1	45868	36.5	47,044	36.9
전라북도	43051	36.4	44322	37.1	44799	37.4	44976	37.4	44566	37.5	44,699	37.6
전라남도	47592	37.1	49346	38.4	49734	38.8	49192	39.0	49125	39.3	49,505	39.7
경상북도	67304	38.1	69828	38.8	71326	39.2	70346	39.0	70304	38.8	71,051	39.3
경상남도	77005	38.9	81413	40.0	83570	40.3	83811	40.3	85254	40.4	86,733	40.7
제주도	17187	42.7	17916	42.9	18029	42.8	18102	42.6	18376	42.4	18,311	42.0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 년도

<표 3-3> 전북지역 기업유형별 여성기업인 현황

(단위:개, %)

구분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소기업		중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전국	1,117,870 (100.0)	1,041,692 (93.2)	1,103,094 (98.7)	14,431 (1.3)	1,117,525 (100.0)	345 (0.0)
전라북도	42,402 (100.0)	40,019 (94.4)	41,975 (99.0)	416 (1.0)	42,391 (100.0)	11 (0.0)

주 : ()안은 각 산업별 전체에 대한 기업규모별 구성비

자료 : 중소기업청(2007) 중소기업관련통계

원자료 : 통계청 『200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2006.12)』에서 재편가공

중소기업중앙회(2007)에서는 매년 여성 중소기업현황을 분석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통계청의 사업기초통계 DB를 재편 가공하여 산업별 종사자 수 기준에 의한 기업 규모별 분석에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표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 기업은 소상공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업종별 분석에서 소상공인 많이 분포되어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여성사업체 수가 많아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북은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소상공인의 비율은 약간 높고 중기업은 0.3%p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에 있어서는 여성 기업이 345개이나 전북은 단지 11개에 그치고 있다. 전북의 대기업이 82개소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이나 여성대기업이 전국의 1/300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현실이다.

2. 업종별 여성사업체 추이

업종별 사업체의 구성 및 증감율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업종별 분석에서는 통계청(<http://www.kosis.kr>)에서 실시한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따른 대분류에 따라 18개 업종이 대상이 된다. 2007년 통계청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기초로 이를 재가공하여 업종별 여성 사업체 수 및 비율, 증가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3-4>과 같다.

<표3-4>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여성사업자 수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 ‘교육서비스업’이 다수를 차지하여 1-2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매 및 소매업이 그 뒤를 이었다. 즉 여성사업체는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업종이 년도에 상관없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과 ‘농업 및 임업’은 여성사업체수의 상대적 기준에 따른 비율에서 1~3%대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 업종은 절대적으로 소수 업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사업체에서 감소추세가 가장 뚜렷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나타났고 운수업, 어업 등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는 2003년까지 감소하다가 2003년 이후다소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전국의 여성사업체 수 증감에 따른 전국의 여성사업체 구성추이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6년에 이르기까지의 업종의 증감률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사업체 가운데 절대적으로 소수 업종에 해당하는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과 ‘농업 및 임업’은 연도별 증감율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동 기간에 걸쳐 가장 증가한 사업체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을 들 수 있으며 나머지는 여성들이 비교적 많이 종사하는 ‘교육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의 증가율도 1~3%정도의 범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전국의 현황은 전국적인 변화추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16개 시도 지역에 따른 1999~2005년도의 여성기업 관련 업종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각 지역별로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중소기업연구원, 2007).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각 지역별로 여성기업의 업종에 대한 공통점은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52.3% ~73.8% 범위 내에 있었다. 또한 이러한 두 개 업종 다음으로 많은 업종들로는 도매 및 소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등이 대체로 30% 전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전북지역 사업유형별 종사자 수 현황

(단위: 개, 명, %)

산업별	2002		2003		2004		2005		2006		증감율	
	사업 체수 (개)	종사 자수 (명)	사업 체수 (개)	종사 자수 (명)	사업 체수 (개)	종사 자수 (명)	사업 체수 (개)	종사 자수 (명)	사업 체수 (개)	종사 자수 (명)	사업 체증 감율	종사 자증 감율
전산업	119,443	478,066	119,717	470,976	120,165	472,841	118,809	478,547	118,818	486,913	-0.5	1.9
농업 및 임업	163	2,170	167	2,312	168	2,213	166	2,047	161	1,902	-1.2	-12.4
어업	16	41	14	29	13	40	16	81	18	55	12.5	34.1
광업	86	735	87	895	86	802	80	728	85	750	-1.2	2.0
제조업	9,842	86,076	9,364	83,147	9,415	83,179	9,439	82,279	9,452	84,648	-4.0	-1.7
전기, 가스 수도사업	97	2,230	101	2,351	106	2,391	114	2,675	114	2,532	17.5	13.5
건설업	2,977	23,603	3,067	22,005	3,126	22,840	3,345	24,517	3,331	28,004	11.9	18.6
도매 및 소매업	36,364	88,044	35,869	85,185	35,159	82,644	34,289	81,728	34,109	81,792	-6.2	-7.1
숙박 및 음식점업	23,338	60,331	23,437	59,168	23,287	58,397	21,874	55,490	21,547	53,821	-7.7	-10.8
운수업	10,650	27,584	11,055	26,592	11,644	26,643	11,801	26,867	11,992	25,578	12.6	-7.3
통신업	405	6,660	460	5,675	470	5,602	508	5,994	512	5,691	26.4	-14.5
금융 및 보험업	1,476	21,742	1,404	20,583	1,392	20,186	1,392	20,610	1,436	21,586	-2.7	-0.7
부동산 및 임대업	2,554	8,677	2,627	9,369	2,706	9,114	2,806	9,134	2,847	9,434	11.5	8.7
사업서비스업	2,143	12,289	2,205	12,931	2,246	13,588	2,222	15,052	2,273	17,587	6.1	43.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17	25,381	834	25,748	880	26,977	906	27,014	910	27,176	11.4	7.1
교육 서비스업	5,310	46,657	5,476	47,786	5,687	48,662	5,909	51,715	6,004	51,359	13.1	10.1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2,797	22,776	2,923	23,759	3,018	24,991	3,160	26,871	3,335	29,951	19.2	3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4,612	11,094	4,585	11,119	4,602	12,150	4,382	12,130	4,222	11,502	-8.5	3.7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5,796	31,976	1,6042	32,322	16,160	32,422	16,400	33,615	16,470	33,545	4.3	4.9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증감율 : 2002년대비 2006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감추이를 나타냄.

사업체수 증감율 = (2006년 사업체수-2002년 사업체수)/2002년 사업체수*100

종사자수 증감율 = (2006년 종사자수-2002년 종사자수)/2002년 종사자수*100

제 2 절 전북지역 창업현황

창업활동에 전체에 관한 통계자료와 성별로 분리 된 통계를 생산하지 않는 현 단계에서 창업현황에 관한 단편적인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기초자료로는 신설법인 자료가 유용하다.

다음의 지역별 신설법인 수에 관한 기초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신설법인 중 2/3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으나 그 정도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각 지역별 현황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라 사정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증감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5> 전국 및 전라북도 신설·부도법인 수 증감추이

(단위: 개, %)

	지역	2005	2006	2007		2008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2	2월	1~2	1월	2월			
신설법인 수	전국*	52,587	50,512	53,483	9,409	4,072	9,127	5,298	3,829	-6.0	-27.7
		(5.56)	(5.54)	(5.54)	(5.55)	(5.53)	(5.52)	(5.52)	(5.52)		
	전북**	1,418	1,308	1,415	253	108	266	150	116	7.4	-22.7
		(2.7)	(2.6)	(2.6)	(2.7)	(2.7)	(2.9)	(2.8)	(3.0)		
부도법인 수	전국*	2,200	1,628	1,507	227	101	259	135	124	16.3	-8.1
		(6.25)	(6.26)	(6.24)	(6.25)	(6.25)	(6.24)	(6.24)	(6.24)		
	전북**	63	70	64	13	8	15	8	7	-12.5	-12.5
		(2.9)	(4.3)	(4.2)	(2.9)	(2.9)	(5.8)	(5.9)	(5.6)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어음교환 및 부도현황자료 재정리

* 전국 평균 신설법인, 부도법인 비율

** 전국대비 전라북도 신설법인, 부도법인 비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 전체 신설법인 수는 52,587개소이고 2006년에는 50,512개로 다소 감소한 추세이나 2007년에는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전월대비 증감율에 있어서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에 있어서는 약간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200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월대비 증감률에 있어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부도법인 수의 경우는 2003년에 감소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2002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표3-5>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전국의 신설·부도법인 수가 2008년에는 전월대비 증감률에 있어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북의 경우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과 전월대비 증감률에 있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표 3-6> 전국 및 전라북도 창업배율 추이

(단위, 개, %)

	지역	2005	2006	2007		2008			
				1~2	2월	1~2	1월	2월	
전국	신설법인	52,587	50,512	53,483	9,409	4,072	9,127	5,298	3,829
	부도법인	2,200	1,628	1,507	227	101	259	135	124
	창업배율	23.9	31.0	35.5	41.4	40.3	35.2	39.2	30.9
	증감률	-	29.8	14.4	-	-	-15.0*	-	-21.3**
전북	신설법인	1,418	1,308	1,415	253	108	266	150	116
	부도법인	63	70	64	13	8	15	8	7
	창업배율	22.5	18.7	22.1	19.5	13.5	17.7	18.8	16.6
	증감률	-	-17.0	18.3	-	-	-8.9*	-	-11.6**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어음교환 및 부도현황자료 재정리

*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 전월대비 증감률

순창업활동 정도를 나타내는 창업배율을 살펴보면 <표3-6>에서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는 전국에 비해 창업배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전북의 순 창업활동은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3 절 여성창업관련 주요사업 성과분석

여성창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크게 자금지원을 하는 직접지원과 공간(창업보육센터) 및 교육, 상담, 판로지원 등을 하는 간접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성창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전북여성경제인협회, 여성취업관련기관(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교육문화센터) 등이 있다. 본장에서는 여성창업 주요사업 성과를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누어 업무내용 및 지원내역, 사업성과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직접지원: 자금지원정책

1)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지원(중소기업지원센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전라북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 10조에 의거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건설업,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이 용자대상이고, 제조업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이 대상이 된다.

2008년 현재 총 900억 원이 지원계획에 있고, 시설투자는 일반기업이 7억 원, 도 전략산업기업은 10억 원 이하가 용자되고, 3년 거치 5년 이내에 연리 5.1%가 적용된다. 한편 운전자금의 경우 연매출의 1/3 이내 최고 3억 원까지 용자가 가능하며 1년 거치 2년 이내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세부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3-7>과 같다.

특히 해당 정책지원자금은 전라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 전략산업기업⁵⁾에 대해서는 용자금액에 있어서 일반기업보다 더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

5) 도 전략산업 범위는 크게 자동차 및 기계산업, 생물산업, RFT 및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구분되며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1)자동차 부품산업: 자동차 경량부품, 자동차모듈화분야, 미래친환경 자동차 요소부품분야 / 기계산업: 탄소산업분야, 초경합금분야, 지능형 생산시스템분야 2) 생물산업: 전통발효식품분야, 발효산업용 원료가공·저장분야, 발효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분야 3)RFT 및 신재생 에너지 산업분야: 방사선응용 첨단고분자 복합소재개발, 방사선응용 식품소재 에너지분야, 바이오 에너지분야 및 연료전지, 태양·풍력에너지이용분야 등이 해당함

<표 3-7> 전라북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내용

구분	시설투자자금	운전자금
용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 공장의 증·개축 소요자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 • 개체소요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자금연계 운전자금전자금 단, 시설을 자기자금으로 완료한 업체는 연 계로 간주하여 지원함 *시설자금보다 초과신청 불가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운전자금 -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운전자금
용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업 : 7억 원 이하 * 특별지원지역(정읍 제2지방산업단지)입주기 업은 30억 원 이하 - 도 전략산업기업: 10억 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억 원 이하 *1년간 매출(추정매출)액의 3분의 1 이내 *특별지원지역 5억 원 이하 (정읍 제2지방산업단지)
용자기간	- 3년 거치 5년 이내	- 1년 거치 2년 이내
용자이율	-연리5.1%(금리변동에 따라 변동가능)	

자료: 전라북도 투자유치국 내부자료(2008)

다음의 <표3-8>과 <표3-9>를 통해 소규모 중소기업인과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현재 총 지원사업자 수는 329개소이며 이 가운데 여성사업체 수는 45개소로 전체 사업개소의 13.7%에 해당하고 있어 여성기업인의 지원이 비교적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8> 전라북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현황_사업체 수

(단위: 명, %)

	사업체수		전체사업체수
	남성	여성	
창업자	124(84.4)	23(15.6)	147(100.0)
기존사업체	160(87.9)	22(12.1)	182(100.0)
계	284(86.3)	45(13.7)	329(100.0)

자료 :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내부자료(2007)

지원액에 있어서도 여성은 전체 지원업체의 12.1%로 신규 창업자와 기존사업체를 합하여 28,908백만 원에 해당하고 있다. 남성은 비교적 기존사업체의 지원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신규창업의 지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9> 전라북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현황_지원액

(단위:명, %, 백만원)

	지원액(단위백만)		총지원액
	남성	여성	
창업자	108,471(86.3)	17,289(13.7)	125,760(100.0)
기존사업체	101,480(89.7)	11,619(10.3)	113,099(100.0)
계	209,951(87.9)	28,908(12.1)	238,859(100.0)

자료 :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내부자료(2007)

본 사업은 2006년 214개 업체 138, 933백만 원 지출에서 2007년 329개 업체 238, 859백만 원을 지원하여 업체 수는 153.7%, 지원액은 171.9%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지원 대상 선정 시 여성사업체에 대한 우선지원은 없다.

사업지원 대상에 대한 업체를 분석 한 결과 주로 여성의 경우 식품가공(조미김, 누룽지, 복분자주 등)분야, 기계금속, 건축, 자동차 부품, 컨테이너 분야, 비료, 주방가구 업체에서 자금지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의 <표 3-10>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지원에 대한 2006년 실적과 2007년 실적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

<표 3-10>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지원 증감

(단위: 개, %, 백만)

		2006			2007			증감율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창업	업체수	83 (92.2)	7 (7.8)	90 (100.0)	152 (86.9)	23 (13.1)	175 (100.0)	83.1	228.6	94.4
	지원액	66,359 (93.5)	4,624 (6.5)	70,983 (100.0)	131,510 (88.4)	17,289 (11.6)	148,799 (100.0)	98.2	273.9	109.6
경쟁력강화	업체수	113 (91.9)	10 (8.1)	123 (100.0)	188 (89.5)	22 (10.5)	210 (100.0)	66.4	120.0	70.7
	지원액	62,012 (91.3)	5,938 (8.7)	67,950 (100.0)	125,748 (91.5)	11,619 (8.5)	137,367 (100.0)	102.8	95.7	102.2

자료 :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내부자료 재구성

2006년과 비교하여 2007년 창업분야에 있어서 전체 업체 수는 90개 업체에서 175개

업체로 9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이 가운데 여성기업 지원은 7개 업체에서 23개 업체로 증가하였으며 업체 수에서는 228.6%와 지원액에 있어서는 273.9%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일한 기간 동안 남성 지원율의 2배를 상회하고 있어 여성창업이 활발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는 전체 123개 업체에서 210개 업체로 70.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여성 기업은 10개소에서 22개소로 120.0%, 지원액에 있어서는 95.7%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원액의 규모에 있어서는 남성의 증가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쟁력 강화부분은 기존업체에 대한 지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3-11>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지원 업종변화 추이

(단위: 개, %)

	2006				2007			
	창업		경쟁력강화		창업		경쟁력강화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음식료품관련업종	12 (14.5)	1 (14.3)	10 (8.8)	1 (10.0)	28(18.5)	6 (26.1)	27 (14.4)	6 (27.3)
자동차관련업종	13 (15.7)	1 (14.3)	19 (16.7)	1 (10.0)	26(17.2)	2 (8.7)	35 (18.7)	2 (9.1)
금속관련업종	14 (16.9)	3 (42.9)	27 (23.7)	0 (0.0)	29 (19.2)	8 (34.8)	29 (15.5)	1 (4.5)
섬유화학관련업종 (의학분야포함)	16 (19.3)	1 (14.3)	12 (10.5)	3 (30.0)	18 (11.9)	2 (8.7)	23 (12.3)	4 (18.2)
기타제조업	28 (33.7)	1 (14.3)	45 (40.3)	5 (50.0)	51 (33.2)	5 (21.7)	74 (39.1)	9 (40.9)
계	83 (100.0)	7 (100.0)	113 (100)	10 (100.0)	152 (100.0)	23 (100.0)	188 (100.0)	22 (100.0)

자료 :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내부자료 재구성

한편 이들 지원업종에 대해 분석해보면 2006년과 창업분야에서는 남성기업은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 기업은 금속관련 업종의 비중이 높다. 경쟁력강화 부분의 지원에 있어서는 남성기업과 여성기업 모두 기타 제조업 분야의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는 남성은 금속관련 업종이 여성은 섬유화학 관련 업종에서 지원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단 경쟁력 강화부분에 있어 2007년에는 남성은 기타 제조업 다음으로는 자동차관련 업종이 지원이 많아 도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지원이 많았음을 반영하고 있다. 여성 기업은 제조업 다음으로는 음식관련 업종 지원비중이 많아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지원 성격이 반영되고 있다.

<표3-12>는 전라북도가 실시한 도민평가 결과로 중소기업자금 지원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자금지원을 받은 응답기업 137개소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의 도움정도, 매출액 증가, 고용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7.3%가 지원 자금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어 기업들에게 자금지원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2>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과 분석

(단위: 명, %)

자금의 도움정도	빈도(%)	매출액증가효과	빈도(%)	고용효과	빈도(%)
매우도움	113(82.5)	종전과같음	27(19.7)	종전과 같음	81(59.1)
조금도움	21(15.3)	10%이상증가	63(46.0)	종업원증가	47(34.3) 295명 증가
보통	3(2.2)	20%이상증가	39(28.5)	감소	9(6.6) 44명 감소
도움이되지않음	0(0.0)	30%이상증가	8(5.8)	-	-
계	137(100.0)	계	137(100.0)	계	137(100.0)

자료 : 중소기업육성자금 평가자료(전라북도청 기업지원과 도민평가 내부자료, 2007)

매출액 증가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다는 응답은 19.7%였으며 10% 이상 증가에 대해서는 46.0%가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20% 증가에 대해서는 28.5%, 30%증가에 대해서는 단 지 5.8%만이 응답하고 있다.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다가 59.1%로 반절 이상의 기업이 고용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종업원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34.5%로 296명이 증가하였으며 감소한 기업은 6.6%로 44명 감소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금지원을 받은 대부분의 기업이 자금지원의 필요성과 욕구에 대해서는 민감하기 때문에 응답결과가 긍정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매출액 증가와 고용효과에 정책자금의 out put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책자금의 유용성 측면에서 그다지 영향력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창업지원정책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13>은 지난 2002년과 2003년 상반기의 결과만을 보여주고 있어 여성창업 사업의 평균적인 결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정리된 결과에 의하면 여성창업기업의 종업원 수는 짧은 기간 안에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졸업기업의 생존율도 58.7%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3-13> 중소기업청 여성창업보육 사업의 주요성과 지표

	보육센터 입주율(%)	종업원 수 (명)	매출액 (억원)	수출액 (천 달러)	특허출원 (건)	산학연기술개 발과제 수(건)	벤처기업확인 업체수(개)	졸업기업 생존율(%)
2002	-	171	29	600	10	22	1	-
2003.7	90.1	235	-	-	-	-	2	58.7

주: 일반적 창업성공률은 72.6%임

자료: 산업연구원, 창업보육정책의 평가 및 발전방안(2007)

2) 희망창업(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경험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20~30대 청년창업 준비자들에게 경영 노하우와 전문교육을 실시하거나 사후관리 등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되는 전라북도 고유의 창업지원 사업이다. 다음의 <표3-14>는 전라북도가 2007년에 지원한 희망창업에 대한 자금지원 사업내용이다. 본 사업은 2007년에 지역에서 처음으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대안 사업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아직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다만 표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총 지원자 수 67명 가운데 여성이 22명으로 42.8%를 차지하고 있다. 본 사업이 지역의 청년인재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만큼 청년층 여성들의 지원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3-14> 전라북도 희망창업자금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07년 ~ 2011(5년간)
지원대상	20 ~ 30대 청년창업 준비자(연 200명선발)
창업교육	도소매, E-비즈니스, 음식점, 서비스 등 4개 업종
지원내용	- 교육지원: 컨설팅,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패키지교육 활용 - 자금지원: 전북신보 특례보증 최고 2000만원까지 대출 - 성장지원: 경영지원, 정보제공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사업비	- 07. 12월말 현재 18억원 지원 - 희망창업지원기금 30억원 이자활용

자료: 희망창업소상공인지원센터 내부자료(2007)

<표 3-15> 희망창업 자금지원 성과(2007년도)

(단위: 명, 만원)

남성		여성		계	
지원자수	지원액	지원자수	지원액	지원자수	지원액
45 (67.2)	90,000 (67.2)	22 (42.8)	44,000 (42.8)	67 (100.0)	134,000 (100.0)

자료: 희망창업소상공인지원센터 내부자료(2007)

희망창업 지원자들의 창업업종 분야를 <표3-16>을 통해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식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타 업종에서는 업종의 세분화와 다양성이 엿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 분야에서 남성의 경우 토목설계용역, 사진관, 음악학원, 가전 A/S, 예술조형장식, 관광기념품 제작 분야 등으로 서비스분야에서도 기존의 업종과는 차별화 되어진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의 창업과 개인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창업이 이루어진 반면, 여성의 경우 학원, 공방, 네일아트, 미용실로 나타나 기존의 서비스 업종과 크게 달라진 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표 3-16> 희망창업 지원자 성별 창업업종(2007년 추진성과)

(단위: 명, %)

업종구분	남	여	계
도소매	12 (28.7)	7(31.8)	19(28.4)
서비스	8 (17.8)	7(31.8)	15(22.4)
음식업	10 (22.2)	4(18.2)	14(20.9)
이비즈	15 (33.3)	4(18.2)	19(28.4)
계	45(100.0)	22(100.0)	67(100.0)

자료 : 희망창업 소상공인지원센터 내부자료(2007)

한편 도소매업종의 경우 남성들은 주유소, 신발, 친환경농산물, 무역, 리모델링 관련 분야에 창업을 하는 반면,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여성사업체로 여겨지는 의류, 화장품, 곡물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 한 분야는 지식경제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으로 주목받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이비즈사업의 경우 남성들은 통신판매, 홈페이지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광고마케팅, 디자인 등으로 업종에 있어 다양

성을 보이고 있고 이 분야의 창업비중도 과거와는 달리 높은 창업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창업의 경우 통신판매, 전자상거래업, 생활잡화(도소매) 등 상당히 제한적인 분야로 창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창업업종과의 차별성이나 전문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여성가장 창업자금(전북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은 여성가장의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여성창업을 촉진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중소기업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인 사업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다. 우선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여성창업과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사업대상 조건과 지원한도액에 있어 조금씩 차이⁶⁾가 있다. 다음의 <표 3-17>과 <표3-18>은 2000년부터 2006년에 걸쳐 여성부와 중소기업청에 의해 여성가장 창업지원자금 수혜현황을 정리한 자료이다.

<표 3-17> 여성창업지원정책별 지원예산

(단위 : 천원)

기관	사업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여성가족부	모부자복지자금 대여사업	2,656,000	1,734,000	1,204,000	1,987,000	1,807,000	2,000,000	-
여성가족부	여성가장창업 지원사업	-	-	-	9,999,000	13,000,000	7,839,000	3,179,000

자료: 전북여성경제인협회 내부자료

연도별 지원인원수 및 업체, 사업지원액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업지원 내용이 정채 혹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금지원은 점포지원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조건, 월세 점포가 많아지고 있는 최근 경향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미흡하다.

6) 지원대상 조건 및 사업지원 한도액에 대한 차이는 본 연구의 3장 3절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음

<표 3-18> 여성창업지원정책별 지원인원

(단위:명)

기관	사업명	지원대상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여성가족부	모부자복지자금 대여사업		237	155	107	166	144	143	-
여성가족부	여성가장창업 지원사업	여성 대상	-	-	-	295	392	257	96

자료: 전북여성경제인협회 내부자료

또한 자금지원 규모는 상향조정되고 있기는 하나 창업자금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고 이자율이 일반 금융권에 비해서 낮지만 실제상황에는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한편 전라북도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여성부에 의해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여성은 총 13명으로 지원액은 7억 3천만 원이다. 중소기업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여성 창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75명으로 15억 원에 이르고 있다.

<표 3-19> 여성가장 창업지원 자금 연도별 수혜현황

(단위: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여성부	수혜자수		-	5	8	1	13
	수혜액		-	1억	3억 2천5백만	3천5백만	7억3천만
중소기업청	수혜자수	9	11	14	19	22	75
	수혜액	1억8천만	2억2천만	2억8천만	3억8천만	4억4천만	15억

주)여성부 지원은 2004년부터 시작(2008년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재편)

자료: 전북여성경제인협회 내부자료

여성창업자금 대상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미미장원, 음식업, 소규모의 영세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전문여성 인력의 지식이나 이전의 조직 내 경험을 활용하여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인 정보통신부문은 전체 창업자금 대상기업의 10.6% 디자인, 인테리어는 8.6%, 출판, 인쇄, 광고는 7.2% 비중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04).

<표 3-20> 여성가장창업자금 지원대상 기업 업종별 현황(2004년)

(단위: 개, %)

업종별	자금추천	%	자금대출	%
어린이놀이방	34	6.8	22	7.5
미장원	134	26.9	71	24.1
음식업	57	11.4	26	8.8
IT(정보통신)	53	10.6	25	8.5
공인중개업	32	6.4	26	8.8
학원업(보습)	10	2.0	9	3.1
디자인,인테리어 등	43	8.6	22	7.5
예술학원	35	7.0	15	5.1
출판, 인쇄, 광고 등	36	7.2	21	7.1
전문직(약사 등)	11	2.2	4	1.4
기타	54	10.8	54	18.3
계	499	100	295	100

자료: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활성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04)

한편 전라북도의 여성창업자금 대상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창업한 업체 유형은 음식점이 가장 많고, 미용실, 피부관리실, 도소매(화장품가게, 떡판매점), 학원, 사진관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비교적 소자본으로 여성창업이 용이한 서비스업종에서의 창업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라북도는 여성가장이라는 소외계층 창업지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벤처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기반 산업으로 변화해 가는 우리의 산업적 상황이나 지식기반의 서비스산업이 부족한 전라북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경쟁력을 갖춘 아이디어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성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벤처 창업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간접지원 : 공간지원 및 교육·상담

1) 공간지원 : 창업보육센터

일반적으로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란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약한 예비창업자나 신규창업자들을 입주시켜 작업공간 제공, 기술지도 및 사업계획구상, 자금지원 등 창업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기관’을 지칭한다.

창업보육센터 중에서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청에서 여성경제인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창업보육센터, 전라북도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여성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내의 여성기업 입주자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3-21>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내용

구분	공간지원 시행부처	주요대상	지원내용
공간 지원	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비즈니스지원센터)	·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 2년 이 내 신규창업자	· 입주공간, 경영, 마케팅 등 종합지원·입주공간제공 및 시설설치비, 공동사무기기사용, 전문가 POOL 운영 등 창업초기지원 · 평균 7평 ~ 12평의 창업 보육실 설치 운영
	전라북도 (여성인력개발센터)	· 전라북도내 창업 을 희망하는 여 성	· 60평내 공간 분할사용 · 기간 6개월 · 무상임대 · 사업계획서작성지도, 컨설팅지원, 벤치마킹, 마케팅지원
	대학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청)	·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 업 2년 이내의 기 업	· 입주공간제공, 저렴한 임대료, 개조가 용이한 공간제 공, 공동이용시설 및 사무지원, 경영 및 기술상의 전 문지식제공

창업보육센터는 창업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을 보육하여 이들의 생존율을 높임으로써 실질적인 고용창출 기여도를 높이는 등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져 왔다. 2008년 현재 전국의 창업보육센터는 서울(중앙), 서울(강북),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수원, 춘천, 청주, 창원, 전주, 제주 등 전국 14개소의 269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2003년 총 291개소에서 2008년 현재 다소 감소하여 269개로 입

주기업 수는 4,333개소, 졸업기업 수는 5,824개소이다. 창업보육센터의 창업성공율은 2003년 통계에 의하면 72.6%이고 같은 해에 여성창업의 성공률은 58.7%로 분석되고 있다(산업연구원, 2003). 2003년 자료에 의하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은 제조업이 대부분이고 서비스업의 경우는 전체 입주기업의 8.9%에 지나지 않는다.

<표 3-22> 지역별 창업보육센터 현황(2008년 현재)

(단위: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창업보육센터 수	30	20	9	7	14	17	3	45	17	11	18	15	11	28	20	4	269
입주기업수	55	318	143	140	295	329	35	655	283	203	278	195	147	402	305	55	4,333
졸업기업	902	396	138	276	392	509	90	961	350	212	476	277	118	237	416	74	5,824

자료 :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http://www.bi.go.kr>)

여성창업센터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3-23>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예산은 200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별 입주업체에게 돌아가는 수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23>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현황

(단위: 개)

년 도	예 산	입실 수 (매년 12월 기준)	졸업업체	퇴거업체
2000	3,500,000천원	75/84	9	21
2001	2,700,000천원	142/148	18	32
2002	2,400,000천원	158/171	38	39
2003	1,400,000천원	149/171	47	33
2004	1,400,000천원	130/135	28	18

자료 : 여성경제인협회 내부자료(2004)

일반적으로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 조건에는 남녀차별 조항이 없으나 실제로 입주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기업 입주자의 비율이 전무하거나 희박한 편이다. 지역별 여성창업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현재 전국 14개 지역별로 85개의 업체, 97개의 창업보육실이 있으며 이 중 전북은 5개의 창업보육실에 5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표 3-24> 지역별 여성창업지원센터 현황

지역	중앙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계
창업보육실	9	10	9	6	6	6	7	6	5	7	9	5	6	6	97
업체 수	6	9	7	4	5	6	7	5	5	7	7	5	6	6	85

자료 : 중소기업청, 『08년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

한편 2008년 현재 전북의 창업보육센터 수는 15개소로 입주기업 수는 195개소 졸업기업 수는 277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표 3-25> 전라북도 창업보육센터 현황(2008년 현재)

	대 학	여성 경제인협회	여성인력개발센터	계
창업보육센터 수	15	1	2 (전주, 군산)	15
여성사업체 수	36(195)	5	9 (전주 6, 군산 3)	50(209) (23.9%)

자료 : 중소기업청 창업정보관리시스템 대학B현황, 여성경제인협회, 여성인력개발센터

다음의 <표 3-26>은 여성경제인협회가 위탁 운영하는 여성창업보육센터의 성과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업체수의 생존에 폐업율은 61%수준을 유지하다가 2005년에는 28.6%로 폐업율이 낮아져 2006년에는 폐업율이 0%로 낮아졌다. 이와 같이 입주업체의 폐업율이 낮아진 것은 해가 갈수록 입주 업체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입주업체들의 입주 업체율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평균매출액과 총매출액, 평균 고용인원은 눈에 띄게 상향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겠으나 우선 <표3-26>에서 엿볼 수 있는 점은 업종유형의 변화이다. 폐업율이 높은 2003년과 2004년 사이의 업종은 IT분야와 수출에서의 업종이 많은 반면 폐업율이 낮은 2005년과 2006년에는 IT분야의 업종이 적은 반면 방수와 제조도소매라는 과거 여성친화적인 업종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3-26>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성과추이

(단위 : 개, 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증감율
업체 수	계	13	13	9	5	6	-53.8
	신규	-	3	3	1	2	-33.3
	기존	-	10	6	4	4	-60.0
매출액	계 (평균)	47,250,000 (3,634,615)	50,250,000 (3,865,385)	382,520,000 (54,645,714)	515,000,000 (103,000,000)	650,000,000 (130,000,000)	1193.5 (3476.7)
	신규	-	3,000,000	26,000,000	15,000,000	40,000,000	1233.3
	기존	-	47250000	356,520,000	500,000,000	610,000,000	1191.0
고용인원	계	20	20	33	24	29	45.0
	신규	-	11	6	3	6	-45.5
	기존	-	9	27	21	23	155.6
업종유형	신규	-	IT1, 방송1, 수출1	제조도소매1 디자인1,방송1	제조도소매 1	서비스T, 도소매	-
	기존	IT6, 서비스1, 수출3, 방송1, 교육1, 디자인1	IT5, 서비스1, 수출2, 교육1, 디자인1	서비스1, IT2, 교육1, 수출1, 방송1	IT1, 방송2, 제조도소매 1	IT1, 방송2, 제조도소매 2	-

자료 : 전북여성경제인협회 내부자료

주1) 2004년 총액은 4개 업체의 매출액이 누락된 결과임. 즉 총 9개 업체의 총매출액

주2) 2004년 신규사업체 3곳 중 2곳의 매출액 정보 누락.

주3) 2005년 신규사업체 1곳 매출정보 누락

주4) 2007년도 신규사업체 1곳 매출정보 누락

주5) 평균매출액 = 입주업체 수 / 총매출액

주6) 총매출액 : 입주업체의 월매출액의 총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창업 졸업기업의 생존율은 중소기업청 일반창업보육센터의 72.6% 수준보다 낮은 58.7%를 유지하고 있어 창업성공율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본문 <표3-13> 참조).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여 전라북도 여성창업기업의 생존율이 38.4%를 유지하던 2003년과 2004년의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전북의 여성창업성공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 여성창업기업의 업체 수가 줄어 든 2006년과 2007년의 결과만을 놓고 볼 때는 창업성공률을 100%로 보아야 하나 이러한 결과해석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듯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놓고 여성창업성공률이 부족한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면밀하게 분석 할 필요가 있으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여성창업보육센터의 기능적인 측면이다. 현재의 여성창업보육센터는 대부분의 기능이 입주시설 및 공간 제공 기능이 가장 크며 그 밖의 다른 지원서비스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즉 여성이 창업을 하려고 할 경우 창업과 관련된 교육, 자금지원, 사업 타당성 분석, 입지 및 상권분석, 경영지원, 창업센터 입주, 기술지원 등을 받으려고 할 때 서비스 기능이 분산되어 있거나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창업보육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여성 창업자들이 원스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문적 기구나 기관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주장한 중소기업연구원의 『여성기업 현황 및 지원정책의 발전방안』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연구원,2007).

아울러 더 많은 여성에게 필요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즉 여성창업 관련 사업을 위탁경영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전북지부가 전주에 위치해 있어서 전주를 제외한 다른 시군지역의 여성기업인이 접근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2) 교육 및 상담지원

창업기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자금지원을 하는 직접적인 정책과 교육 및 창업관련 상담을 해주는 교육 및 훈련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청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창업 강좌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2007년부터 운영하는 5단계 패키지 창업교육 등이 있다. 아울러 여성취업관련 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추진하는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여성대상의 창업교육 등이 있다.

<표 3-27> 여성창업 교육 및 상담 지원내용

구분	공간지원 시행부처	주요대상	지원내용	비고
교육 및 상담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여성가장 및 도내일반여성	· 소자본 무점포 창업가능 중심의 창업교육	
	중소기업청 (여성경제인협회)	· 여고생, 여대생, 주부 등 예비·신규 여성창업자	· 여성유망직업에 대한 전문교육 · 소상공기업인과의 멘토링 · 강사료, 강의장소 임차료, 교재비 등 공통경비 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 (희망창업지원)	· 20,30대 청년창업 준비자	· 컨설팅,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패키지교육	· 교육지원, 자금지원, 성장지원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짐
	여성교육문화센터	· 창업을 희망하는 도내일반여성	· 전문기능기술 · 소자본 무점포 창업가능 중심의 창업교육	

다음의 <표3-28>은 중기청의 지원 사업으로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여성전문창업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다. 전라북도 여성경제인협회는 지난 5년간 여성전문인 창업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데 실제적인 교육은 여성경제인협회 자체교육이 아니라 각 대학, 여성교육문화센터, 직업전문학교, 민간 학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위탁교육 결과를 살펴보면 총 수강인원과 교육 강좌는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창업교육 과정 내용적 변화에 있어서는 2003년과 2004년에는 창업개설강좌는 다른 년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으나 교육내용은 그동안 여성

이 주로 담당해왔던 매출규모가 적은 소규모 영세창업 분야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개설 강좌의 수는 줄어든 반면 지역연고산업 위주의 창업교육과 고부가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전문교육이 신설되어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표 3-28> 여성경제인협회 여성전문창업강좌 개설현황

(단위 : 명)

년도	창업교육 내용(수강인원)	총 수강인원(계)
2003	소자본음식업(30) 인터넷(20) 피부미용(60) 베이비시터(60) 제과제빵(30) 홈페이지(40) 옷수선집(30)	270
2004	제3기 베이비시터(30) 외식업(30) 메이크업샵(30) 파티플레너(30) 퓨전떡 전문점(30) 인터넷쇼핑몰(30)	180
2005	문화컨텐츠개발(24) 캐릭터개발양성(24) 한지공예상품개발(24)	72
2006	패션리메이킹(24) 주얼리코디네이터(24) 뉴미디어제작과정(24)	72
2007	주얼리코디네이터(24) 향토전통음식1기(30) 향토전통음식2기(28)	82

자료 : 전북여성경제인협회 내부자료

다음에는 여성취업관련 기관인 여성교육문화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추진 중인 창업교육 현황이다.

우선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실시한 여성창업교육 현황을 <표3-29>를 통해 살펴보면, 교육에 참가한 수의 총 인원은 2007년 현재, 1년 동안 673명이 교육에 참가하였으며 수료자 수는 602명으로 수료율은 89.6%로 비교적 높은 수료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취업자 수는 188명으로 취업률은 31.2%로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수료대비 취업률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여성취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여성창업 교육 이후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여성교육문화 센터의 경우 교육공급 주체인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취업처와 직접 연결하는 경우와 교육을 담당할 강사가 취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취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높은 취업률에 비해 여성창업 분야의 직종이 다양하지 못하고 여성중심적 활동인 요리와 의류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고부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신산업과 전문성의 수준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표 3-29> 여성교육문화센터 창업교육현황(2005~2007년)

(단위 : 명, %)

과목	2005				2006				2007			
	참가 자수	수료 자수	취업 자수	취업 률	참가 자수	수료 자수	취업 자수	취업 율	참가 자수	수료 자수	취업 자수	취업 율
의류수선및 리폼	42	38	12	31.6	-	-	-	-	89	80	25	31.3
의상디자인	22	19	10	52.6	85	79	36	45.6	112	102	30	29.4
홈패션	25	22	11	50.0	65	62	37	59.7	114	91	34	37.4
가정요리	25	21	9	42.9	37	32	5	15.6	36	32	16	50
웰빙반찬창업	52	47	15	31.9	89	85	25	29.4	28	28	11	39.3
특별초대요리	28	25	7	28.0	-	-	-	-	30	26	9	34.6
출장요리	33	28	12	42.9	96	90	35	38.9	-	-	-	-
역사탐방논술교사 양성	-	-	-	-	23	23	23	100.0	-	-	-	-
의류제작 및 수선	-	-	-	-	107	101	27	26.7	87	76	24	31.6
제과제빵	-	-	-	-	53	49	22	44.9	87	85	18	21.2
약선요리	-	-	-	-	-	-	-	-	28	25	-	-
나도파티세	-	-	-	-	-	-	-	-	21	21	7	3.3
의류제작	-	-	-	-					87	76	24	31.6
계	227	200	76	38.0	555	521	183	35.1	673	602	188	31.2

자료 : 여성교육문화센터 내부자료

다음의 <표3-30>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창업교육 및 취업자 수에 대한 자료이다. 2007년 자료에 의하면 교육 전체 참여자 가운데 수료율은 77.7%이고 이 가운데 취업률은 51.0%에 해당한다. 취업 가운데 창업비율을 살펴보면 수료율 대비 창업율은 22.4%, 취업률 대비 창업율은 22.7%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8년 자료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있어 전체적인 경향을 알기에는 제한되어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만을 대상으로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 참여자 가운데 수료율은 36.2%, 수료율 대비 취업률은 79.3%에 해당한다. 취업 가운데 창업비율을 살펴보면 수료율 대비 창업율은 41.4%, 취업률 대비 창업율은 32.8%에 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전체 취업자 가운

데 여성창업율의 범주는 22%~32%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창업의 직종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여성창업이 안고 있는 소규모의 영세성과 여성집중적인 직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0> 여성인력개발센터 창업교육과정 현황(2008년 현재)

(단위: 명)

	2007			2008. (1/4분기)		
	참가 자수	수료자수	취업 (창업)자수	참가 자수	수료자수	취업 (창업)자수
계	189	147	75(33)	80	29/진행중	23(7)
아로마DIY	51	41	22(7)	10	10	10(부업등기타)
아로마DIY(심화)	24	24	22(7)	6	6	6(부업등기타)
웰빙떡카페	10	7	3	16	진행중	-
반찬가게	14	13	4(1)	12	진행중	-
샌드위치샵	42	31	7(3)	26	진행중	-
미니실내조경코디양성*	-	-	-	7	진행중	-
플라워샵창업과 플로리스트입문	27	23	4(4)	-	-	-
플라워샵창업(심화)	21	8	13(11)	13	13	7(창업)

자료 :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내부자료

* 미니실내조경코디양성사업은 2008년도 신규과정

다음의 <표3- 31>은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희망창업지원 창업교육성과이다. 본 사업은 작년에 시작하여 단 1기의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교육참여자는 모두 107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은 45명으로 42.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참여자 가운데 교육 수료자는 97명으로 90.7%의 수료율을 보이고 수료자 가운데 창업에 성공한 사람은 67명으로 69.1%의 창업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여성 수료율은 42.2%(41명)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창업자 수를 살펴보면 수료율 대비 참여율은 69%이고 이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8%(2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여성의 창업비율은 22%~32%의 범주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3-31> 희망창업지원 창업교육 성과(2007년)

(단위: 명, %)

참가자수			수료자수			창업자수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62 (57.9)	45 (42.1)	107 (100.0)	56 (57.3)	41 (42.7)	97 (100.0)	45 (67.2)	22 (32.8)	67 (100.0)

* 2008년 4월 기준자료(참고, 교육 이수 후 지속적으로 창업 준비 과정을 거쳐 창업 중에 있기 때문에, 기준시점에 따라 자료가 다름.)

3) 직간접 정책 혼합 1 : 5단계 패키지 창업지원프로그램

다음의 <표3-32>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창업인을 대상으로 창업이전의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정책 수혜자를 위한 단계별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표 3-32> 5단계 패키지 창업지원프로그램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1단계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들에 의한 기본컨설팅 · 창업동기, 적성검사, 창업아이템 선정,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2단계 창업이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강사 : 센터 상담사 및 업종별단체 추천전문가 등 활용 - 교육장소 : 공공기관 교육장 등을 임차 사용 · 교육시간대는 지역별 실정에 따라 자율결정 - 교육내용 · 공통기본교육: 유망아이템, 창업절차, 각종지원제도, 창업세무, 부동산계약, 프랜차이즈 · 업종별 심화교육 : 세부사업계획 수립, 업종별 트렌드, 아이템 선정, 창업인허가절차, 시설인테리어, 홍보마케팅전략, 고객관리, 업종별 유망프랜차이즈, 성공사례등
3단계 현장실습 및 참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내용 : 성공업체 현장탐방 및 실제 영업체험 - 실습장소 : 성공창업한 자영업체(업종별 단체 추천 또는 지역별 센터에서 발굴) - 실습지도방법 : 업종별로 성공업체 현장실습 - 현장체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창업사업계획서 작성 · 담임상담사들에 의한 업종별 현장컨설팅
4단계 우대보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교육과정 수료생 중 희망자 · 신청 접수 시 보증우대 결정사유 여부 사전조사 - 지원규모 : 5천만원 한도 보증지원
5단계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실습과정 수료 및 자금지원 업체에 대하여 창업 후 일정 기간동안 지속관리 및 후속지원 실시 ·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 애로청취 및 진단지도 · 성공경영을 위한 매출증대 방안 및 고객 유인전략 등 지속적 지도관리

이러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워주면 창업 이후의 사후관리까지를 해 줌으로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창업지원이 되고 있어 교육의 호응도와 효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사업이다.

다음의 <표 3-33>은 전라북도가 2006년과 2007년에 실시한 창업교육 운영성과를 정리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2006년 교육수료자는 총 34명이고 이 가운데 창업을 한 사람은 16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육대비 창업율은 47.0%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여성의 교육수료율은 41.2%(14명)이지만 창업율은 남성과 동일하게 23.5%(8명)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3> 5단계 패키지 창업교육 운영성과(전라북도)

(단위:명, %)

		2006				2007			
		교육		창업		교육		창업	
음식	남	8(23.5)		5(31.3)		11(17.5)		7(18.4)	
	여	9(26.5)		6(37.5)		14(22.2)		8(21.1)	
도소매	남	12(35.3)		3(18.8)		12(19.0)		8(21.1)	
	여	5(14.7)		2(12.5)		8(12.7)		4(10.5)	
서비스	남	-		-		9(14.3)		8(21.1)	
	여	-		-		9(14.3)		3(7.9)	
계	남	20(58.8)	총34명	8(23.5)*	총16명	32(50.7)	총63명	23(36.5)*	총38명
	여	14(41.2)		8(23.5)*		31(49.2)		15(23.8)*	

*2007년 사업성과는 2008년 2월 12일 현재 기준.

*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 내부자료

*서비스 분야 창업교육은 2007년 시작.

*창업율()는 전체 교육수료율 대비 창업율 임

한편, 2007년 교육성과를 살펴보면 총 교육수료자는 63명이고 이 가운데 창업을 한 사람은 38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육대비 창업율은 60.3%로 2006년과 비교하면 교육대비 창업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여성의 교육수료율은 49.2%(31명)이고 창업율은 23.8%로 남성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창업직종을 남녀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도소매와 서비스 직종에서의 창업이 많은 반면 여성은 음식관련 직종에서의 창업이 많음을 알 수 있다.

4) 직간접 정책 혼합 2: 기술창업패키지 사업내용 및 추진성과

기술창업패키지 사업은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자금+입지+경영·기술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술창업 전문과정이다.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는 신기술 및 첨단기술 보유자로 교육 중 또는 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각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3-34>와 같다.

<표 3-34> 기술창업패키지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전진단	- 지원대상자별 창업유형별 진단·분석을 통해 창업유형별 팀을 편성하여 멘토지정 등 대사장별 지원프로그램 마련
창업실무과정(30시간)	- 창업경영전략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무위주의 지식교육 - 트렌드 분석과 창업, 벤처기업의 마케팅 전략, 기업가정신과 리더쉽,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 특허전략 및 특허작성요령, 창업절차 및 세무회계,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스킬, 기술경영전략, 창업자금조달
모의창업과정(30시간)	-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및 창업기업의 성공사례 분석을 통한 창업전략 수립 -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워크숍, 벤처기업의 성공사례 분석, 신제품개발기획과 전략, 기술평가를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및 멘토링과정(20시간)	- 모의창업과정에서 체험한 문제점을 개별 멘토를 통해 해결 - 창업컨설팅 프로세스별 창업과정 클리닉 및 전문가 자문
사업화연계지원과정	- 『기술창업패키지운영위원회』를 통한 종합진단 및 사업화 지원 - 기보, 중진공 등은 지원대상자의 기술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신청자 대상으로 일괄 및 수시자금 평가심사 의뢰 검토 - 지역 협의회 등을 활용, 특화사업에 적합한 인근 창업보육센터 소재 대학 등을 연계하여 창업공간 제공

자료 : 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 내부자료

다음의 <표3-35>를 보면 교육생 대비 수료생의 비율을 분석한 것으로 정책수혜자의 성비에 있어서 남성수혜자가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료생

대비 창업율은 비교적 낮아서 2005년에는 66.6%, 2006년에는 40.6%, 2007년에는 26.0%의 창업율을 보이고 있다. 수료생 자금지원에 있어서는 중소벤처자금지원과 기술혁신개발 사업건의 지원이 타 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35> 기술창업경영아카데미과정 추진성과

(단위 : 명, %)

	2005			2006			2007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교육생	27 (90.0)	3 (10.0)	30 (100.0)	32 (82.1)	7 (17.9)	39 (100.0)	28 (96.6)	1 (3.4)	29 (100.0)
수료생	27 (90.0)	3 (10.0)	30 (100.0)	25 (78.1)	7 (21.9)	32 (100.0)	22 (95.7)	1 (4.3)	23 (100.0)
창업자수	17 (85.0)	3 (15.0)	20 (66.6)*	10 (76.9)	3 (23.1)	13 (40.6)*	5 (83.3)	1 (16.7)	6 (26.0)*

주: *의 비율은 수료생 대비 창업율 임
자료 : 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 내부자료

<표 3-36> 수료생 자금지원 성과

(단위: 건, 백만)

구 분	내 용	지원 실적	
		건수	금액(백만원)
용자성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	2	300
	중소기업육성자금	1	70
	특허기술사업화자금	1	60
출연성자금	TBI(신기술창업보육사업)	1	88
	중기청(기술혁신개발사업)	2	150
	현장맞춤형기술개발사업	1	56
계		7	724

자료 : 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 내부자료(2007)

5) 기타 연수지원을 통한 창업지원: 고령자 뉴 스타트 프로그램

고령자 뉴 스타트프로그램은 2007년 노동부에서 도입되어 지역고용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중소기업에서 현장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직, 창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고령인력 활용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다음의 <표 3-37>, <표 3-38>, <표 3-39>는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진행된 사업성과 및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표3-37>에 의하면 2007년 목표는 20명 지원으로 교육 수료자는 총 18명이고 이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1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2008년 목표는 25명으로 4월 현재 9명의 연수와 중도해지 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3-37> 고령자 뉴 스타트프로그램 성과 및 현황(2007, 2008년4월 현재)

(단위:명, %)

구분	목표	계	연수	중도해지	수료	취업자	참여율
2007년	20	20		2	18	1	100
2008년 (4월말)	25	10	9	1	0	0	40

자료 : 전주고용지원센터 내부자료

* 2008년도 사업은 3월 시작

** 2007년도 취업자의 취업분야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표3-38>은 2008년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성별·연령별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2008년 총 10명의 참여자 가운데 여성이 8명 남성이 2명으로 비교적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참여율이 높다.

<표 3-38> 고령자 뉴 스타트프로그램 참여자 현황(2008년4월 현재)

(단위: 명)

2008년 4월 현재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0	2	8	0	2	0	3	0	3	2	0

자료 : 전주고용지원센터 내부자료

이는 고령자 뉴 스타트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참여자와 참여업체로 구분하여 지원되고 있는 바, 주로 참여업체의 직종에 따른 특성이 주로 제조업과 어린이집 보조교사, 보모, 보육사, 복지기관 의료케어 보조가 필요한 사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비교적 여성참여가 제한적인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은 여성참여가 활발한 업종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표 3-39> 고령자 뉴 스타트프로그램 참여업체 현황(2007, 2008년4월 현재)

(단위: 개, 명)

	10인 미만		10-49인		계	
	업체수	실시인원	업체수	실시인원	업체계	실시인원계
계	6	7	3	3	9	10

자료 : 전주고용지원센터 내부자료

이외에도 매해 여성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여성창업경진대회가 있다. 이 행사에서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아이디어, 창업아이템 등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것으로 지역별 예선 (6-8월) 및 본선심사(10월)를 거쳐 선발하여 수상자는 창업보육센터 우선입주 및 창업자금 보증기관 연계 우대 지원할 계획(2008년 여성기업활동 촉진기본계획)에 있다.

지역의 실정으로는 아이템이 우수하여 본 대회에 나가지만, 관련 준비가 미흡하여 수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홍보, 프리젠테이션 준비 등을 지원하고 수상 후 전라북도 차원에서의 추가 지원 계획 필요하다.

제 4 절 소 결

이제까지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창업정책의 성과 및 전라북도 지자체의 대응자금으로 이루어지는 창업지원정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3-40>과 같다.

각 사업에 따라서는 시행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5년 동안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성가장창업지원 사업은 시행시기가 2003년부터이고 희망창업은 전라북도가 2007년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전북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은 사업시행 시기가 84년부터이나 남녀 성별 분리통계가 작성된 것은 2006년부터이다. 창업업체를 포함하여 소상공인이나 기업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정책이 사업자 등록이나 사업자 번호와 같은 업체분류에 기준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있어 성별분리 통계를 수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여성창업에 대한 년도별 일관된 자료의 부재로 여성창업의 성과를 지원자금의 확대, 고용창출 효과, 매출액 증가, 창업에서의 성공률의 추이를 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⁷⁾

여성창업효과를 자금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직접지원과 교육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간접지원으로 크게 이분하여 그 성과를 파악하면

직접지원에서는 중앙단위의 여성창업은 주로 저소득생계형 위주의 보호정책 결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고용이나 매출액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지는 못하다.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창업보육센터는 매년 소폭으로 고용창출을 하고 있으나 창업갯수 대비 고용으로 보면 소상공인 규모 정도의 창업이 대부분이어서 직접적인 고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2005.5.31)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업분류에 남녀 성별분리를 추가하여 모든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용창출 성과 평가계획(안)을 발표(2008.2.15)한 내용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는 스스로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지역단위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역고용 사업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여성기업인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와 자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반면에 전라북도 자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창업지원은 주로 기존의 업체 지원에 관한 경쟁력 강화 부분이 많아 직접적인 고용효과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여성 기업인이나 창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

한편, 창업에 대한 교육지원은 매년 참가자 수와 창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참가자 수 대비 창업자 수의 비율을 보면 참가에 비하여 낮은 창업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창업업종도 기존 여성 집중적인 음식점 및 숙박, 도소매 등의 업종이 많고 기술창업 패키지와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창업교육은 참여자의 수도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창업으로의 연결도 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여성창업의 직간접 지원의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긍정적인 시사점은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희망창업’ 지원에서의 여성참여가 많고 창업업종도 다변화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창업대상과 업종선정에서 여성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에서의 여성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전략적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1) 직접지원 : 자금지원

<표 3-40> 직접지원 : 자금지원내용 및 성과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및 성과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고용	고용		
		지원금	창입 갯수	지원금	창입 갯수	지원금	창입 갯수	지원금	창입 갯수	지원금	창입 갯수				
중 앙 부 처 지 원 사 업	여성기장창업지원사업 (여성부)	-	-	1억	5	-	3억2천5백	8	-	3천5백	1	-	-	-	
	저소득여성기장생계형 지원(중소기업청)	2억 2천	11	-	2억 8천	14	-	3억8천	19	-	4억4천	22	-	-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 (중소기업청)	78억	-	-	104억	-	-	157억	-	-	264억	-	-	-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청)	-	-	-	3억8천9 백	15	-	4억4백	15	-	5억2백	17	38	4억3천2 (107.9) 백	26
	여성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청,여성경제인협회)	-	13	20	20 (3)	13 (3)	20 (11)	-	33 (6)	-	-	5 (1)	24 (3)	-	6 (2)
전 라 북 도	희망창업(전라북도)	-	-	-	-	-	-	-	-	-	-	-	-	4억 4천 (13억4천)	22 (67)
	전북창업 및 경쟁력강화(전라북도)	-	-	-	-	-	-	-	-	46억2천4백 (1,315억천)	7 (90)	-	-	172억 8천9백 (1,487억9 천9백)	23 (175)

(단위:개,명)

주1)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운영비지원이 중소기업청, 대학, 도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적 지원근거가 중소기업청 중앙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중앙부처 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데이터는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를 의미함.

주2) 5년째 창업패키지사업은 2006년 첫 실행

주3)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창업 사업은 2007년 첫 실행, 여성지원현황을 나타낸 것이며, ()안은 전체 지원액을 의미함.

주4) 전라북도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은 창업업체를 지원하는 자금만 해당(경쟁력강화사업은 제외). 자료는 여성의 경우를 나타낸 것이며 ()안은 전체지원액을 의미함

주5) 여성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연도별 사업제수 및 해당년도의 고용된 창업원수와 고용된 창업원수를 나타냄. ()안은 신규고용인 수

자료 : 전라북도 중소기업청 내부자료,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내부자료,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내부자료, 여성경제인협회 내부자료

희망창업소상공인지원센터 내부자료, 중소기업청(2007), 중소기업관련통계

(2) 간접지원 : 교육지원

<표 3-41> 간접지원 : 교육지원내용 및 성과

(단위: 명)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및 성과											
		2005년			2006년			2007년					
		참가지수	수료자수	정업자수	참가지수	수료자수	정업자수	참가지수	수료자수	정업자수			
중앙부처 지원사업	여성경제인협회창업교육 (중소기업청, 여성부)	72	-	-	72	-	-	82	-	-	-	-	
	5단계 창업패키지 (소상공인지원센터)	-	-	-	14 (34)	14 (34)	8 (16)	31 (63)	31 (63)	15 (38)			
	기술창업패키지 (중소기업청)	3 (30)	3 (30)	3 (20)	7 (39)	7 (32)	3 (13)	1 (29)	1 (23)	1 (6)			
전라북도	희망창업	-	-	-	-	-	-	45 (107)	41 (97)	22 (67)			
	여성인력개발센터	-	-	-	-	-	-	189	147	33			
	여성교육문화센터	227	200	76	555	521	183	673	602	188			

주1) 여성교육문화센터의 경우 정업자수가 아니라 취업자 수임
 주2) 5단계 창업패키지사업은 2006년 첫 실행. 자료는 여성참가자를 나타낸 것이며, ()안은 전체 참가자 수
 주3)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창업 사업은 2007년 첫 실행, 자료는 여성참가자를 나타낸 것이며, ()안은 전체참가자 수
 주4) 기술창업패키지 사업의 경우 기술창업아카데미 성과를 나타낸 것임. 자료는 여성참가자를 나타낸 것이며, ()안은 전체 참가자수

제4장

JDI

여성창업인 사례분석 결과

제 1 절 조사개요 및 심층면접자 특성

제 2 절 사례조사 결과

제 4 장 여성창업인 사례분석 결과

제 1 절 조사개요 및 심층면접자의 특성

1. 조사목적 및 조사과정

본 연구에 참가한 심층면접 대상자는 여성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의 실무담당자를 통해 의뢰한 여성사업주 중 면접에 응한 총 17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면접대상자의 선별 기준은 현재 창업보육센터 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대학 내의 창업보육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경제인협회의 사업운영자, 희망창업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창업 중에 있는 사업자 등을 고루 반영하였다. 대학과 연계되어 잠재적 보육능력을 활용하고 있는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와 여성취업 관련 기관 내 입주하고 있는 여성창업자의 경우 보육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두 기관 사이의 지원체계의 문제점, 특징을 비교하기 위하여 양 기관을 고루 면접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심층면접은 2008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3주 동안 이루어 졌으며, 면접과정은 여성사업주와 사전연락을 통해 면접 일정을 정하고, 훈련된 면접자들이 사업체에 직접 찾아가서 약 1-2시간 정도 이루어졌다. 면밀한 정보를 취하기 위해 면접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후 인터뷰과정을 녹음한 후 정리원을 통해 면담과정 전체를 녹취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 구성은 총 17사례 중 30대가 5명, 40대가 10명, 50대가 2명이며, 학력은 고교 중퇴에서 박사과정 재학(중)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면접에 참여한 여성사업체의 유형을 살펴보면, 식품분야 4곳, 의류 및 홈패션 4곳, 허브용품 및 공방 4곳, 기타 꽃가게, 미용실, 학원, 재활용품 납품, 이벤트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심층면접 대상의 일반적 특성

<표 4-1>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번호	연령	학력	결혼 상태	사업체유형	특성
사례 1	35	대재	기혼 유배우	천연재료 목욕용품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창업보육실 입주자 · 한약재료도매상(가업), 쇼핑몰운영경험 있음 · 창업당시 막내자녀나이 7세(현10세) · 창업한지 만 3년
사례 2	30	대졸	미혼	미술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창업지원 · 미술학원강사, 쇼핑몰직원경험 있음 · 창업한지 10개월
사례 3	35	고졸	이혼	꽃가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인력개발센터 창업교육경험 · 화장품방문판매, 한의원사무보조 경험있음 · 창업당시 막내자녀나이 8세(현9세) · 창업한지 1년 2개월
사례 4	40	대재	기혼 유배우	미용실 (피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창업지원 · 보험영업, 네트워크, 화장품납품 경험 있음 · 창업당시 막내자녀나이 4세 · 창업한지 9개월
사례 5	40	고졸	기혼유 배우	허브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여성인력개발센터 창업보육실 입주자 · 일반사무직 경리 경험 있음 · 창업당시 막내자녀나이 5세(현 6세) · 창업한지 3개월
사례 6	42	대졸	기혼 유배우	누룽지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창업보육실 입주자 · 인테리어 창업경험있음 · 창업당시 막내자녀 나이 10세(현11세) · 창업한지 5개월
사례 7	41	고교 중퇴	기혼 유배우	홈패션 (황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교육문화센터 창업교육경험 · 의상디자인, 샘플제작 경험 있음 · 창업당시 자녀 없었음.(현19개월) · 창업한지 2년
사례 8	48	고졸	이혼	커튼,무대조 명,블라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상담경험 · 인테리어, 커튼제작 경험있음 · 창업당시 막내자녀나이 13세(현 16세) · 창업한지 3년
사례 9	46	대졸	이혼	압화(공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여성인력개발센터 창업보육실 입주자 · 독서실,학원창업경험 있음 · 창업당시 막내자녀나이 17세(현17세) · 창업한지 3개월
사례 10	42	고졸	기혼 유배우	샌드위치 가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인력개발센터 창업교육경험 있음 · 농협, 보험회사, 회계사사무보조 경험 있음 · 창업당시 막내자녀나이 16세(현 17세) · 창업한지 5개월
사례 11	52	대재	기혼	분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인력개발센터 창업교육경험 있음

			유배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경사, 학원운전경험 있음 · 창업당시 막내자녀나이 27세(현 31세) · 창업한지 5개월
사례 12	40	대졸	기혼 유배우	공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창업지원 · 유아교육교사, 모빌제작 경험 있음 · 창업당시 막내나이 10세(현11세) · 창업한지 10개월
사례 13	40	대졸	기혼 유배우	재활용품(전자,철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창업지원 · 학교교사,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경험있음 · 창업당시 막내자녀나이 1세(현 2세) · 창업한지 9개월
사례 14	53	대학원졸(박사 재학)	사별	고추장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기업 입주(창업)주 · 한식조리사 과정 강사 · 창업당시 막내자녀나이 20세(현 23세) · 창업한지 4년
사례 15	35	대졸	미혼	의류소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창업지원 · 의류사업 경험있음 · 창업한지 8개월
사례 16	37	전문대졸	기혼 유배우	홈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여성인력개발센터 창업보육실 입주자 · 유치원강사, 아동복 가게운영경험 있음 · 창업당시 막내자녀나이 5세(현6세) · 창업한지 9개월
사례 17	41	고졸	기혼 유배우	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창업지원 · 이벤트회사 직업경험있음 · 창업당시 막내자녀나이 11세(현 12세) · 창업한지 1년 1개월

제 2 절 사례조사 결과

전라북도 여성창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여성창업지원 정책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심층면접을 통한 전라북도 여성창업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전반적인 창업지원 기반의 구축이 미비한 점, 둘째, 여성창업지원시스템 내의 구조적인 문제, 셋째, 여성경제활동의 환경의 문제로 구분되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미비

(1) 창업보육에 대한 인식부재 및 정책 활용 접근성 부족

현재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대상자들의 명확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창업자들 자체가 지원과 보육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육단계에서의 지원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 장소 및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에게 개인 또는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함과 아울러 경영, 세무,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통해 창업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창업에 대한 지원과 보육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지원 단계를 벗어나 독립적인 하나의 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계이다(김창연·고선주, 2006).

그러나 여성창업자들은 오히려 지원에 대한 의존성이 커져 사업에 대한 추진력을 상실하거나 추진 주체로서의 책임이 다소 약화되는 경향이 보인다.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여성경제인 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실, 각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전주, 군산)의 창업보육실 등이 여성창업자들에게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장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창업보육에 대한 인식이 제공 주체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창업인큐베이터 내에서 지원을 받는 여성창업자들은 보육센터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졸업 후 창업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기보다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기도 한다.

<사례 16>과 <사례 3>은 과거의 사업실패로 인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굳이 창업보육실에서 따로 요구가 있지 않으면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말한다. 또한 창업보육실에서 나가게 되더라도 지속적인 연계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창업보육실에 대한 의존과 사후관리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저도 창업을 해야겠다는 꿈이 있어요. 작은 가게라도 해서 예쁘게 꾸며놓고 사람들에게 예쁜 물건을 팔고 싶어요. 그런데 창업보육실에 있는 것도 6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부장님이 말씀이라도 여사님이 계셔서 창업보육실이 돌아간다고 말씀 하시고 하니깐, 내가 여기에서도 필요한데, 굳이 불편하게 (따로 가게를) 열고 할 필요가 있나 싶으면서 자꾸 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사례 16>

부업삼아 애들 학비라도 벌여보겠다고 시작한 것인데 비싼 가게 임대료를 내면서 운영해야 한다면 도저히 수지가 안 맞아요.... 그런데 모르죠, 만약 창업모육센터를 나가야 한다면 더 많은 수입을 내기 위해 약착같이 사업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과거의 내 경험을 비추어보면 창업보육센터내에 입주하고 있는 게 사업자로서는 조금은 의지가 되고 다행이다 싶을 것 같아요. <사례 3>

이상은 본 사례조사에서 나타나는 보육과 지원에 대한 의존적 성향의 사례에 해당하나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이외에도 ‘지원’, ‘보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즉, 빈민차원에서 구제의 대상이나 복지 수혜자로서의 인식이 강하여 해당분야에서의 기업실적과 전문성이 폄하되는 경우를 지적하기도 한다.

(2) 비통합적인 지원시스템 : 제한적인 창업정보 지원서비스 체계

기본적으로 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창업지원 창구의 일원화 부족으로 인한 중복성, 통합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는 시스템의 부족으로 여성창업자들은 창업과정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어딜 지나가다가 그 팸플릿, 플랑 같은 것도 그냥 안 지나치는 성격이에요. 창업지원 저기(기관)도 그 때 한 번 보고 센터 찾아가서 문의를 한 것처럼 거기다 문의를 하면 다른 곳을 알려주고 다른 곳을 알려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례 7>

창업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창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몰라서 상공회의소를 직접 찾아갔었는데..... 상공회의소를 찾아가서 사업장을 내고 싶고, 사업자금을 지원받고 싶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봤더니, 이곳(희망창업소상공인지원센터)을 알려주었어요. <사례 13>

위 두 사례는 여성창업자들 어디서 어떻게 창업에 대해 상담을 받고, 정보를 얻

어, 어떠한 지원을 받아야 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창업이전에 창업에 필요한 정보접근성이 제한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 여성창업 인력관리 및 정책방향 부재

전라북도 내 여성취업기관에서는 창업에 관한 교육과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실제 창업에 성공한 사례도 누적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여성창업자에 대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각 기관에서 창업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전에 이들에 대한 정보파악도 부재하여 어떤 여성들이 어떤 창업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상담 없이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여성들이 얼마나 창업을 원하고, 이들이 창업을 원하는 분야는 무엇인지,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욕구파악이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다(김창연, 고선주, 2006).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 여성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여성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여성창업이 근본적으로 여성고용 증대효과를 가져오고 특히 기혼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이 어려운 노동환경을 고려하면 지역 적합형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라는 정책의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여성창업을 지원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북의 여성정책 가운데 여성창업의 중요성과 위상은 극히 미미하다 하겠다.

2. 여성창업지원시스템 내의 문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크게 공간지원, 상담 및 컨설팅, 자금지원, 판로지원, 창업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제 전라북도에서 지

원되고 있는 여성창업지원정책들이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지원정책의 비효율성

창업교육은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주위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원 정책 중 하나이며, 창업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아이템을 구체화하거나, 체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창업과정에서 받았던 창업교육이 대상자들로 하여금 실질적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어 주목된다. 창업교육 지원 정책을 둘러싼 비효율성 문제는 크게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홍보, 교육시간 관련한 문제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가. 교육과정(수준)의 문제

창업교육과정에서의 문제는 교육과정의 심도, 즉 기초과정에 그치는 교육과정이 많아서 심화과정을 통한 전문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조사결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례 7>의 경우에서 나타나듯이 창업교과목의 전문과정의 개설은 개별 기관의 전문 강사의 자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 교육으로 어떻게 창업을 할 수 있겠어요?<사례 1>

실질적으로 창업은 하고 있던 일을 연결해서 하려던 일이라 창업 자체의 교육은 센터가 도움이 되었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곳을 찾았던 이유는 제가 하고 있던 일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패턴 부분이, 작업이 이뤄지는 과정이나 작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미스 때부터 오랜 시절 해 온 일이라 괜찮은데 패턴작업이나 제가 일러스트 면에서는 많이 약했어요. 그런데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정말 한양대 의상학과를 장학생으로 졸업하셔서, 제가 그 분 만나서 이렇게 시골에서 제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실상 교육하는 시간보다 그 외 시간에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물어보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저는 그게 목적이어서 갔던 거죠. ...중략... 저희 이런 의상계통은 시간도 좀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하고 아! 시간만 투자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만 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어서, 근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경험하고 겪어 볼 수 있는 곳이 현재 없어요. <사례 7>

큰 도움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도움 받는 방향 정도는...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디를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와서도 창업하면 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 짧은 교육받고 다 창업할 수 없어요. 다만 창업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에다 물어보면 되겠구나 라는 정보는 얻었다<사례 13>

사실 강사님마다 말씀이 다 똑같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리이러한 부분은 조심하고, 이리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창업보육실에서 현재 운영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창업할 계획이 있는 사람을 위한 교육이지 현재 창업한 사람에게는 별로...<사례 16>

아주 도움이 안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그 프로그램이 내가 창업하는데 특별히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기존에 장사를 해봐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사례 15>

이상의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창업교육이 수요자 중심의 눈높이 수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창업교육은 창업 아이템에 관련된 기술개발에서 마케팅 교육뿐만이 아니라 입지, 세무 등 경영활동 관련된 법과 제도 등 전반적인 교육과 초기단계의 창업자, 경력 중심의 창업자 등 수요자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 내용을 구별하여 대상에 따른 수준별, 단계별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나. 이론중심의 교육내용 문제

창업교육은 창업기술교육과 창업일반이론 교육으로 구분되어져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기관에 따라 개별화 되어 있어서 교육내용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창업자의 경우 결혼 및 출산, 양육과 같은 사회적영역에서의 역할을 위해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자녀가 일정정도 성장 한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회복과 사업체운영마인드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면접대상자들은 창업과정 뿐만 아니라 창업과정에서 필요한 법, 제도, 성공 및 실패사례의 비교, 지속적으로 운영교육에 필요한 재교육과 심화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계속해서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컨설팅이나 교육 등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사례 1>
교육과정 자체가 샌드위치, 반찬 이런 것 즉, 창업에 관련된 거라든가 아이টে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 주변 영향력 미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교육을 해서 마음을 움직여서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면 좋을 거 같아요.<사례 10>

그리고 창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들을 연계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한두 성공사례만 알리기보다는 보편적인 정보를 알려줬으면 좋겠음. 또 지원금에 대한 교육도 구체적이지 않고 '수박 겉 핥기' 식으로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보다 세세하게 교육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사례 16>

(법률 및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을 받은 적은 없나?) 받은 적이 없죠. 그런데 법률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전 아동복 가게를 정리할 때 법률을 몰라서 크게 손해 본 적이 있어서.중략..... 여성은 남성에 비해 법률적인 부분에서 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법률 교육이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창업에 대한 법률뿐만 아니라 창업에서 폐업에 이르는 전반적인 법률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사례 16>

다. 교육 홍보 문제

실제 여성창업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터뷰 대상자들은 창업교육과정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수의 여성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내가 필요한 교육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기관에 따라 특색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창업교육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기도 하죠<사례1>.

창업교육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성취업을 도와주겠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그것을 보고 들어와서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현재 집에서 놓고 있는데,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여기서(여성인력개발센터) 배우는 것들이 무엇 무엇이 있느냐, 실제 창업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문의하던데요. <사례 16>.

일반적으로 여성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창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자체가 미진할 수 있다. 창업에 대한 홍보를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반 취업교육 대상자를 연계하거나 비경제활동 여성 중심으로 찾아가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자금지원과 판로지원의 한계

중소기업청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2007년도 여성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여성기업인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금조달(28.15)과 판로개척(18.1%)을 거론하고 있다.

심층인터뷰 대상자들도 창업과정에 있어서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금지원절차의 까다로움, 자금지원액의 확실성, 자금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의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판로지원이 있긴 하나 참여하는데 요구하는 절차가 까다롭다고 지적한 경우(<사례 1>, <사례 17>), 아이템이 좋아 박람회 등에 참석하지만 이벤트성(일회성)이 강하여 실질적으로 판로개척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사례 7>).

가. 자금 지원의 문제

창업과정에서 있어서 원활한 자금 확보는 사업성패의 관건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창업과정에서 가장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자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금지원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자금은 지원되는 자금의 총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자금지원 신청을 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대기하는 경우가 상당 수 있으며 자금지원을 받기위해 거쳐야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금지원 측면에 있어서도 사업의 규모 및 타당성과 상관없이 확실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㉔ 자금지원 절차에 있어서의 차별

실제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를 중심으로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자금지원에 절차에 있어서 성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남편을 연대 보증인으로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지원액도 남편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적게 받는다고 한다. 다음의 <사례 1>과 같이 남편의 보증을 원할 경우 남편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여성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과정에서 여성기업인이기 때문에 느낀 어려움은 없었는지?) 있었음. 대출받을 때 남편에 대한 신용조회를 다 해야 함. 남편이 보증인으로 들어가는 거 같음. 그 부분이 너무 싫었음. (그런 부분에서 남편이 직접 도와주었는지?) 도와주기는 해도 그런 말 한번 하기가 매우 힘들. 남자들은 그런 거 매우 싫어하고... 내가 왜 가야하냐고 하고...<사례 1>

여성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홍보도 안되어 있지만, 여성창업을 위해서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이혼녀 같은 여성가장. 여성만을 위한 지원은 창업자금지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 있으니 남편은 자연적으로 저에 대한 연대보증인인거야. 그러니까. 아무도움이 안 되는 거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 없다거나.

그래서 두 가지 서류가 다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것은 쉬워. 여성이 하는 경우 남편이 연대 보증인이기 때문에 서류가 두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지. 어려운 서류가 더 필요하다는 거고. 남편 하고 있으면 국민연금을 통해 많이 매출로 잡아. 연금자체를. 상당히 많이. 이중고야.<사례 6>

(창업할 때 여성이라서 느끼는 어려움은 없었는지?) 여자라서 창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창업하는 분야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그런데, 대출할 때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남자는 5천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여자는 1천만 원 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실제 경험이 있는지?) 네 있어요. 아동복가게를 할 때 제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깐 남편이 (대출)할 경우엔 재산세 납부 증명서가 있고 해서 5천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내 앞으로 하니깐 구비해야하는 서류도 많고, 남편이 보증도 서야하고 하는 이런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례 16>

이번에 창업자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두드려보려고 할 때 일단 여성이라고 상대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사례 7>

이상과 같은 사례는 근본적으로 모든 재산관계, 세금관계가 개인이 아닌 가구주

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남성이 가구주인 대부분의 가정에서 여성들의 재정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금 대출 과정에서 성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㉔ 복잡한 자금지원 절차 및 규정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률 및 제도, 세제관계, 서류관련 업무들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자금지원과정에서 요구하는 복잡한 서류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여성창업지원체계가 명확치 않은 경우 더욱 여실히 드러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 사례 2>의 경우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희망 창업교육을 이수하였는데, 이수 후 확인증을 받으면 바로 은행에서 대출이 되는 걸로 알았다고 한다. 즉 교육 후에도 처음 준비하는 서류준비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사례 15>의 경우 이미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상당한 불편을 겪었고, 은행에서 불필요한 서류를 너무 많이 요구한 것에 대한 불편함 감정을 호소하였다.

그것보다 제일 어려운건 대출받을 때였어요. 땅登記부터 해서 이것저것 내라는 게 많았어요.. 소상공인센터에서 바로해주면 쉽게 되는 줄 알았어요. 이미 제 신상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출받으러 가면 새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서류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이것저것 떼어오라는 게 너무 많았어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처음해보신건가요?)네.. 저는 서류에 대해서 특히나 잘 몰랐어요. 어디 가서 떼어야 하는지...그랬기 때문에 지원금 받을 때 제일 힘들었어요.(그런 정보들은 창업 교육내용에 없었나요?)네 없었어요.. 이렇게 어려울 거라는 것도 얘기도 없었어요. 그냥 수업 받으면 2000만원이 딱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사례 2>

몰라서도 못하고, 알려줘도 너무 복잡해. 실제적으로는... 서류자체가 담보대출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지.. 여성가장은 도움이 혜택이 같지 모르지만.. 저하고는 해당이 없어서 못했고.....중략.....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창업자들한테는 이자율이 싸다던가, 조그만 돈도 이천이나 삼천이든 무보증, 무담보로도 해주면 좋겠어요. 자금 지원을 좀 쉽게. 무조건 담보대출로 되다보니까 힘들어요<사례 6>.

자금 지원이 늦었다. 돈이 제일 급하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인테리어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는 상황에서 지원처에서 자금이 빨리 지원이 되어 인테리어를 하고, 물건도 가져다 놓고, 빨리빨리 해야 하는 데 돈이 안나 왔다. 너무 시간도 오래 걸렸다. 지원받기로 확정이 된 후 돈을 지원 받기까지 애를 많이 태웠다. 창업교육을 받고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이미 일을 저질러 놨는데 뒤에 지원을 못 받는다고 말하는 건 무책임한 거다.

그리고 은행권을 찾아갔을 때 처음에는 냉대를 했었다. 그곳에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서류를 떼어가지고 오라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 필요도 없는 서류들이었다. 그리고 이 기관에서 전북에 있는 기관들, 전북은행과 농협에서는 다 지원을 해주게끔 지시를 내렸다고 했는데 말이 틀려 화가 났었다.<사례 15>

㉔ 신규 창업 과정 중 자금지원 미흡

실제로 신규창업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홍보가 되지 않아 창업여성들이 이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신규여성창업의 경우 특정계층(모자가정)을 중심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희망창업 20, 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40, 50대 여성창업자의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재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창업 자체를 창업한지 3년, 5년, 7년 이내 기업으로 구분하여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신규창업자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즉, 기존 창업자로 어느 정도의 판매실적과, 세금, 기술력 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또한 지원되기 어렵다.

실제로 여성창업을 지원해주는 경우는 없어.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일단은 창업을 해서 그게 잘 되고 있으면 세금 낸 거에 비해서 해줄 수가 있지. 일단은 세금도 안내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지<사례 6>.

㉕ 획일적인 자금지원

희망창업의 경우 창업교육 대상자 자금지원이 2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자금은 창업 분야의 특성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지원된다. <사례 13>의 경우 지원방식을 보다 다양화하기를 기대하였다. 사업규모에 따라 자금규모를 더

늘리거나 낮추는 방식을 취하거나, 자금뿐만 아니라 공간지원 등의 지원방식의 다양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자금지원의 경우 무조건 2천만원 임. 작은 포장마차를 하건, 온라인 쇼핑몰을 하건, 보다 큰 사업을 하건 다 똑같이 2천만원을 지원함. 무조건 사업자등록증만 가져다주면... 내가 볼 때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을 달리 해주던가 아니면 우리같이 땅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1년간 무상으로 땅을 지원해주는 식의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사례 13>

㉞ 한정된 자금으로 인하여 조기종료되는 자금지원

희망창업의 경우 지원자는 많으나 실제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6>과 <사례 11>은 한정된 자금으로 인해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원활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오랜 기간 대기해야 하는 경우이다. 온전히 홍보가 안 되어 필요한 시점에서 원활한 자금을 받지 못하고, 조기 종료되어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다. 자금이 상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연 2회(2008년 경우)로 지원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점에서 지원신청을 빨리 해야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희망창업 대출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금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대출을 받으러 갈 땐 이미 대출이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올 7월에 하반기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때를 보고 있어요.<사례 10>

새마을금고 하나에서만 대출을 했는데, 절로 어려운 것은 여성창업인들을 위해서 저리로 창업자금 좀 해줬으면 좋겠더라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소상공지원센터를 갔는데 벌써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7월에 또 있다고 하는데, 자금이 한정되어 있어서 서둘러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사례 11>

㉞ 자금지원정책의 홍보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은 결국 홍보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나타난다. 홍보는 대상자들의 제도 접근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여성창업자들은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한 자금대출과 심지어 사채를 쓴 경우도 있었다.

(창업 당시 자금은 어느 정도였나?) 약 3억 정도. 처음에는 개인 shop을 시작해서 인테리어 비용, 인건비 등이 2억, 재료비 1억 정도. 그 중 집담보 대출 및 사채가 2억 정도이었음(외부에서 지원받은 자금이 있었나?) 전혀 없었음. 그때는 전혀 자금지원에 대해 몰랐음<사례 1>

여성창업을 도와준다는 (핸드폰) 메시지 같은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여성창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서류를 내서 따내는 것 있잖아요..(수의계약 같은 거) 그럴 때는 가산점을 주나봐. 그러나 나는 해당사항이 없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은 것은 없고.. 홍보자체도 안되어 있고. 여성들이 뭘 한다는 생각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가 많지.<사례 6>

주부들이 거기까지 알아내는 과정도 정말 복잡해요. 그것까지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금액이 돈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더 어렵겠지만 어디 어디 가서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것조차도 홍보도 안 되어있고, 아는 사람 입에서 아는 사람 입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한 군데 두드려서 거기서 또 한 다리 건너가고 이런 식으로더라고요.<사례 7>

받기도 힘들더라고요. 상공회의소라든가, 저는 그 전에 여성문화회관에서 교육받으면서 잠깐 지나가면서 봤던 글귀가 있었는데 뭐냐면, 창업자금을 지원해준다고 그래서 갔더니, 그게 뭐 일 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어떤 그 거기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뭐 케이스가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센터장님의 훌륭한 로비 중에 이렇게 한 건 두 건 케이스였는데 그 때 저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었어요. 그런 쪽에 그런 게 있나 그랬으면 참 좋겠다.<사례 7>

나. 판로지원의 문제

기업 생산품의 원활한 판매처를 확보하는 것은 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판로지원이 필요하다. 전라북도의 경우 박람회, Buy 전북, 다양한 판로지원정책을 통해 기업의 생산품 판매를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사례 1>. 실제 박람회에 참여해

도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사례 7>. 또한 전국단위의 여성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분야별 지역예선을 거쳐 대회에 나가게 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지원은 있었는지?) 있었다. 2007년 전북도청 행사마케팅 인도, 방글라데시아의 “서남아시아 시장 개척단”에서 했었다. (마케팅 지원의 만족도는 어떠했나?)만족했다. 그런데 서류가 너무 복잡했음. 현재도 Buy전북에서 홍보를 해준다고 하는데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안하고 있다.<사례 1>

(공공부문에서 마케팅 지원하는 참여해보신 적 있으세요?)저는 참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참여를 할러 다 보면 그런 절차들이 너무나 복잡해요. 오히려 자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 이걸 판매하면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단체로 해주면 부드러운 선에서 해주면 좋은데... 그냥 우리끼리 페스티벌 하나 하는게 더 편하죠.<사례 17>

이번에 도청에서 벤처기업 박람회를 했었는데요. 확산재염색으로 해서 나갔는데 그런데도 좀 실무자들이 정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당사자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는데 그날 아이들의 체험이나 행사로 끝나버린다는 거 그런 게 안타까웠어요. 도청이벤트가 그런 건데 실무자들은 거의 안오고 뭔가 기대를 하는데 딱 끝나는 날 되면 서운하고 씁쓸하고 그러죠.<사례 7>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여성창업경진대회가 있는데 지역에서 예심을 하고 본선으로 올라감. 가서 보니까 심지어 프리젠테이션 하는 방법이나 ppt자료까지도 그 지역 유관기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을 보았음. 그러다 보니 그렇게 지원받은 쪽에서 1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음. 즉 우리 전라북도의 창업지원에 있어 질적인 부분에서의 지원 수준은 낮다고 생각함<사례 1>

그러나 이러한 판로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사업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홍보전략을 세우거나 자연스러운 입소문만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 10>의 경우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샌드위치 점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판촉의 필요성이 있으나, 입소문에 의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침 개업당시가 대통령 선거 때라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어서 게릴라 현수막을 많이 걸었어요. 현수막이 통제가 안되는 상황이어서 그 상황을 잘 이용했어요. 불법이었는데. 요즘은 전단지나 불법이란 책자를 이용하고 입소문에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가격도 아직까지 인상하지 않고.<사례 10>

내가 알아내는 저기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인맥, 인맥, 인맥, 90이 넘죠. 물어 물어 찾아 가는 인맥인거죠.<사례 7>

(3) 전문컨설팅 및 멘토링 체계부재

창업과정에서 컨설팅은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의 문제, 각종 상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창업관련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기업들이 기존 사업체들과 연계되어 자문을 실질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인터뷰 결과 깊이 있는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멘토링 프로그램 역시 멘티들이 전문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게 지금 컨설턴트보다 제 분야는 제가 더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컨설팅한다고 그러면 “재무표는 쓰 나요?” 이런 것이 컨설팅 수준의 한계더라구요. 이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컨설팅을 하시는게 아니니까. 두루 다 아시는 분이 컨설팅을 하러 오시니까, 틀에 박힌 얘기만 하고, 이벤트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주는 그런 컨설팅이 아니기 때문에 수박겉핥기로 해주는 거죠.<사례 17>

(일종의 컨설팅이었잖아요..도움이 됐는지?)개인적으로 도움이 안됐어요. 참 참담한 현실만 알고 왔어요. 괜히 갔다는 생각했어요..그래도 얘기는 잘 해주셨어요.<사례 2>

(상담받으신 게 도움이 되시던가요?)안된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돼요. 틀만 알고 있는 거지 세세한건 알지 못하니까요. 그냥 겉핥기식의 상담이죠.<사례 17>

(상담이나 컨설팅을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적이 있는지?)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중소기업청, 창업지원 센터, 여경협에서 실시하는 창업멘토링 등. (혹시 창업상담이나 컨설팅 부분에서 만족도가 낮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여경협에서 실시하는 창업멘토링은 많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함. 창업멘토링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음. 멘토링을 한다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 제조업분야 인데 건설업을 하고 계신 분을 멘토로 연결해 주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음. 물론 사업경영이나 다른 부분에서 멘토 역할을 해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업자체가 다르니 도움이 전혀 안되었어요. 차라리 안 하는게 낫다고 생각해요..

제가 상담을 해주죠. 멘토링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제가 사업체 운영하시면서 저를 전문 멘토링 해 줄 사람이 없죠.<사례 17>

여성창업자들의 욕구를 해결해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컨설팅으로 대상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성창업자들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담과 조언이 현재의 컨설팅 방식에서 보다 실효성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4) 창업지원정책의 제한적인 제도접근성 - 사적 네트워크 중심의 정보 접근

여성창업자들의 경우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접근이 대체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이웃, 친척, 지인 등)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러한 결과는 실질적으로 정책지원의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원내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아는 언니가 얘기해줘서 그 언니 사촌언니가 창업지원센터에 있다고 해서 (희망창업교육) 바로 마감전날 서류냈죠.<사례 2>

내가 직접 뛰었다. 전혀 몰랐다. 나중에 창업컨설팅 같은 거 받을 때 알게 되었고, 원래 창업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다.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라서 못받았다.<사례 3>

내가 알아내는 저기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인맥, 인맥, 인맥, 90이 넘죠. 물어물어 찾아가는 인맥인거죠.<사례 7>

대인관계에서도 하지만, 요즘은 각 청에 클릭해서 들어가보거나, 머 하면, 원체, 기관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스스로 정보를 주기도 하고, 제가, 먼저 알기도 하고 그렇죠.<사례 8>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거 같아요. 직접 운영을 하시는 분 이라든가 친구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저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먼저 오픈을 해서 어려운 점에 대한 얘기도 듣고. ...중략... 애들 대학도 가르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몇 천만 원은 큰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신 분들이 가장 큰 도움이 됐던거 같아요.<사례 10>

희망창업대출이란 것을 선배님이 알아보시고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원하게 됐고 교육 받게 됐어요.<사례 12>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알게 되었나?)친구를 통해 듣게 되었다.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우연히 그러한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친구의 권유로 같이 등록하게 되었다<사례 15>.

원래 웹서핑 좋아해요. 시청도청, 관공서 사이트는 하루에 한번 씩 꼬박꼬박 가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되요.<사례 17>

실제 분석대상 17명 중 개인적인 인맥의 도움이 40%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2사례에 이르고 있어 정책대상자들의 정보접근성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문제

심층인터뷰에 응했던 여성들은 창업과정에 있어서 거쳐야할 사업체 등록 및 각종 검사에 대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복잡한 과정,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가 많아 창업 및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등록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한 지원과 더불어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처음 개인사업자등록은 서류가 많지 않았는데 법인으로 변경할 때 서류도 많고 복잡했음. 법무사에게 맡기면 되는걸 알지만 사용료가 부담되어서 직접 site찾아보면서 했었음. 그런데 현재 처음 시작할 때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했는데 퇴사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아직 못하고 있음. 전문 용어도 많고...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음. 현재 법률사무소에 맡길지, 그것도 한번 직접 해볼지 고민하고 있음. 지원을 할 경우나 하다못해 사업계획서를 하나 작성할 때에도 서류를 작성해야하니깐 그 부분이 어려움이 많이 있음.<사례 1>

서류준비하는게 여자라서 힘들었어요.. 정말 경험 많이 해봐야 겠더라구요.. 학원등록하면서도 소방서에 검사받고, 그런게 많아요. 등록할때도 검사받고.. 관공소와 얽히는게 어려워요...<사례 2>

공장등록이 힘들어요. 공장이라고 하는것은 여자들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가.. 무슨 업무 프로세스가 너무 많은거야. 검사받을게 10가지야. 그것도 죽겠어. 실제로.. 위생과에서 와서 요구하지.. 서류만해도 엄청나요. 서류정리하려면 영세업이 아니면 사무직을 하나 뽑아야하는데 영세한 업체에서 사무직까지 뽑아서 어떻게 운영하느냐는거지... 우리가 해야지..그런 잡무가 엄청많아. 우리가

담당자들을 만나면 (서류를) 좀 줄여달라고 하지. 반절이라도. 줄여달라고.<사례 6>
지금은 저희가 규제같은 것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고, 홈쇼핑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늦어지고 있어요. 요구하는 조건도 많고.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좋아지긴 하겠지만...<사례 14>

(6) 사업자 등록에 따르는 문제

여성인력개발원의 창업보육실 입주업체의 지원기간은 현재 자체적으로 6개월을 기간제한 하고, 6개월을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기간이긴 하지만, 엄연히 창업한 사업체이고 생산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체 등록을 통해 생산품의 원활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창업보육실은 <사례5>와 같이 창업교육 이후 공동으로 창업을 한 경우도 있다. 이때 사업자 등록을 그중 한사람으로 할 때 발생하게 되는 추가부담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그럼 여기는 사업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요. 아직 안 돼 있어요. 원래 내야 하는데.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제 가게를 낸다고 하면 그 때 사업체 등록을 내야하겠죠. 여기는 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니까. 어느 누가 대표라고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또 있잖아요. 의료보험이나 이런 게 더 나오니까. 그건 못하고 있는 거죠.<사례 5>

(사업자등록을 안한 상태면 소비자들이 구매 시 카드결제 같은 다양한 지불방식을 요구할 텐데 어떻게 대응하시는지?)그렇지 않아도 홈페이지가 고가이기 때문에 할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창업보육실로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서 카드결제를 하고 싶으면 여기(여성인력개발센터)에 와서 결제를 하라고 함. 그래서 실은 핸드폰도 PDA로 바꿨는데 승인하려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지 아직까지는 별 말씀이 없어요.

(그렇다면 가게 내에 카드결제 시스템이 필요할거 같은데...) 매우 필요하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카드결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그것도 가능하다고 해요..그래서 이제는 몇 번 건의를 해도 안되니까 아예 포기를 하고 손님하게 먼저 우리는 현금결제만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일을 하죠.<사례 16>

카드 활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이 보편화 되어있는 사회 변화에 기존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3. 경제활동 환경의 문제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난 여성경제활동 환경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남성 친화적인 시장에서의 구조적인 차별, 둘째, 여성창업자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세 번째, 여성창업에 제한적인 전라북도의 환경이다.

(1) 남성친화적인 시장의 구조적인 차별

심층면접 대상자들이 경험한 남성친화적인 시장에서의 구조적인 차별은 만연된 성차별 의식으로 인해 여성이라는 이유 자체로 차별을 경험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자금지원에서의 성차별을 제외하고, <사례 12>와 <사례 17>의 경우 여성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구조적인 차별을 경험한 사례이다. <사례 12>는 원자재 납품을 받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가격을 차별적으로 제시받은 경험을 이야기 한다. 남성이 연락했을 경우에 비해 본인이 연락했을 경우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직접 발로 뛰면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사례 17>의 경우 유사한 사업계획서를 들고 갔을 때 남성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고 본인은 계약이 부결된 경험을 하였다고 한다. 즉, 전문성,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 보다는 여성이 사업계획서를 들고 갔을 때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이야기 하였다.

편견은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해소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지역에 이런 여성이 창업하고 있다는 것만 인식만 해 줘도 좋겠다. 제가 연락해서 물건을 받는 것과 남자가 연락해서 물건을 받는 가격이 달라진다니깐요. 여자라서 그렇게 차별을 하는 거 같아요. <사례 12>

그냥 여자이기 때문에 불리한거죠. 못 믿는거죠, 일단은. 여자가 큰 행사를 처리할 수 있겠어? 특히나 제일 문제가 관공서가 문제예요. 관공서는 절대로 여자들에게 큰 행사를 맡기지 않아요. 백이면 백. 진짜. 뚝기도 어렵거니와. 여자들이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아예 덤벼들지도 않지만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많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벤트 행사라는 건 모든 일이 사회, 레크레

이선, 음향, 기획, 스텝 따로 들어가요. 제가 기획이라면 음향 기계를 다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제가 기획을 하게 되면 안되는 거예요. 똑같은 음향팀이 들어가면 그건 되요. 그게 벌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기획안을 들고 가도 우리 팀에서 저만 안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넷에서 합동으로 조금씩만 바꿔서 만들어가도.(기획하고 조직화하는 일에서는 여성들이 배제되는건가요?) 그렇죠. 아예 들어가면 “서류를 놓고가세요.” 그래요. 저는 놓고 가세요 하는 거 자체는 안되는 거잖아요. 기획서까지 들고와버려요. 그건 사실이에요. 견적을 에이 비 씨 디 해서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안되더라구요.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차별받는 게 우리 전라북도 가 더 심할까요?) 대체로 똑같겠죠. 그런데 전라북도가 유독 더 하는거 같아요.

한편, <사례 9>의 경우 다음으로 동일한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을 위해 남성들과의 협력을 요구 했을 때,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이야기 하였다.

제가 전국을 조합차원에서 일 년에 8번 정도 만나는데 다 남성분이고 여성분이 3명 정도 회의에 참석하는 데 대부분 보면 그 중 2명은 서방님하고 병행을 하니까 저만큼 힘든 것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몇 분 사장님들 보고 ‘제가 영업할 테니까 합치자. 농공단지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전복의 일만 안 뺏겨도 상당한 매출이다.’ 그런데 남성분들이 그것을 안 따라와 주세요. (왜 그런 건가요?) 그 자기 영역을 차지한다고 그러나, 저는 오픈하거든요. 같은 업계니까. 뭉치면 상당한 힘이 있을 텐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사례 9>

또한 여성사업체인긴 하나 부부가 같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젠더화 된 성역할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은 대외적인 업무를 배우자인 여성은 인력관리, 전화 받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사실은 대외적인 일은 다 남편이 봐요. 실제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줌마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부드럽지. 남자가 관리 하는 것 보다. 그런 건 내가 하고. 업무나 사무 같은 건 제가 그런 일을 안했기 때문에 남자만 하겠어요? 세심한 거. 서비스하는 거, 전화 받는 거 그런 건 제가하죠.(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세금관리하고 정보를 알아보고 하는 것은 주로 남편분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기도 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사례 6>

(2)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

창업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은 일-

가족 양립의 문제이다. 즉, 배우자 및 대체자원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양육(돌봄) 및 가사활동과 경제활동을 겸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심층인터뷰에 응한 여성창업자들 중 창업당시 자녀가 성인이었거나, 대체자원(친정어머니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3>과 <사례 7>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업종을 바꾸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야간에 활동해야 하는 일을 그만두고 저녁시간에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전업한 경우<사례 13>, 사업체 규모를 축소하여 자녀양육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사례 7>.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 근데 저는 지금 현재는 아내의 역할은 안해요. 아이들만 데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보다도 어려운 건 실제 서방님과 함께 사는 맞벌이 부부들이 더 힘들겠죠. <사례 8>

(사업을 운영하기까지 가사나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면?)선불리 시작을 못한 것은 아이들이 어려서였는데, 창업한지가 10개월 정도 되가요. 큰애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둘이 식사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게 되었죠. 애들이 커가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아이들끼리 식사도 하고, 저녁에도 둘이 있어도 되고. 큰애가 중학생, 둘째는 5학년.(일과 가사를 병행하기가 어떤가요?)너무 힘들다. 왜냐면 아이들 돌볼 시간이 없다. 8시에 끝나더라도 집에 가면 8시 40분. 그때가면 아이들에게 잔소리가 많이 나오죠.<사례 13>

낮 시간에 일하고 밤 시간엔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우선적으로 고민했었음. (현재 셋째가 17개월이면, 그 위에 아이들도 어린데 창업당시 일-가정 양육의 어려움은 없었는지?) 있었음. 현재 큰애가 7살, 둘째가 6살임. 창업당시에는 모두 어린이집에 보냈음 (셋째아이는 매우 어린데, 어떻게 했는지?) 2개월부터 놀이방에 보냈음<사례 13>

한편, 창업준비하면서 공부를 시작한 <사례 14>의 경우 연구에 몰입하다 자녀를 잃은 큰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자녀를 충분히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우울을 경험하기도 하였다고 이야기 하면서, 믿을 수 있는 자녀 양육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일하시면서 애도 키워야 하고, 집안일도 하시는 어려움들을 겪으시지는 않았어요?)어려움이 매우 많죠.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 이 공부를 하다가 아이를 하나 잃었어요. 제가 연구라는 것이 날을 새워

가면서 하다보니까 제가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둘째딸이 제가 가장 바쁠 때 2001년도에 고 3이었는데, 새벽에 가서 밤에 오니까 대화할 시간도 없고, 애가 시름시름 아프지만 고3병인 줄만 알았죠. 근데 둘째아이가 수능시험보고 일주일 만에 쓰러졌어요. 주부가 일과 가정, 사회와 가정을 병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학문연구라는 것이 이쪽 길을 가다보면 한쪽을 잃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이 항상 마음이 걸리고, 아파요. <사례 14>

저는 육아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학교에서 연구하다보면 늦어지고 해서 그래서 막내아들이 아토피가 되었어요. 시켜먹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을 고생을 시켰어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일을 하는데 아이만 믿고 맡아줄 곳이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주부가 공부하고 일을 하는데, 아이만 좀 믿고 봐줄 그런 곳만 있다면 정말 좋다는. 그게 없어서 힘들었어요.. 믿고, 내 자식처럼 봐줄 곳이 있다면 좋죠.. 육아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사례 14>

한편, <사례 17>은 성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내면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여성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충분히 키워놓고 노동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자녀 양육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들은 여성들의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경제활동에 부정적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잘 지원해주던가 애들을 좀 키워놓고, 3,4학년 때 까지 키워놓고 나와야지. 그런 거는 확실하게 맞아요. 그게 해결 안 되면 안돼요.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저는 오너잖아요. 오너하고 직원하고 차이는 저는 애가 아파도 오늘 행사는 가야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인데, 제가 교통사고를 나도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행사에 갈 때는 운전하고 멀리 갈 때는 전날 가던가, 9시인데 6시부터 가있고, 행사가 있으면 긴장을 하죠. 행사를 망치면 안 되니까. 애가 어리고 정리가 안 되면 불가능해요.<사례 17>

한편, 창업여성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일-가정 양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성창업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수단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경력 단절 여성이 취업이 어렵기도 하지만, 취업을 한다 해도 자유로운 시간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창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 3>은 초등학교생인 자녀의 방과 후 양육문제에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창업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사례 6>은 자녀들이 엄마가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자녀 양육에 소홀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모성을 적극적으로 내면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7>은 상권과는

상관없이 자녀 양육을 위해 집근처로 이사를 하여 일과 양육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사례 16>은 단호하게 일과 가정을 원활하게 양립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가능한 홈패션을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여성들에게 창업은 일-가정 양립의 수단으로 직장생활의 대체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여성창업자들에게 일-가정 양립은 상당한 이중부담으로 작용하며, 실제 <사례 17>과 같이 사업에 전념을 하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음이 지적되기도 한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를 저녁 6~7시까지 봐주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다니기가 수월했다. 아이가 점점 커갈 수록 창업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이가 학교를 다니게 되면 집에 일찍 오게 되고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해 계속 고민을 하던 중이었다. <사례 3> 힘들다. 지치기도 하고.. 하루쯤은 나만을 위해서 쉬고 싶지만, 일은 내가 가져가야할 부분이고, 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사례 3>

일하면서 돈을 번만큼 아이들이 방치가 되었다면, 그건 돈을 번 것이 아닙니다. 돈을 더 투자해도 성향이든지 이런 거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게 제 철학입니다. 실질적으로 애들을 옆에 두고 계속 수시로 왔다갔다 했어요. 애들이 엄마가 일을 하는 여성인지 모를 만큼. 수시로. 가게를 집에 가까운 곳에 두고 했어요. 여기로 이사 와서는 출퇴근이 너무 먼 거야. 그러니까 항~상 걸려요. 7시에 퇴근해서 그때서야 밥을 먹어요. 그런 것이 그래서 맘에 걸려서 이사를 와야겠다 한동안 생각했어요. 심했어요. 힘들고.<사례 6>

(막내가 몇 살인가요?)19개월이요. 그 전에는 직장 생활하다가 이 애기 때문에 가까운 데로 옮기고 규모가 작은 소품들로 바꾼 거죠. 창업을 하기 전에 아이는 없었고, 작업하던 중에 남문시장에서 조금 규모를 가지고 해 보려고 하다가 축소해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방과 후에 어떻게 보내나요?) 그래서 제가 집이 바로 여기 근처인거죠. 골목인데도 이곳으로 이사 온 것은 아이들이 수시로 학교 갔다 오는 것을 봐줘야, 전화로는 들어왔지? 학원가라, 공부해라 이게 전화로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고 숙제도 여기(가게)에서 직접 시키고.<사례 7>

(아이를 키우면서 현재 일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아님(단호하게!).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음. 틀에 맞추어진 시간, 출퇴근 시간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엄마들이 창업이나 부업을 생각하게 됨. 큰 아이는 초등학교5학년, 작은 아이는 6살이라서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임. 그래서 출퇴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홈패션을 배웠는데, 이것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가 유치원 갔다 오면 엄마가 받을 수 있고, 짬을 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하게 되었음<사례 16>

(일하시면서 양육하는 일, 가사일 하는 일 어려움은 없으셨어요?)없었어요. 대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식당을 하면 애들을 학원갔다 오면 볼 수 있고, 먹여서 학원 보낼수 있고 해서 검사검사 해서 식당을 한 거예요. 애들이 조금 자기 손으로 먹을 수 있고, 그럴 때 제가 바로 나온 거죠. 바로 생각을 바꿔서. 일 년 동안 있으면서 생각을 했죠. 육아문제는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요즘이나 어렵죠. 당연히 어렵겠죠. 어느 정도 엄마 손을 떠나서 혼자서 간식이라도 먹을 수 있을 나이가 되어야 엄마들이 일을 생각해 보지 않을 까..(그럼 그때 친정어머니가 좀 돌봐 주신건가요?)네. <사례 17>

특히 여성창업자의 경우 돌봄을 공유 할 대체자원이 있는 경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다. <사례 1>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힘들었고,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돌봄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나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현재는 친정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계신다고 한다. 한편, <사례 13>의 경우 다른 사례와는 달리 가족이 대체자원으로서 역할을 하기보다, 자녀양육을 강요함으로써 일, 가정 양립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사례 13>은 자녀가 매우 어릴 때부터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창업에 열중하였고, 이렇게 대체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 일과 양육의 부담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업당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있었나?) 매우 어려웠음. 처음에는 일도 잘하고 아이들 양육도 잘하려고 매우 노력했으나 돌 다를 잘할 수는 없었음. 그래서 '내가 보통 엄마들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잘 키우기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아이들이 크면 이해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음. 현재도 양육은 계속해서 어려운 부분임.(창업당시 일을 할 때 아이들은 누가 돌봐줬는지?) 창업 전에는 남편 일을 도와주고 하니까 친정어머니가 키워주셨는데, 2003년도에 돌아가시고, 창업당시에는 유치원에 다녔음 <사례 1>

(가족 중에 돌봐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는지?) 없었음. 기대도 안함. 왜냐하면 도와달라고 하면 여자가 어린 것 떼어놓고 무슨 일을 하냐고, 벌면 얼마나 버냐고 함. 그래서 여자들이 일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육아라고 생각함.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사회복지쪽에서 보육료 지원을 받아서 유치원비를 부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음. 그리고 셋째아이 같은 경우엔 셋째아 지원이라고 해서 따로 추가비용 없이 보육료를 전체 지원받고 있음. 그것이 큰 도움이 됨. 첫째아, 둘째아는 추가비용을 냈었음. 추가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경비가 힘들었었음(웃음)<사례 13>

(3) 여성창업에 제한적인 전라북도의 환경

심층면접 대상자들에게 전라북도가 여성들이 창업하여 경제활동하기 위한 환경으로 어떠한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직종에 따라 여성창업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환경이라고 평가한 경우도 있었으나(<사례 4>, <사례 14>), 대체로 구체적인 이유를 들지는 못하지만 불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그 중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전라북도의 여성창업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를 살펴해보도록 하자.

<사례 2>는 여성들의 창업분야 중 문화분야, 공예사업이 상당히 있는데, 전통문화도시임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정도를 체감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례 3>의 경우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여성경제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례 7>은 타시도와의 비교를 통해 전라북도가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함을 지적하였으며, <사례 16>은 소비도시인 전라북도(군산) 이긴 하지만, 수요가 감소되어 타시도로의 이전을 생각하기도 하였다.

(전라북도가 여성들이 창업하는데 유리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닌 거 같아요. 여자들이 사업을 하려면 거의 문화사업 인데.. 주로 문화 공예사업이예요. 근데 말이 전통문화지.. 전주쪽. 별로 발전이 안돼있어요. 공연, 전시문화가 발전이 안돼서 엄마들이 하기는 힘들다.<사례 2>

어렵다고 생각한다. 창업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는 여성들이 직장생활 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제일 월급이 낮은 곳이 전라북도이다. 남자들도 월급이 낮지만, 여성들은 더 낮다. 창업에 있어서 여성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분야는 몸으로 때우는 분야밖에 없다. 식당이나 십자수 등 다 몸으로 때우는 곳이다. 힘든 것 같다. 쉬운 게 아니다. <사례 3>

(전라북도가 타 지역에 비해 여성창업에 있어 유리한 것 같으신가요? 불리한 것 같으신가요?)

제가 여러 곳에 안 있어봐서 잘 모르구요. 제가 제주도에서 9년 정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여성에 대한 지원도 많고요. 여성들이 생계를 책임지는 지역특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들이 사회활동 하는 부분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보고, 그런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안 그래요. 섬하고 육지, 제주도와 육지에 차이인 것 같아요. <사례 7>

(전라북도가 창업을 하기에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하는지? 유리한지? 불리한지?) 만약 창업을 하면 대전이나 청주로 가고 싶음. 예전에는 군산이 소비도시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열악해요. 제 주위에서 창업을 해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분이 한명도 없을 정도로... 창업을 하면 군산에서는 안하고 싶어요.(구체적으로 불리한 환경이라는 것이 전라북도의 경제여건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창업을 해서 운영 하는데 지원이 부족해서인지?) 창업교육이나 지원은 대부분 다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창업을 했는데 수요가 없으면 망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길이 뚫리고 나서 사람들이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전주나 대전으로 가는 실정이거든요. 군산에서는 소비가 매우 낮은 실정이죠. 대전이나 청주는 그만큼 공급하는 업체가 많지 않겠냐 하지만 그것은 내 바느질 솜씨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례 16>

제 5 장

JDI

정책제언: 지원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 절 여성창업정책지원 효과 및 평가

제 2 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3 절 창업정책 방향 및 각 기관 협력방안

제 5 장 정책제언: 지원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 절 여성창업정책지원 효과 및 평가

1. 여성창업 지원방식은 주로 직접지원에 의존, 창업효과 낮음 : 직간접지원의 혼합정책으로 유도

여성창업지원정책의 성과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제 3장의 소결에서 제시한 <표3-41>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창업정책의 사업성과와 전라북도 지원을 받는 창업정책의 사업성과를 분류한 것이다.

사업성과에 있어서는 각 업체의 매출액과 고용성과를 기준으로 창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와 전북의 GRDP의 점유율을 비교분석을 통하여 창업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각 해당업체의 자료가 연도별로 일괄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있고 창업업체의 지원액에 있어서 각 업체 간의 차등지원으로 인한 정보공개의 어려움 등이 있어 자료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업체의 생존율과 고용증가 추이 등의 양적성과와 심층면접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경영성과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창업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창업의 성과를 지원자금의 확대, 고용창출 효과, 매출액 증가, 창업에서의 성공률의 추이라는 관점에서 보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우선 정부지원의 여성창업정책은 효과성이 아주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창업자금지원은 연도별로 소폭씩 증가하였으나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알 수 없고 지원금의 대부분이 창업교육 지원으로 그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근본적으로 지원 대상에 있어 모자가정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들은 뚜렷한 창업 동기나 의지 등이 부족하고 업종분석이나 기술교육 등이 전문성을 띄지 못하고 있어 창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도 결과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창업에 있어서 여성창업의 비중도 커지고 있으나 여성창업지원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희망창업”이나 “전북창업 및 경쟁력 강화” 등의 시책은 창업인들에게 호응정도도 좋지만 창업지원 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시책이 단순히 점포임대에 따른 직접 자금지원 보다는 5단계 패키지와 같은 직간접 정책이 혼합되어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시장분석이나 직종분석, 창업에 따른 각종 법률 등 창업에 관한 전반적인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창업이 많다. 따라서 창업준비 단계에서부터 창업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상담, 컨설팅, 교육, 자금지원 등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업지원 정책이 일단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5단계 패키지와 같은 직간접 지원정책은 창업이후의 사후관리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성공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되고 있다.

2. 여성창업의 생존율과 업종선정은 상관관계 높음

기존의 여성창업 업종은 주로 음식과 도소매 등의 부가가치가 낮은 소규모 영세성의 서비스 업종이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여성경제인협회의 창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서비스업종에서 IT나 방송, 디자인, 지역연고산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의 업종지원정책이 추가되면서 폐업률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작한 시간이 너무 짧아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는 “희망창업”의 경우, 여성들의 참여가 늘고 있는 점뿐만이 아니라 업종변화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희망창업의 경우 젊은 청년층의 창업을 유도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업종선정에 있어서도 기존과는 다른 차이가 엿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창업의 경우에는 업종선종이 기업의 생존율은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계형 창업지원과는 다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 친화적인 업종과 현재 시장의 동향 등을 파악하고 예측하여 창업에 적절한 업종 및 아이템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훈련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의 연고산업 가운데에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여성우대에 관한 여러 가지 혜택 등이 주어지고 있어 이 분야에서의 정책적 지원과 우대가 최근 증

가하고 있다. 따라서 연고산업 분야에서의 여성친화적인 업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시장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최근 산업구조의 재편이 추진되는 가운데 고부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식품, 자동차부품, 미생물 산업 등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이 분야로의 여성들의 참여와 진출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시장의 동향과 추이 등을 분석하여 여성창업자에게 맞는 업종과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 권장할 필요가 있다.

3. 여성창업보육센터의 기능취약 : 여성BI보다 대학BI지원의 창업효과가 지속적·안정적

심층면접조사결과에 의하면, 대학의 BI센터가 여성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올리고 있다고 보여 진다. 우선 대학의 BI는 산학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접근성이 유리하고 매칭기술개발 효과도 크다. 반면 여성관련 기관 예를 들면 여성경제인협회가 지원하는 여성BI는 기술개발이나 경영관련 정보 및 기술을 습득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전문화된 자문도 받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심층면접의 사례조사 결과에서 보면 여성창업지원센터는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초기의 점포임대에 따른 정책수혜를 받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경영과 기술개발 등에 의한 수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여성창업보육센터가 작업공간의 제공과 초보적인 수준의 교육훈련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다는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21세기 성장산업 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여성창업자를 중심으로 해당 분야의 대학 전문인들과의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각 대학의 BI에는 BI전문매니저 등이 상주하고 있어 여성창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돕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학의 BI를 통한 창업지원을 체계적으로 받는 것이 여성창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다만 아쉬운 점은 대학의 BI에서는 지적재산권과 특허권 등을 해당 대학이 소유하고 있어 여성창업인의 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의 보조적인 방법을 통하여 여성창업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여성창업정책은 보호위주의 소극적 지원 수준 : 생존력 및 경쟁력 강화위주의 정책지향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창업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 여성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여성기술인력에 대한 창업자금지원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미용사, 조리사 등 단순 업종에서 창업하는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비중이 높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여성들이 창업하는 업종이 전통적으로 여성집중적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여성창업기반구축 지원정책의 하나인 여성창업보육센터의 경우도 사무실 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창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보호정책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여성창업기업의 생존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지원정책들은 기존의 생계형 중심의 창업지원 정책에서 현재 여성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 되어야 하며 창업업종 지원에 있어서는 미래형 선도기술 분야에서의 창업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의 창업지원보다는 여성 전문인력 집단이 새로운 창업기회를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기업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지원을 늘려나가야 한다.

제 2 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전북지역 여성창업지원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창업지원 기반구축의 문제와 여성창업지원시스템 내의 문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우리 전북지역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책지원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 진다.

창업지원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금까지의 정책성과와 심층면접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5-1>과 같다.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창업이후의 사후관리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 창업지원 단계별 문제점개선방안

각 지원 단계별문제	내용	개선 및 발전방안
<p>지원 체계 문제점 및 개선 방안</p>	<p>1) 교육 및 상담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초기의 기술중심의 교육: 일률적이고 획일적임 - 교육과 창업의 연계성 부족 : 기술중심의 초기교육→전문화된 단계별 심화교육 부재 - 사전준비단계 철저인지 및 정보부족 등의 문제: 업종선정, 입지선정, 직업의 식 고양 등에 관한 준비부족 <p>2) 창업정보의 제한 및 접근성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관련 정보 및 기관에 대한 정보부재 - 여성창업지원의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p>3) 창업지원서비스 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아이템, 시장분석, 정책적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필요 -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존하기보다는 강사나 개별센터의 역량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 - 창업준비 →취업연계 → 창업후의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의 부재 <p>4) 예비창업자를 위한 사전교육 미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주체자의 창업과 정책지원에 대한 인식부족: 교육과 지원에 대한 오해로 보육실에 안주하려는 성향, 외부 창업에 대한 두려움 등 - 직업의식 향상 및 성별감수성 교육필요 	<p>개선 및 발전방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프로그램 개선 및 상담기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 심화교육을 위한 단계별 교육필요 - 법률과 경영 등 정업실전 중심의 세분화되고 실용적인 교육 필요 - 창업보육매니저 양성 및 배치 : 기존 각 센터의 창업지원 실무자 대상의 양성교육→창업보육매니저의 장기적 회의, 간담회 의무화 - 상담 및 사업분석 기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2) 창업정보의 홍보기관의 확대 및 홍보방법의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통한 홍보(이동기관 및 학교, 은행, 슈퍼 등 기혼여성들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통한 상시 홍보) - 여성교육문화센터 내 취업정보센터 중심의 통합정보 제공 - 여성을 위한 취업박람회와 창업박람회 통합적 운영 3) 여성창업전문기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 여성교육문화센터 내 취업정보센터 내 취업정보센터 - 창업지원체계의 모형구축 - 창업매뉴얼 개발 및 제공 - 타 창업지원 정책 추진체계 및 기구의 연계강화 4) 여성창업자를 위한 교육 및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경제인으로서의 자립기능강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전 교육필요 - 창업 준비도를 체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p>2.창업 진행과정</p>	<p>1) 경영지원 부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선 부족 - 동종업자 창업자와의 멘토링, 네트워크 부재, 정보부재 등 - 경영자 훈련, 업종별 기술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부재 <p>2) 자금조달 및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규모의 자금지원 - 지원창구의 중복 - 자금지원절차의 복잡 및 기준엄격(무보증, 무담보 대출의 민간사회연대은행 방식의 수용필요) 	<p>1) 판매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람회 등을 통한 물품홍보 및 관료확보 - 사업유형별 공동브랜드 개발 - 창업자들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독립업체들간의 상호네트워킹/ 여성창업자들간/보육업체간 여성중소기업에 수의계약물량비율 할당조정 (여성기업제품구매지원) - 네트워크 형성 워크숍 개최(입주업체 및 독립업체간 연결) - 사조작을 통한 협회조직 등 <p>2) 특례 제정 및 기구의 단일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창업인지원을 위한 무담보대출 등 우선지원 조례제정 - 점포임대 지원과 창업자금 지원의 민간협력모델 시범운영 - 소액대출제도 확대 및 유동적 상환방식 도입
<p>3.창업 이후</p>	<p>1) 창업이후의 관리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전혀 안되고 있음 - 창업정착이후 보수교육 및 상담, 경영관리 부재 - 독립업체의 데이터베이스 부재 - 창업업체간의 연결부족 <p>2) 평가시스템의 부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성과에 대한 평가기준 모호, 부재로 효율적인 창업지원 어려움 - 사업점검에 대한 피드백 부재로 내실 있는 운영부족 	<p>1) 창업이후 사후관리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업체의 생존문제 : 최소 6개월에 한번 씩 매출 및 고용 현황 파악 - 매출 및 고용현황 추적조사 - 전문가에 의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 독립업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업체의 현황 등 기본적인 정보수록) - 창업보육센터나 지원을 거쳐 간 모든 업체의 정보수록 - 멘토-멘티운영(멘토링프로그램 운영) - Post-B 설립추진(성장지향형 창업보육센터) <p>2) 평가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p>

제 3 절 창업정책 방향 및 각 기관 협력방안

1. 창업정책방향

1) 기존 여성창업인 경쟁력 강화방안 ; 지역 역점사업 연계한 서비스의 고도화

그동안의 여성창업은 여성가장이나 저소득 생계형 창업지원 등을 대상으로 보호정책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창업지원 정책은 보호정책에서 더 나아가 창업기업의 생존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여성창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되 지원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다.

여성기업과 창업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여성 기업을 형성하는 여성사업체의 주요업종은 대부분이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창업(개업)은 일정 수준의 자금능력이 확보 가능할 경우에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에서 과거와 현재까지도 대부분 이들 업종에서 개업하여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이들 업종 및 사업전환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닐 수 있다. 업종전환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에도 맞지 않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전환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측면이 상존한다.

업종전환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기존 업종을 특화하는 방안으로 창업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과 숙박업에 속한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으로는 전라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 분야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각 지자체가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숙박시설 등이 부족하고 지역 특산물과 관련된 이색적인 향토 음식 개발이 미비한 상태이다. 한편, 중저가의 중소형 숙박시설을 위한 지원을 정책차원에서 고려하고 있으나 가족단위의 숙박시설은 영리면에서 이윤이 없어 모두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주 5일제의 확대 실시와 체험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가족단위의 여행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선도적으로 몇몇 숙박시설과 음식점업⁸⁾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고급화·중저가를 통하여 관광특화를 연계하도록 지원

을 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역의 관광정보를 한눈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망 등을 통하여 관련 지원기업들을 연계해주면 기업의 내실화와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라북도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지정을 받는 등 음식과 식품으로서의 인지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 분야에 대한 도 차원의 정책과 사업이 확대 지원될 계획이므로 여성창업 분야에서도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2) 지식집약형 산업중심의 여성창업자 육성 및 지원확대

본 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여성 기업들이 영위하는 산업구조는 업종분포에서 지나치게 소규모 및 영세한 소상공인이 다수를 차지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성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잠재적으로 우수한 여성인력들을 발굴하여 초기 창업상담 단계부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문화 된 창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여성 전문 인력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계형 창업과 소상공인 창업 지원과는 다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의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지원에서 여성창업자 비율이 3.1%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여성창업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제조업과 기술형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창업 지원은 여성에게 비교우위가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서의 여성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여성친화적인 기술제품은 여성과 관련 있는 가사활동 분야 예를 들면 스팀 청소기와 같은 사례는 창업에서 성공한 대표적 예에 해당 한다. 여성에게 좀 더 친화적인 가사활동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교육 분야에서 지식기반 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궁극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의 창업 마인드가 향

8) 음식점업에서의 여성창업 성공사례로는 (주)놀부의 차별화·전문화·기업화(프랜차이즈)를 대표 사례로 예시할 수 있다. 1990년 소상공인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270명의 종업원과 2007년 현재 1,00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음식의 재료와 향토음식 자원이 풍부한 전북에서 창업 고유브랜드를 개발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상되고, 여성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 것이다. 지금까지 취업교육기관 여성관련 창업교육은 단지 교육수료만을 목표로 모집자의 과정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갖는 대상자 중심의 교육에서 다소 이탈된 경향이 있어왔다. 더 나아가 창업을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창업전문상담인과 멘토와의 교류를 장려하는 등 창업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전라북도 여성정책과는 여성취업계의 조직을 둘 만큼 여성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노동시장의 한계와 노동시장의 진입이 기혼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청년창업지원 정책 확대 : 전문계고 및 여대생커리어센터 연계

그동안의 창업지원은 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 창업(개업)지원이 주를 이루었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은 극히 미미 하였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2007년부터 실시하는 “희망창업”은 창업경험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20~30대 청년창업 준비자들에게 경영 노하우와 전문 교육을 실시하거나 사후관리 등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되는 전라북도 고유의 창업지원 사업이다. 본 사업이 지역의 청년인재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여성들의 지원도 43%정도를 유지할 만큼 반응이 좋은 편이다. 창업업종도 지식기반 사회서비스 업종분야에서 참여와 비중이 늘고 있어 바람직한 결과가 기대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청년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문계고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이 창업으로 연계되어 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창업에 대한 내용과 진로지도에 창업 부문을 포함 시킨다.

또한 각 대학소재의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를 활용하여 여대생 대상의 창업교육과 체계화 된 창업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한다.

특히 지역연고산업 분야에서는 여성친화적인 업종이 많으나 산업화를 추진하기에는 취약한 부분들이 있으므로 이를 창업으로 연계할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순창의 발효식품, 고창의 복분자, 임실의 치즈 등은 지역 특화상품이지만 상품의 마케팅이 취약하고 단일 품목으로서는 상품화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가공식품이나 퓨전음식, 기능

성 식품으로의 변화를 유도하여 창업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품 소재를 고부가 가치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창업을 지원한다면 지역 산업의 활성화와 청년실업의 해소 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4) 여성창업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 여성창업 DB구축 및 네트워크 접근성 증대

여성취업관련 기관에서 여성대상의 창업교육과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하여 창업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많은 여성 창업자들이 유사 업종이나 타 업종의 여성기업인들과 시장 및 상품이나 인력확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과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창업보육센터나 지원을 거쳐 간 모든 업체의 정보수록을 DB화하여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시장 및 기술관련 정보를 얻고 기업경영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후견인(Mentoring)제도를 만들어 네트워크 접근성을 증대하도록 한다. 각 분야별(법률, 노무, 세무, 회계, 특허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여성기업 경영자문단을 구성하여 초기 창업인과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는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5) 창업교육의 개선방안 : 5단계 패키지 창업지원프로그램의 확대

현재 창업교육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수많은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는 창업교육이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회적 성격이 강하며 여성창업인의 수준에 따른 단계별 교육이나 심화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창업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5단계 패키지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창업인을 대상으로 창업이전의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정책 수혜자를 위한 단계별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으로 실시되는 '5단계 패키지 창업지원프로그램'은 One stop지원으로 수혜자들의 호응도와 효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사업이다. 특히 교육대상 모집에서부터 창업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 발굴하여 이들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창업 이

후에도 조직관리, 시설 및 고객관리 등의 경영문제 해결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영 컨설턴트’ 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영분야에서의 여성기업인들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공경영을 위해 사후에도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통하여 창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도하는 것은 여성창업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이라 할 수 있다.

6) 여성취업박람회에 여성창업부스 유치

전라북도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부터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취업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구인과 구직을 현장에서 연결해 주는 등 여성의 실질적인 취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 행사이다. 작년에는 실질적인 여성채용 계획이 있는 업체와 여성고용인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부스를 설치하다 보니 창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관련 여성기업인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박람회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혼여성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응이 좋다. 따라서 이런 취업박람회를 통하여 많은 여성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알리고 창업분야의 다양성, 자신에게 적합한 직종, 멘토와의 만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여성들의 의식 저변확대와 창업으로의 꿈을 키울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 각 기관 협력방안

창업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 더욱이 취업에 대한 강한 열망이나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경력단절여성이나 기혼여성이 비교적 쉽게 취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야가 창업이다. 그러나 창업에 대한 사전의 준비가 미숙하거나 기업경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여성들이 창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한계와 장벽이 많다. 따라서 여성이 창업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창업을 육성해야 하며 이는 제도적인 지원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여성창업을 지원하는 부처와 이를 시행하고 있는 각 기관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업무의 중복과 분산으로 인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체제의 구축이 부재한 상태이다. 또한 여성창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관과 이를 시행하는 위탁기관이 이분화 되어 있고 위탁기관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하여 창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성창업의 지원기관은 여성부,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창업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자체,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창업에 관련한 상담과 사업, 교육 등은 여성취업기관인 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경제인협회,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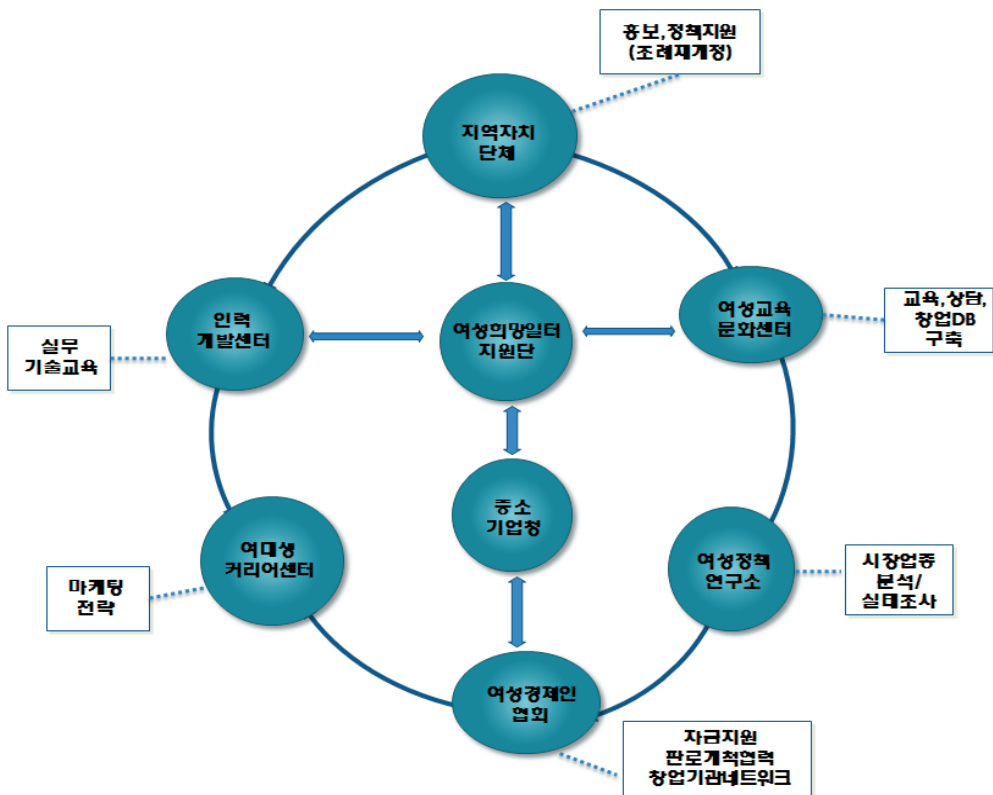
따라서 여성창업 지원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해서는 각 관련집단간의 협력망 구축과 운영을 통하여 창업정책의 성공과 확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창업 기관간의 협력망은 관련 부처 또는 개별기관 등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여성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한 여성희망일터 지원단이 총괄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추진하도록 한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여성취업 관련 기관은 각 기관의 고유 기능과 역할에 상응하는 전문화 되고 특화 된 부분을 창업과 연결하여 여성창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우선 그동안 여성창업에 관련된 사업은 대부분 노동부 소속의 중소기업청의 위탁에 의하여 여성경제인협회가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인들과

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성창업 지원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현실적으로는 창업상당에서부터 직종선정, 교육과 기술개발 등 창업의 전과정에 있어 전문화 된 인력부재로 인하여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여성창업지원에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여성경제인협회가 창업에 관련된 상담과 교육, 사업을 총괄하던 부분을 크게 실무중심의 기술교육과 창업에 관련된 전문화 된 교육 및 상담으로 크게 이분화 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그림 5-1> 각 기관의 역할 및 협력방안

그림에서와 같이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창업여성을 위한 맞춤형 상담으로 창업여성의 직업의식과 창업 준비정도와 같은 개인적인 상담부터 시장분석과 직종선정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까지 여성창업인의 전문적인 상담을 도와주고 창업에 관련된 법률, 경영 등 전문화 된 창업교육을 담당한다. 또한 여성창업인에 대한 DB의 구축과 운영을 담

당하여 여성창업인의 네트워크와 협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의 여성창업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던 여성경제인협회는 자금지원과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담당하도록 한다. 정부정책에서 제공되고 있는 점포임대 지원방식과 민간기관에서 지원되고 있는 자금지원 방식을 연계하여 민관협력 방법을 운영하도록 한다.

여성창업에 관련된 기술교육은 그동안 실무차원에서의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특히 기존의 실무교육이 일회적 성격이 강하여 심화된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였던 점을 반영하여 단계별 수준교육과 전문화된 강사와의 연결을 통하여 창업에 필요한 기술이 전수될 수 있도록 교육의 전문화를 담당하도록 한다.

여성창업에 관련된 주된 역할은 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경제인협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여대생커리어센터는 여성창업인이 취약한 부분이 마케팅 부분을 담당하여 상품화 과정과 효과적인 홍보 등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지식의 활용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연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정책연구소에서는 창업과 관련된 직종분석, 시장수요분석 등을 통하여 창업으로서 유망한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여성기업인의 문제와 정책적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정책과 각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사업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점검하고 창업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여성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각 기관들이 기관 고유의 특성을 토대로 파트너쉽과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개별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협력하여 여성창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 금재호, 윤미례, 조준모, 최강식(2006). 『자영업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김복규, 이종열(2005). “농촌여성 소규모 사업창업 지원방안연구”. 『지역사회연구』 제 13권 제 3호.
- 김세영, 유가효, 홍성희(2005), “소규모 자영업의 성별 사회경제적 제약조건”, 『가족과 문화』 제 17집 3호.
- 김원석, 고순철, 권오박(2003). “농촌여성의 소규모 창업을 위한 컨설팅 전문가 육성”,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 10권 제 2호.
- 김주미, 김익성, 전현선, 장영순(200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김창연, 고선주(2006). 『서울시여성창업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재)서울여성.
- 나중덕, 김승호, 최막열(2004). “여성 창업기업의 환경 및 경영자 특성: 협력활동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연구』 제 26권 제 1호.
- 노동부(2007). 『2007년도 여성과 취업』, 노동부.
-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2006). 『여성고용촉진대책-여성의 노동시장 이탈방지와 재진입 활성화 중심』, 제 7차 일자리만들기 양극화 해소 당정 공동특별위원회 자료.
- 류만희(2006). “한국에서 소액창업지원사업(Micro-Credit)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 24권.
- 문숙재·최자경(2001), “여성창업기업의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5(1)
- 문유경(2002). “여성자영업자의 특성과 취업력”, 『한국 인구학』 제 25권 제 2호.
- 산업연구원(2003). 『창업보육정책의 평가 및 발전방안』
- 서도원, 조규호(2006). “우리나라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특성에 관한연구”, 충북대학교 『산업과 경영』 제 19권 제 1호.
- 심우일(2007). 『지방중소기업 지원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양인숙, 장미혜, 김난주, 이윤화(2004). 『여성전문인력의 창업활성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양인숙(2005). “여성창업의 성공모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인사조직학회 2005년도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전인우(2007). 『소상공인의 조직화협화 모델 제시와 정책방향』, 중소기업연구원.
- 이상석(2006). “여성기업의 창업동기, 성공요인, 성과간의관계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 28권 제 4호.
- 이정섭, 박상철(2007). 『여성기업 현황 및 지원정책의 발전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전방지(2001). “여성과 기업: 여성창업과 경영의 특성”, 『경제와 사회』 통권제51호.
- _____ (2002). “여성중소기업인의 창업과 경영방식-우리나라와 미국의 경험”, 『중소기업연구』 제 24권 제 2호.
- _____ (1997). “중소기업과 여성 : 창업과정의 성차”, 『사회과학연구』, 제 16집,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중소기업청(2008).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2008년도 지원사업 안내』, 중소기업청 내부 자료.
- 중소기업청(2007). 『중소기업관련통계』 중소기업청 동향분석팀.
- 중소기업청(2008). 『08년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
- 최영숙(2000). “여성기업의 창업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정책대학원, 석사논문
- 최종열, 정해주(2006).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제 13권 제 4호.
- 최청락, 안미숙, 김영예(2006). 『여성창업지원센터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여성경제정책센터.
-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01). 『여성창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보고서.
- _____ (2007). 『전업주부 (재)취업 욕구 조사 및 (재)취업 촉진 정책 개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보고서.
- 한국여성경제인협회(2008). 『2007 여성기업 실태조사』, 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한국여성개발원(2004).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활성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치연구소·중소기업청(1996). 『여성경제인 활성화방안 연구』
한정화, 백운정(2003). “여성 벤처기업의 창업동기와 경영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중소
기업연구』 제 25권 제 3호.
황정임, 류연규, 류만희(2006).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을 통한 자활지원방안연구』, 한국여성
개발원 연구보고서.

소상공인지원센터 내부자료(2008)
전라북도 투자유치국 내부자료(2008)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평가자료(2007)
전라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 내부자료(2007)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내부자료(2008)
전북여성경제인협회 내부자료(2008)
전북중소기업청 내부자료(2008)
전주시여성인력개발센터 내부자료(2008)
전주시 고용지원센터 내부자료(2008)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자료
희망창업소상공인지원센터 내부자료(2008)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http://www.bi.go.kr>
중소기업조사통계 시스템 <http://stat2.smba.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전발연 2008-R-12

전라북도 여성창업실태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행인 | 신기덕

발행일 | 2008년 10월 31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560-0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전화:(063)286-9201 팩스:(063)286-9206

ISBN 978-89-92471-45-9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